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1회 국내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물품학과 국제성

-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1층 모의법정(B161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2023년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1회 국내학술대회

# 동유라시아 물품학과 국제성

-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7:30
-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1층 모의법정(B161호)
- 주최: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후원: 한국연구재단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됨  
(NRF-2020S1A6A3A01054082)



제11회 국내학술대회 일정\_2023년 12월 9일(토)

- 주제: 동유라시아 물품학과 국제성 -

개회식	
13:00~13:10	개회사   노대환(동국대 문화학술원장, HK+사업단장)
1부 발표	
13:10~13:35	<b>【제1발표】</b>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 유통 발표   김장구(동국대) 토론   이호정(한국외국어대)
13:35~14:00	<b>【제2발표】</b> 라마의 선물: 티베트 직물 특(phrug, 穉穉) 연구 발표   최소영(동국대) 토론   윤성제(서울대)
14:00~14:25	<b>【제3발표】</b> 모청포(毛靑布)와 삼사포(三梭布): 17세기초 후금·조선의 중국산 면포 교역 발표   임경준(동국대) 토론   이선애(경상국립대)
14:25~14:35	휴식
2부 발표	
14:35~15:00	<b>【제4발표】</b>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발표   권기석(동국대) 토론   홍성화(부산대)
15:00~15:25	<b>【제5발표】</b>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의 길': 근세 왜관과 나가사키 무역에 관한 시론적 고찰 발표   이해진(동국대) 토론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15:25~15:50	<b>【제6발표】</b>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발표   남민구(동국대) 토론   윤승희(동국대)
15:50~16:00	휴식
16:00~17:30	<b>【종합토론】</b> 발표자·토론자·방청객 좌장   서인범(동국대)



# 목 차

【제1발표】 김장구(동국대)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식물 유통 .....	11
【제2발표】 최소영(동국대) 라마의 선물: 티베트 식물 특(phrug, 穉穉) 연구 .....	33
【제3발표】 임경준(동국대) 모청포(毛靑布)와 삼사포(三梭布): 17세기초 후금·조선의 중국산 면포 교역 .....	51
【제4발표】 권기석(동국대)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	67
【제5발표】 이해진(동국대)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의 길’: 근세 왜관과 나가사키 무역에 관한 시론적 고찰 .....	103
【제6발표】 남민구(동국대)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	117



【제1발표】

##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 유통

김장구(동국대)

---

I. 머리말

II. 대몽골국 성립 이전 북아시아의 직물 유통

III. 대몽골국 성립 이후 동유라시아의 직물 유통

IV. 맺음말



# 대몽골국 성립 전후 동유라시아의 직물(織物) 유통<sup>1)</sup>

김장구<sup>2)</sup>

## I. 머리말

동(東)유라시아의 북부 지역, 즉 오늘날의 몽골고원인 북아시아의 고대 유목국가 구성원들은 오종(五種) 가축을 위주로 하는 유목(遊牧)을 생업으로 영위하며, 일부는 수렵(狩獵)과 어로(漁撈) 활동을 통해 부족한 경제력을 다소나마 보충하였다. 따라서 고대 유목국가의 생산 경제력은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이 때문에 주변 오아시스 도시 지역이나 정주 농경국가들과의 물품(物品) 교류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sup>3)</sup>

그 방향은 주로 서쪽의 오아시스 지역과 남쪽의 중국 지역이었다. 물론 동쪽의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의 고대국가들과도 교류를 했겠지만, 기록이나 유물이 많지 않으며 또한 서쪽과 남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특히,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지역의 도시국가에 대한 패권을 둘러싼 유목 세력과 중국 세력의 경쟁은, 흉노(匈奴)제국과 진한(秦漢)제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치열하였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은 흉노제국이 강성했을 때나 약해졌을 때를 막론하고, 중국 지역에서 흉노제국에 보냈던 물품의 종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노제국의 서방[西域] 원정 이후 세력이 강성했을 때인 한(漢)나라 초기에 문제(文帝)가 목득(冒頓) 선우(單于)에게, “선우께서 몸소 군사를 이끌고 여러 나라를 정벌해 비록 전과는 얻었으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역시 크다 하니 짐의 의복인 수겹기의(繡袷綺衣), 장유(長襦), 금포(錦袍) 각 1벌, 비소(比疏) 1개, 황금으로 만든 황금 허리띠[黃金飾具帶]와 황금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黃金犀紕] 1개, 수놓은 비단[繡] 20필, 비단[錦] 20필, 붉은색의 두꺼운 비단[赤緋]과 푸른색 비단[綠繒] 40필씩을 보내 오.”라며 선물을 보냈다.<sup>5)</sup>

물품 목록을 보면, 황제가 착용하는 의복과 장신구 이외에도 다양한 비단 등 견직물(絹織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1054082)

2)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유라시아실크로드연구소 HK연구교수

3)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9, 1986;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1~16쪽.

4) 강인욱,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 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연구』 15, 2010, 16~21쪽; idem,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66~71쪽.

5) 『漢書』 卷94上 「匈奴傳」 第六十四上, 375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2009, 87~88쪽; 정재훈, 『흉노 유목제국사, 기원전 209~216』, 사계절, 2023, 141쪽.

이에 대해 한 연구자는 “서방 원정 이후로 중국과 서방을 잇는 교통로를 장악한 흉노는 이전과 다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 이제 동쪽의 조선(朝鮮)에서 서쪽의 강거(康居)로 이어지는 ‘초원길’ 운영의 주체가 되어 개별 세력이 분점하던 교통로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아가 동서교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흉노는 중국의 자원을 최대한 얻어내 흉노 사회의 질적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였다.<sup>6)</sup>

한편 흉노제국의 내분과 고립으로 인해 약해진 흉노의 호한야(呼韓邪) 선우는 기원전 51년 한나라에 신속(臣屬)하기 위해 장안(長安)으로 향했다. 남하한 [호한야] 대 선우는 감천궁에 도착해 새해를 축하하는 조회[朝賀]에 참석했다. “漢[선제(宣帝)]은 그를 특별한 예로 우대하여 지위를 제후왕보다 위에 두고, 자신을 배알할 때 신(臣)이라고 칭하되 이름을 말하지 않게 했다. 이와 함께 대선우에게 관모와 허리띠, **저고리와 치마**, 황금으로 만든 도장[璽]과 여초(罽草)로 염색한 도장 끈, 옥으로 장식한 검과 허리에 다는 칼, 활 하나와 화살 4묶음, 덮개로 싸여 있는 의장용 창 10자루, 의자가 달린 수레[安車] 1대, 말안장과 고삐 1세트, 말 15필, 황금 20근, 20만 전, **의복 77벌, 수놓은 비단[錦繡], 고운 주름 비단[綺縠]** 등과 **여러 종류의 비단 8000필, 명주솜 6000근** 등을 주었다.” [이것은] 이전에 없던 파격적인 수량이었다. 조례(朝禮)가 끝난 뒤, 선제는 사자를 시켜 호한야보다 먼저 장안으로 가면서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sup>7)</sup>

이 때 한나라 선제가 흉노의 호한야 선우에게 선물로 준 물품 중에는 선우에게 걸맞은 의례용 물품과 무기, 수레, 말, 황금 등과 함께 의복과 다양한 비단과 명주솜 등 견직물(絹織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흉노제국은 강했을 때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나라를 압박하여,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한나라에 신속(臣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중국[漢]으로부터 막대한 물자를 얻어낼 수 있었다.

한편 북아시아의 유목 세력과 주변 세력과의 경쟁 관계는 튀르크[突厥] 제국과 위구르[回鶻]제국 시기에도 동일하게 되풀이 되었다.<sup>8)</sup> 예를 들면, 튀르크 제국은 그 영역이 흉노 때보다 더 서쪽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서아시아의 사산 왕조뿐 아니라 멀리 비잔티움 제국과도 빈번한 교류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튀르크 제국과 사산 왕조는 비단 교역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즉, 튀르크 제국은 소그드 상인 마니악이 이끄는 상인단을 사산 왕조에 파견했지만, 사산 왕조는 이들이 가져온 비단을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고 자신들이 독점해오던 비단의 국제 교역에 튀르크와 소그

6) 정재훈, 같은 책, 144쪽.

7) 『漢書』 卷94下 「匈奴傳」 第六十四下, 3798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2 『漢書 外國傳 譯註』 上, 2009, 175~176쪽; 정재훈, 같은 책, 255~257쪽.

8)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2016; idem,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2005를 참조하시오.

드[상인집단]의 개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내었다.<sup>9)</sup>

위구르 제국 멸망 이후에 북아시아 지역은 거란[遼]과 여진[金] 등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통제하였지만, 유목민 사회 내부는 경제적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다. 초원의 유목민들은 오랫동안 통합되지 못한 채 분열되어 서로 공격하고 약탈하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였다. 『몽골비사[元朝秘史]』를 비롯한 관련 사료들을 읽어보면 이러한 상황은 칭기스 칸이 등장하여 대몽골국을 성립할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이런 상황에서 칭기스 칸은 무엇보다 몽골초원의 분열된 여러 세력을 통합하고, 주변 세력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유목민들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몽골부를 통합하고 주변의 몽골계 유목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오랜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 가축과 물자가 부족해진 몽골초원을 안정시킨 후에 외부 세계를 압박하거나 침략하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다양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206년에 칭기스 칸의 대몽골국 성립과 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카안[元世祖]이 1276년에 남송(南宋)을 정복함으로써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일방적인 우위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앞서 필자는 대몽골국 성립을 전후하여 몽골고원에서 유통되었던 다양한 물품에 대해 몇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11)</sup> 따라서 일부 사료와 내용이 겹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대몽골국 성립을 전후하여 약탈, 공납, 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아시아 초원에서 유통되었던 직물들을 모직물,<sup>12)</sup> 견직물, 면직물 등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견직물[비단]은 역대 유목국가의 통치자와 구성원들이 가장 좋아하여 구하고 싶은 물품이었고, 중국 측에서는 비단을 이용하여 북방 유목민들을 달래거나 굴복시키는 등 다양한 정치적 의도로도 사용하였다.<sup>13)</sup>

## II. 대몽골국 성립 이전 북아시아의 직물 유통

대몽골국 성립 이전, 혼란했던 시기의 북아시아 초원의 직물 유통 상황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주로 모피(毛皮)를 획득하기 위해 사냥을 하거나 가축의 털을 이용해 만든 모직물에 대한 언급이 많다. 다음에 열거한 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9) 김호동, 같은 책, 78쪽.

10)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사계절, 2004.

11)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 111~140쪽; idem,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101~137쪽; idem, 「대몽골국 초기 고려-몽골 간 물품 이동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5, 2022, 83~117쪽.

12) 모직물은 모피와 피혁 제품도 포함하여 살펴보겠다.

13) 이 논문을 보충하고 수정하는 데, 동국대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2차 연구토론회(2023년 11월 11일)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비평을 통해 도움을 준 서울역사편찬원의 김윤정 연구원께 감사드립니다.

㉔-1.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은 담비(buluḡa ← bulaya)와 다람쥐(keremü) 같은 사냥감이 있는 자신의 코리 토마드 땅에서 사냥을 금하는 바람에 그곳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자, … 보르칸을 일으킨 신치 바얀의 오리양카이족의 땅으로 옮겨 오고 있었다.<sup>14)</sup> [『몽골비사』 §9]

㉔-2. … 숲 속에서 오리양카다이족 사람이 세 살 난 사슴(buḡu)을 죽여 그 갈비와 창자를 굽고 있는 것을 보고, 도본 메르겐이 “동무여, 나눴시다!”하고 말했다. [『몽골비사』 §12~13]

㉔-3. ‘카불 칸이) … 그 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알탄 칸 앞으로 가서는 그의 수염을 잡는 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 그에게 하사할, 그의 키만큼 될 금과 보석과 의복을 창고에서 가져오도록 하여 모두 그에게 준 뒤, 최대한으로 그를 깎듯하게 대하여 돌려보냈다.’ [『집사』 「칭기스 칸 기」]<sup>15)</sup>

㉔-4. 거기서 함께 나아가 보르칸 칼돈의 남쪽, 쿠렐쿠 안에 있는 생구르 개울의 카라 지루겐의 쿠쿠노르에서 살고 있을 때는 타르바가(tarbaya), 들쥐(küčügür) 등을 잡아 연명했다. [『몽골비사』 §89]

㉔-5.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을 타고 타르바가(tarbaya) 사냥을 나가고 없었다. 저녁에 해가 진 뒤에야 벨구테이는 꼬리가 짧은 공골말에 타르바가를 싣고, 자신은 몸을 흔들며 걸어왔다. [『몽골비사』 §90]

이상의 사료에 나오는 사냥감들을 살펴보면, 담비와 다람쥐, 사슴, 타르바가, 들쥐 등이 보인다. 이를 통해 몽골부의 세력형성 초기부터 테무진의 유년기까지 몽골인들은 사냥을 통해 음식물 일부를 구하고 아울러 사냥한 동물의 모피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아울러 사료 ㉔-3을 보면, 칭기스 칸의 증조부인 카불 칸 시대에 몽골부 세력이 비교적 강했을 때 금나라 황제[알탄 칸]가 많은 금은보석과 함께 의복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카불 칸 시대에도 몽골부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던 의복 등 일부 물품은 이웃 정주지역[金]으로부터 획득하였던 것이다.

한편 몽골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며 값비싼 모피는 단연코 ‘검은담비 모피’였다. 검은담비의 모피 수십 장을 이어 붙여 만든 외투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몽골초원의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최적의 방한복이었다. 다음 사료를 보면 테무진에게서 ‘검은담비 외투’를 선물로 받은 옹 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㉕-1. … 켈루렌 강의 발원 지역인 부르기 기슭에서 목영할 때 ‘초탄 어머니의 예물’이라고 처가에서 검은담비 외투(qara bulayan daqu)를 보내왔다. … 테무진이 옹 칸에게 가서, “일찍이 저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바 있습니다. …”고 하며 담비 외투를 주었다. 옹 칸은 매우 기뻐하며 이르기를, “검은담비

14) 이하 『몽골비사』의 번역과 전사는 유원수 역주본(사계절, 2004)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일부 필자가 수정한 부분도 있음을 밝혀둔다.

15) 라시드 앳 딘,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56~57쪽.

16) 몽골인의 사냥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십시오. 原山焯, 「モンゴル狩獵考」, 『東洋史研究』 31-1, 1972; Münküev N. Ts., A Mongolian Hunting Practice of the 13th Century and the Buryat Terms Zeegete aba and Aba Khaidag, *Tractata Altaica*, 1976; Allsen Th. T.,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2006.

외투의 담례로 흩어진 너의 백성을 모아 주마! 담비 외투의 보담으로 헤어진 너의 나라를 합쳐 주마! ... 라고 했다. [『몽골비사』 §96]

이 기록은 1183년 경, 테무진이 처가[장모]로부터 결혼 예물로 받은 검은담비 외투를 아버지 이수게이의 의형제였던 옹 칸에게 선물함으로써, 훗날 테무진이 몽골부를 통일하고 이어서 대몽골국을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료를 보면, 검은담비 모피로 만든 의복은 일반 평민(qaraču)은 입을 수 없었으며, 대부분 부유한 귀족(noyan)들이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㉔-1. ... 오리양카이 사람 자르치오다이 노인이 풀무를 지고 젤메라는 이름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오난 강의 델리운 동산에서 테무진이 태어났을 때 나는 담비 가죽 배내옷(bulayan nelkei)을 주면서 나의 이 아들 젤메도 주었다. ...” [『몽골비사』 §97]

㉔-2. 오도이드 메르키드가 도망할 때 담비 가죽 모자(bulayan mayalai)를 쓰고, 암사슴의 종아리(maral-un yodun)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고, 털을 없애고 무두질한 수달피(usun-u bulayan) 가죽을 이어 만든 옷을 입은 다섯 살 난 쿠추라는 이름의, 눈에는 불이 있는 소년이 목영지에 떨어진 것을 우리 군대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몽골비사』 §114]

이 기록은 1184년 경, 테무진이 옹 칸과 자모카와 함께 삼성(三姓) 메르키드를 섬멸하고 나서 전장이 되었던 목영지에 홀로 남겨진 ‘쿠추(Küčü)’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는 상황이다. 어린 쿠추의 차림새를 보면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집사』 「부족지」에는 삼림 우랑카트 종족에 대해 ‘그들은 결코 천막을 소유하지 않았고, 의복은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소나 양이 없었고, 山牛나 산양, 혹은 산양과 비슷한 주르를<sup>17)</sup> 소나 양 대신 키웠다. ... 초원과 평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山牛와 다른 짐승들에게 다가가 죽인다.’<sup>18)</sup>고 기록하고 있어 초원의 유목민과는 다른 수렵민인 삼림 우랑카트 종족의 삶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료 ㉔~㉔에서 보이는 직물류는 ㉔-3에 보이는 금나라 황제가 준 ‘의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담비, 다람쥐, 사슴, 타르바가, 들쥐, 암사슴, 수달 등 동물의 모피[모직물]만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 초기 몽골부 시기에는 외부와의 직물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은 칭기스와 토고릴[옹 칸]이 타타르부를 공격하여 승리하는 장면이다.

17) mon. *jür*. 야생 암노루, 우리말로는 ‘느렁이’라고 한다.

18) 라시드 앳 딘, 『집사·1』 「부족지」(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2, 190~191쪽.

㉔-1. 칭기스 카한과 토고릴[웅] 칸은 그렇게 요새를 구축한 (타타르 부의) 메구진 세울투를 그의 요새에서 잡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의 은제 요람과 **진주 담요(tanatu könjile)**를 칭기스 카한이 가졌다.’ [『몽골비사』 §133]

이 내용은 『집사』 「부족지」에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칭기스 칸)는 이 전투에서 은(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꿰맨 [진주] 담요**, 그리고 기타 여러 재물들을 약탈물로 빼앗았는데, 이는 그 당시 타타르 종족들이 모든 유목민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풍부했기 때문이다.’<sup>19)</sup> 라고 거의 그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칭기스 칸은 쿠리엔으로 이루어진 휘하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했다. 그를 붙잡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말 떼와 가죽**과 물자를 노략했다. 그렇게 약탈하는 도중에 은으로 만든 요람과 **금실로 짠 이불**을 빼앗았는데, 그 당시 몽골인들 사이에서 그 같은 사치품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 성과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져 널리 알려졌다.’<sup>20)</sup>라고 되고 있다.

이어서 다음 기록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㉔-2. ‘타타르족이 요새화한 나라토 시투겐의 목영지를 약탈할 때 우리 군인들이 목영지에 버려진 어린 소년을 발견했다. 금 귀걸이,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dajī toryan)**과 **담비 가죽(bulayan)**으로 **안감을 댄 조끼(heligebčitü)**를 입은 소년이였다. 데려다가 칭기스 카한이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sauya)<sup>21)</sup>입니다”하고 드렸다.’ [『몽골비사』 §135]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1196년에 타타르를 섬멸하고 그 목영지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후엘룬 어머니께 선물로 드려 ‘시키킨 코토코’라는 이름을 주어 여섯 번째 아들로 길렀다는 내용이다. ‘시키킨 코토코’가 어릴 때 금 귀걸이와 코걸이를 하고,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입은 것으로 보아 타타르부의 귀족 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즉, 위의 기록들을 통해 금나라의 후원을 받고 있던 타타르부는 상당히 부유했으며, 몽골부는 상대적으로 귀중품을 비롯한 모든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의 사료 ㉔-1과 ㉔-2에서는 ‘타타르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고급 직물류인 진주[금실로 꿰맨~짠] 담요와 금박 물린 비단, 그리고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를 언급하고 있어, 외부 정주세계인 금(金)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타타르부의 부유함을 엿볼 수 있다.

19) 『집사·1』 「부족지」, 156쪽.

20) 라시드 앳 단,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사계절, 2003, 153쪽.

21) 몽골시대 ‘선물(sauya)’의 활용과 의미에 대해서는 Yihao Qiu, “Gift-Exchange in Diplomatic Practices during the Early Mongol Period”, *Eurasian Studies* 17, 2019, pp. 202-227;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 경제 정치 네트워크-, 『중앙아시아연구』 26-2, 2021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1202년 '노카이 일', 즉 개해 봄에 칭기스 칸은 알치 타타르와 차간 타타르를 치기 위해 올쿠이 실지울지트라는 강가에 출정하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어느 누구도 약탈물을 취하느라 정신을 팔아서는 안 된다. 전투가 끝나고 적을 없앤 뒤에, 약탈물을 거두어 그 모두를 공평하게 각자에게 나눌 것이다”라고 했고, 모두 이에 대해 합의했다.<sup>22)</sup>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물품이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대몽골국의 군사조직이 기존의 원심력이 강한 유목 부족적 성격에서 칭기스 칸을 중심으로 하는 구심력이 강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제시된 기록이다.<sup>23)</sup>

다음 기록은 칭기스가 유목세계의 유력한 지도자로 떠오르자 멀리 중앙아시아 출신의 상인 '아산'이 응구드 지역을 거쳐 몽골초원으로 장사하러 찾아오는 장면이다.

㉞-1. '응구드 족의 알라코시 디기드 코리에서 온 사르탁 사람 아산이 흰 낙타(čaya'an teme'e)를 타고, 일천 마리의 거세 양(irges)을 몰고 **담비(bulaya)**, **날다람쥐(keremü)**와<sup>24)</sup> 바꾸러 에르구네 강을 따라 내려오는 것을 가축에게 물을 먹이러 발조나 호수로 들어가다가 만났다.' [『몽골비사』 §182]

몽골 역사에서 유명한 이 기록은 1203년 경, 칭기스 칸이 케레이드의 응 칸의 습격을 받아 발조나 호수로 피신해 있을 때, 사르탁(호레즘) 상인인 아산이 그 곳을 지나다가 칭기스와 만났을 때이다. 이 상황은 아산이 칭기스에게 명운을 걸고 몽골고원으로 왔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아산의 속마음은 추후 칭기스 칸이 승리했을 때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미리 염두에 둔 계산된 행동이었을 것이다. 또한 칭기스 칸은 아산을 통해 호레즘 왕국 등 서아시아의 정보를 얻기 위한 계산이었다.<sup>25)</sup> 이 장면에서도 역시 담비가족[貂(鼠)皮]과 날다람쥐가족[青鼠皮]이 중요한 물품으로 등장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사료 ㉞~㉞에 보이는 직물류는 『몽골비사』 133절과 『집사』 「부족지」의 **진주[금실로 꿰맨~짚]** 담요와 135절의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이다. 여기서 언급된 **진주[금실]** 담요, **금박 물린 비단**과 **담비 가죽으로 안감을 댄 조끼** 등은 분명히 몽골고원 동부의 타타르부를 공격하여 약탈한 것이지만, 아마도 그 전에 외부 정주지역[金]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직물류들이다.

금나라가 타타르부를 앞세워 몽골초원을 감시하고 괴롭히기 전, 금나라 건국 초기에는 몽골[蒙古斯]이 금나라를 괴롭혔는데, 1221년 몽골을 방문했던 조공(趙珙)은 '옛날에 있던 몽고스[蒙古斯]국은 금나라의 위천회(僞天會) 연간(1123~1134)에 자주 금

22) 『집사』 2 「칭기스 칸 기」, 199~200쪽.

23)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1992, 67~68쪽.

24) 우리말로는 '청설모'라고도 부른다.

25) Thomas T. Allsen,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p. 87;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사계절, 2020, 163~164쪽.

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혔는데, 금나라는 싸우다가 후에는 많은 금과 비단을 주어 화친하였다.’<sup>26)</sup>는 기록을 남겼다.

이 사료를 통해서도 당시 몽골 유목민들 역시 주변 정주지역에서 금실로 짠 비단과 금박 물린 비단 등 초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획득했음을 알 수 있다.

### Ⅲ. 대몽골국 성립 이후 동유라시아의 직물 유통

다음으로 1206년 대몽골국 성립 이후 칭기스 칸의 영향력이 주변세계로 확대되면서 몽골고원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는 다양한 직물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sup>27)</sup>

㉞-1. 칭기스 칸이 나이만 군대를 패배시키고 타양 칸을 죽였을 때, 즉 호랑이의 해(=1206년)에 오난강의 河源에 아홉 개의 다리를 지닌 흰 깃발을 세웠다. 거대한 집회와 대연회가 열렸고 칭기스 칸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그 뒤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을 목적으로 출정하였는데, **매 사냥**으로 정신이 없던 그를 사냥터에서 급습하여 죽여 버렸다. 그의 휘하에 있던 쿠실룩과 그의 형제, 둘 다 도주하여 예르디쉬[이르티시] 강으로 갔다.<sup>28)</sup> [『집사』 「부족지」]

이 기록은, 칭기스 칸이 나이만을 정복하고 타양 칸을 죽인 뒤 대몽골국을 성립하고 타양 칸의 형제인 부이룩 칸을 잡으러 갔을 때, 부이룩 칸은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매 사냥’에 빠져 있다가 급습을 당해 죽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나이만을 비롯해 몽골고원의 유목 귀족들이 매 사냥을 즐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㉞-2. 칭기스 칸은 토끼의 해인 ‘타울라이 일’, 즉 603(즉 1206~1207)년에 (키르기스의) 이 두 군주에게 알탄이라는 사람과 부쿠라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귀순할 것을 종용했다. 그들은 휘하의 세 아미르를 흰 송골매(songqôr)를 돌려 보내 배알하러 보내고 귀순해 왔다.<sup>29)</sup> [『집사』 「부족지」]

이 기록을 통해서는 몽골고원의 서북쪽에 살던 키르기스인들이 토산품인 ‘흰 송골매’, 즉 ‘名鷹’을 칭기스 칸에게 조공품으로 바친 사실을 알 수 있다.

㉞-3. (조치가) 투멘 키르기수드에 이르자 키르기수드의 노안들인 예디 이날, 알 디에르, 우레벡 디긴 등이 흰 송골매(čaya'anuyud šingqod), 흰 거세마(čaya'anuyud aytas), 검은담비(qaranuyud bulayad) 등을 갖고 귀순해 와서 조치를 알현했다. 시비르, 케스디임, 바이드, 토카스, 텐렉(텔렝구드), 투엘레스, 타스, 바지기드(바시키르)에서 이쪽으로 숲의 백성들을 귀순시키고 조치가 키르기수드의 만호, 천호들을, 숲

26) 『蒙韃備錄箋證』(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434쪽, ‘舊有蒙古斯國, 在金人僞天會間, 亦嘗擾金虜爲患, 金虜嘗與之戰, 後乃多與金帛和之’.

27) 대몽골국 성립 후 카라코룸 수도권의 역사와 동서교역에 대해서는 이개석, 「元代の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1996;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2019를 참고하십시오.

28) 『집사』 1 「부족지」, 222쪽.

29) 『집사』 1 「부족지」, 246~247쪽. 이 내용은 『집사』 「칭기스 칸 기」와 『元史』에도 있다. 『집사』 2 「칭기스 칸 기」, 253~254쪽; 『元史』 「本紀」 第一, 太祖 二年 丁卯條(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99, 14쪽). ‘是歲, 遣按彈, 不兀刺二人使乞力吉思. 既而野牒亦納里部, 阿里替也兒部, 皆遣使來獻名鷹.’

의 사람들의 노안들을 데려다 칭기스 카한에게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을 바치며 알현케 했다.’ [『몽골비사』 §239]

이상의 기록들 ㉔-1~㉔-3은 칭기스 칸과 만아들인 조치가 북쪽의 ‘삼림민(hoi-yin irgen)’들을 정복하고, 그 지방의 특산물인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을 복속을 청하는 조공품으로 바친 것을 칭기스 칸에게 가지고 온 상황이다.

㉔-1. [1208년] 겨울에는 툽타이 베키와 쿠실룩을 치기 위해 상서롭게 출정했다. … 그들은 메르키트의 군주 툽타이 베키와 [나이만의] 타양 칸의 아들 쿠실룩 칸을 급습하여 두 사람을 모두 격파하고, 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을 모두 약탈했다.<sup>30)</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몽골고원의 유목민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재산과 말 떼 등 가축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칭기스 칸 재위시기에 몽골과 고려의 직접적인 접촉은 1218(고려 高宗 5)년 12월, 거란의 유종(遺種)이 몽골과 동진국 군대에 쫓겨 고려 국경을 넘어오면서 시작되었다.<sup>31)</sup>

이에 다음 해[1219년] 1월에 고려의 조충과 김취려 등이 몽골과 동진국 군사와 더불어 강동성에 있던 거란 군사들을 항복시켰다. 뒤이어 몽골 장수 카친[哈眞]이 포리대완(蒲里岱完) 등 10명을 사신으로 보내 고려 측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기를 청하였다.<sup>32)</sup> 이 때 고려 측에서 돌아가는 몽골 사신들에게 수달피와 함께 명주와 베, 수달피를 선물로 주었다.<sup>33)</sup>

㉔-1. 이후 고려 측에서는 몽골 사신이 돌아갈 때 선물로 금은 그릇[金銀器], 명주[비단]와 비단[紬布],<sup>34)</sup> 수달피(水獺皮)를 차등 있게 주었다.<sup>35)</sup>

그리고, 칭기스 칸이 중앙아시아 원정 중에 초청한 장춘진인(長春真人)의 여정을 기록한 여행기인 『서유기(西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㉔-2. [辛巳年(1221) 음력 5월 下旬(27일) 夏至] … 또한 그들은 모두 검은 수레와 흰 장막을 집으로 삼아 살며, 가축을 방목하고 사냥을 하는 것이 그 풍속이다. 옷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모피로 만들어 입고, 짐승의 고기와 젖을 음식으로 먹는다. 남자들은 머리를 땅아서 양쪽 귀 뒤로 늘어뜨린다. 부인들은 자작나무 껍질로 된 모자를 머리에 쓰는데, 어떤 것은 높이가 2尺이 넘는다. 대부분은 검은 모직물로 둘러싸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붉은색 비단을 쓰기도 하며 모자 끝이 거위나 오리같이 생겨서 고고(故故)라고 부른다. …<sup>36)</sup>

30) 『집사』 2, 「칭기스 칸 기」, p. 254.

31) 『高麗史』 卷22, 高宗 5年 12月 己亥朔,

32) 『高麗史』 高宗 6年 1月 庚寅; 『元史』 卷208 列傳95; 『元高麗紀事』 1219(太祖 14)年條

33)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2017, 14~15쪽.

34) 비단은 견직물 중에서 광택이 나게 짠 것을, 명주는 무늬 없이 성글게 평직으로 짠 직물을 말한다.

35) 『高麗史』 高宗 6年 1月 辛卯;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6年 1月

이 기록은 몽골고원 서부를 지나며, 그 지역의 주거, 음식 생활과 두발 양식 등에 대해 서술한 내용이다. 특히 ‘옷은 무두질한 가죽이나 모피로 만들어 입고’ 검은 모직 물이나 붉은색 비단으로 둘러싼, 부유한 부인들의 모자인 ‘고고관(故故冠 boytay)’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눈에 띈다.

한편, 유목사회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중요성에 대해서<sup>37)</sup> 블라디미르초프는 루브룩과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㉞-3. “(부녀자의 직책은) 황차를 관리하고 황차 위에 **장막**을 장치하고 우유를 짜며 버터[소유(酥油)]와 치즈[건락(乾酪)=格魯特 xurud~gurud]를 만들고, **모피**를 조제(調製)하며 아울러 [그것들을] **근사(筋絲)로 봉제(縫製)**하는 일이다. 그녀들도 **양초혜(涼草鞋)**[신발], **단화(短靴)**[양말] 그리고 그 밖의 **의류**를 짓고 ... [이 밖에도] **펠트(毛氈)**를 급히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서 집[천막]을 덮는다.” [루브룩] 이처럼 경제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몽골의 부녀자는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sup>38)</sup>

㉞-4. 고대 몽골의 부녀자는 유목민 가운데서 늘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집안에 가두어 외계와 격리시켜 둘 수 없다. 우리는 “당신들은 **부녀자**가 남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체의 **매매(장사)**를 하고 아울러 **가정 경제를 경영 관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마르코 폴로의 말을 다시 한 번 되뇌 수 있다.<sup>39)</sup>

이어서 『서유기(西遊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보인다.

㉞-5. [癸未年(1223) 음력 4월] 서북쪽 천여 리에 있는 검검주(儉儉州=謙謙州)에서는 좋은 철이 산출되고, **청서(靑鼠)**가 많으며 또한 기장과 보리도 수확한다.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으며,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고 있다. ...<sup>40)</sup>

이 기록은 오늘날 투바공화국에 속하는 검검주(儉儉州~검검주謙謙州, 캄캄치우트) 지역의 산출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좋은 철과 청설모[靑鼠]가 나며, 기장과 보리도

36)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268~269쪽. 從此以西, 漸有山阜, 人烟頗衆, 亦皆以黑車白帳爲家. 其俗牧且獵, 衣以韋毳, 食以肉酪, 男子結髮垂兩耳, 婦人冠以樺皮, 高二尺許, 往往以卓褐籠之. 富者以紅綃, 其末如鵝鴨, 名曰故故. 大忌人觸, 出入盧帳須低徊.

37) May T., “Commercial queens: Mongolian Khatuns and the Silk roa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26-1/2, 2016, pp. 89~106; de Nicola, B., “Women and the Economy of the Mongol Empire”,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2017, pp.130~181.

38)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 89~90쪽[Malenin A. I.(tr.), *Puteshestvie v' vostochnyia strany*, S.-Pb, 1911, p. 78];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 기행』, 2015, 194쪽[제7장 여자들의 임무와 작업]. 러시아 번역본은 ‘제9장 여자들의 임무와 작업과 결혼’으로 번역하였다.

39) 같은 책, 89쪽[Minaev I. P.(tr.), *Puteshestvie Marco Polo*, S.-Pb., 1902, p. 87; Yule & Cordier, *The Book of Ser Marco Polo • I*, London, John Murray, 1903, p. 252]. 참고로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여러분에게 말하건대 아내들은 물건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남편과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193쪽. Minaev I. P.의 러시아 번역본은

<http://elib.shpl.ru/ru/nodes/8920-minaev-i-p-puteshestvie-marko-polo-per-starofr-teksta-spb-1902-zapiski-imp-rus-geogr-o-va-po-otd-niyu-etnografii-t-xxvi> 참조.

40)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366~367쪽. ‘西北千餘里儉儉州, 出良鐵多靑鼠, 亦收床麥, 漢匠千百人居之織綾羅錦綺.’

수확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농경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 장인[漢匠]들이 많이 거주하며 각종 비단을 직조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전쟁 포로로 잡혀 끌려온 농민들과 기술자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료 ㉞~㉠에서 대몽골국 성립 이후 몽골고원에서 유통된 물품을 살펴보면, 먼저 『집사』 「부족지」의 매 사냥, 흰 송골매, 『비사』 239절의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집사』 「칭기스 칸 기」의 1208년 겨울 메르키트의 재산과 말 떼와 가축 약탈 등 기사에 보이는 매, 흰 송골매, 흰 거세마, 검은담비 등이 있다.

장춘진인(長春眞人)의 『서유기(西遊記)』에는 검은 수레와 흰 장막, 가축과 사냥, 무두질한 가죽옷, 모피, 짐승의 고기와 젓, 검은 모직물이나 붉은색 비단으로 짠 자작나무 껍질로 된 부인들의 모자[고고(故故)], 제호(醞醐 버터)와 동락(漣酪 응유), 방한 도구 등과 식량, 기장쌀, 보리(밭), 추수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대부분 초원과 삼림 지대에서 생산되는 것들이다. 그렇지만 고고관(boytay)을 감싸는 붉은색 비단은 외부에서 유입되었을 것이다. 특히, 캬캬치우트(儉儉州)에서 나는 좋은 철과 청서(靑鼠), 기장과 보리가 언급되었으며, 많은 한인(漢人) 장인(匠人)들이 각종 비단들을 직조하는 것으로 보아, 전쟁으로 포로가 된 자들로 보인다.

대몽골국 초기에도 여전히 모피나 모직물이 주로 언급되지만, 여성의 ‘고고관’을 싸는 붉은색 비단과 검검주(儉儉州)에서 한인(漢人)들이 직조하는 각종 비단이 언급되고 있어 몽골초원과 인근 지역에서 견직물의 생산과 유통이 적게나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몽골국과 고려의 초기 관계에서 몽골 사신에게 준 선물 중에 수달피와 함께 명주와 베가 언급되고 있어 대몽골국에 필요한 견직물은 주로 정주지역에서 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구르와 금나라, 탕구트[西夏]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교류 물품 중에서 직물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기록은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건설하고 공신들에게 상훈을 내릴 때인, 1209년경에 중앙아시아 동부의 위구르의 군주 이도오드(이드쿠드 亦都護)가 복속을 청하면서 조공품으로 언급된 다양한 물품의 종류이다.

㉞-1. (오이고드[위구르]의 이도오드가) “그대의 다섯째 아들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어 왔다. 그 말에 칭기스 카한이 허락하여 답을 보내기를, “딸도 주마! 다섯째 아들이 되도록 하라! 금, 은, 진주, 자개, 금단(金緞 načid),<sup>41)</sup> 혼금단(渾金緞 dardas), 비단(toryad)을 갖고 이도오드가 오도록 하라!”고 하여 보내자, 이도오드가 “허락받았다”고 기뻐하며 금, 은, 진주, 자개, 비단, 금단, 혼금단, 피룩(a yurasun)을 갖고 와서 칭기스 카한을 알현했다. …’ [『몽골비사』 238절]

특히 위구르가 바친 물품으로는 금(altan), 은(mönggü), 진주(subud), 자개(tanas), 금단(金緞 načid), 혼금단(渾金緞 dardas), 비단(toryad), 피룩(a yurasun)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크로드 상에 있던 오아시스 정주국가인 위구르 왕국의 재화를 엿볼 수

41) nasic~nasɿ(納石失~納失失), 金絲錦織物을 말한다.

있다. 이 기록은 『집사』 「칭기스 칸 기」에도 동일하게 보인다.<sup>42)</sup>

이어서, 다음은 위구르 군주가 칭기스 칸을 알현하면서 청원한 기록이다.

㉔-2. (칭기스 칸의) 어전에 위구르인들의 군주가 와서 배알하고, “... 멀리서 듣고 가까이 온 것을 (치하하여) 붉은 색의 외투와 황금 현대 고리를 제가 갖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청원했다.<sup>43)</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에서 위구르 군주가 1209년에 사신을 보내 복속을 청한 후, 1211년 봄에는 직접 몽골고원으로 가서 칭기스 칸에게 아들이 되겠다고 청원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어서 금나라가 몽골에게 복속을 청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물품들을 살펴보겠다.

㉔-1. “(알탄) 칸(금나라 황제 宣宗)이 허락하신다면, 몽골의 칸에게 지금은 귀순하여 화의합시다! ... 그들의 칸에게 딸을 줍시다! 금, 은, **피륙(ayurasud)**, **재화(ed)**를 군인들에게 무겁게 내어줍시다! ...” 하고 제안하였다. 『몽골비사』 §248]

㉔-2. 알탄 칸이 옹강 승상(完顏承暉)의 이 말을 옳게 여겨, “그렇게 되도록 하라!”며 귀순하여 칭기스 카안에게 공주 이름의 딸(岐國公主)을 바치고, 금, 은, **피륙(ayurasud)**, **물화(ed tabar)**를 군인들의 힘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중도(中都)에서 내어 옹강 승상을 칭기스 카한에게 보내왔다. ... **피륙**, **물화**를 우리의 군인들이 실을 수 있는 데까지 싣고, 짐을 **깁(kib)**으로 묶고 행군했다. 『몽골비사』 §248]

이 기록은 1208~09년(1214~15년의 원정과 혼동되어 서술됨)의 일을 서술하면서, 칭기스 칸이 금나라를 공격하자 금나라가 화의를 청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나라 측에서 황제의 딸[岐國公主]과 함께 대량의 금, 은, 피륙, 재화를 보냈는데, 심지어 ‘비단 깎’을 재화를 묶는데 사용할 정도로 질과 양이 엄청났다는 의미이다.<sup>44)</sup>

이어서 다음 기록에서는 칭기스 칸이 탕구트를 원정했을 때 탕구트의 국왕이 항복을 청하면서 바친 조공품 중에도 모직물과 견직물 등 직물이 언급되고 있다.

㉔-1. 그 출정한 김에 카신(河西) 사람들(=탕구트)에게 갔다. 향하여 가니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국왕)이 귀부하여, “그대의 오른팔이 되어 힘을 바치겠습니다.”하고 아뢰면서 차카 이름의 딸을 칭기스 카안에게 내주었다. ... “칭기스 카안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탕오드 사람들은 키 큰 데레순 풀(deresün)을 가리개로 하여 기른 많은 **낙타(temege)**를 내어 공물로 드리겠습니다. **털(örmege)**을 짜서 **피륙(ayurasun)**을 만들어 바치겠습니다. 놓는 **매(oyorqu šibayun)**를 조련하고, 수집하여 그 중에 좋은 것으로 골라 보내며 살겠습니다!”하고 아뢰었다. 아뢰고 나서 약속을 지켜 탕오드 사람들로부터 **낙타**를 징발하여 이루 다 물고 갈 수 없도록 가져다주었다. 『몽골비사』 §249]

42) 『집사』 2, 「칭기스 칸 기」, 253~257쪽.

43) 『집사』 2, 「칭기스 칸 기」, 272쪽.

44) 『元史』 「本紀」 第一, 太祖 九年 甲戌條, 17쪽.

여기서는 1209년, 칭기스 칸의 제1차 탕구트(西夏) 원정에 대한 서술과정에서, 탕구트의 보르칸(국왕)이 자신의 딸 차카를 바치고 많은 낙타, 털을 짠 피륙, 훈련시킨 매 등을 공납품으로 바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서술을 통해 탕구트 지방에 낙타와 피륙, 매 등이 많이 산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㉞-2. 칭기스 카한은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알탄 카안(금 황제)을 귀부시켜 **많은 피륙(olon a yurasun)**을 취하고, 카신 사람들의 보르칸을 귀부시켜 **많은 낙타(olon temeged)**를 취하였고, 칭기스 카한은 양의 해(1211년)의 그 출정에서 키타드 사람들의 아코타이라는 이름의 알탄 칸을 귀부시키고 탕오드 사람들의 일로코 보르칸을 귀부시키고, 돌아와 사아리 초원에 설영했다. 『몽골비사』 §250]

㉞-3. 알탄 칸은 중도에서 나올 때 중도 안에 카다를 료쇼(留守)로 삼아 맡기고 갔다. 칭기스 카한이 중도의 금, 은, **재화(ed)**와 **피륙(ayurasun)**을 점검시키려 응구르 집사장, 아르카이 카사르, 시기 코토코를 보냈다. 이들 셋이 온다고 카다가 **금을 섞어 짠(altatai)**, **무늬를 넣은(hartai)** **피륙(ayurasu)**을 갖고 중도에서 나와 마중했다. 『몽골비사』 §252]

㉞-4. 그때 칭기스 칸은 쿤주(Qūnjū, 桓州)라는 곳에 있었는데, 타타르 종족 출신의 (시기)쿠투쿠 노안과 응구르 바우르치와 하르카이 카사르 등 세 사람을 보내서 중도 시 안에 있던 **알탄 칸의 재고와 재물**을 갖고 오도록 했다. 알탄 칸이 그 도시에서 떠날 때 카일류와 쿠이라는 두 아미르를 신뢰하는 대리인으로 **재산과 재고와 물자**를 관리하도록 남겨 두었다. ... 이 두 사람과 다른 아미르들은 **금실로 짠 의복과 보물들**을 갖고 상술한 아미르들을 배알했다. ... 45) 『집사』 「칭기스 칸 기」]

이 기록들은 1215년 경, 칭기스 칸이 중도(中都)를 공격하자 알탄 칸[금 황제]이 도망가면서 카다에게 유수(留守)직을 주어 맡겼는데, 칭기스 칸이 부하들을 시켜 중도의 재화를 점검시키려 보낸 상황이다. 당시 금나라 수도인 중도에는 금, 은, 재화, 피륙이 많이 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㉞-5. ... 몽골 종족들은 도시들에서는 멀리 떨어진 초원민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은 그들에게 특히 귀했고, 그들과의 교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한 소문은 매우 널리 퍼졌다. 그런 까닭에 부하라에서 세 명의 상인이 **金絲 織物, 잔다니치**,<sup>46)</sup> **면포** 등을 비롯해 그 밖에도 그 종족들에게 필요하고 알맞다고 보이는 **각종 물품들**을 갖고 그 지방으로 향했다. ... “우리는 이 직물들을 군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그들의 말에 기분이 좋아져 “**금실로 짠 옷들은 모두 금 1발리시를 주고, 잔다니치(와) 면포 두 벌에 은 1발리시를 주라**”고<sup>47)</sup> 했다. ... ‘48) 『집사』 「칭기스

45) 『집사·2』 「칭기스 칸 기」, 288-289쪽.

46) ‘잔다니치(zandanīchī)’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인 부하라의 잔다나(Zandana)라는 마을에서 생산된 직물을 말한다. Dode Z., ““Zandanīr Silks”: The Story of a Myth”, *The Silk Road* 14, 2016, pp. 213-222; de Nicola B.,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2017. 몽골 시대 이슬람 지역에서 생산된 직물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된 전반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1997을 참고하시오.

47) ‘발리시(銀錠, mon. *sūke*[도끼])’에 대해서는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2010,

칸 기]

이 기록을 보면, 칭기스 칸이 실크로드를 통한 오아시스 도시와의 통상교역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sup>49)</sup> 즉, 몽골고원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들을 무슬림 상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몽골유목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㉞-6. 해가 지는 곳에서 뜨는 곳에 이르기까지 적의 백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투부드(티베트) 개들을 부추겨 보내시면, 저희들에게 천지가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가 적의 백성을, 금, 은, **피룩(ayurasun)**, **물화( tabar)**, 백성과 속민을 그대에게 가져오겠습니다.’ [『몽골비사』 §260]

이 기록은, 1218년부터 시작된 칭기스 칸의 중앙아시아 사르타울(호레즘 왕국) 원정 과정 중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몽골군의 목적이 재화와 사람을 약탈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고려와의 관계에 대한 사료들을 보도록 하자.<sup>51)</sup>

㉞-1. 고종 8(1221)년에 다시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와서<sup>52)</sup> 고려왕이 대관전(大觀殿)에서 조서를 맞이하였는데, 그들은 몽골 황태제(皇太弟)의 군지(鈞旨)를 전하고, **수달피**[獺皮] 10,000장, **가는 명주**[細紬] 3,000필, **가는 모시**[細苧] 2,000필, **솜**[綿子] 10,000근, 용단먹(龍團墨) 1,000정, 붓 200자루, 종이 10만장, 자초(紫草) 5근, 홍화(紅花), 남순(藍筍), 주홍(朱紅) 각 50근, 자황(雌黃), 광칠(光漆), 동유(桐油) 각 10근을 요구하였다. 저고여(著古與) 등이 군지를 전달한 다음 대관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자 품속에 있던 물건을 꺼내어 왕 앞에 던져버렸는데, 모두 작년에 주었던 **거친 명주**[麤紬布]였다. 그리고는 결국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한 원수(元帥) 잘라(札刺)와 포흑대(蒲黑帶)의 서한을 한 통씩 꺼내놓았는데 모두 **수달피**, **가는 명주**, **솜** 등의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었다.<sup>53)</sup>

㉞-2. 고종 11(1224)년 1월과<sup>54)</sup> 같은 해 11월에도 몽골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 10명이 다시 사신으로 와 함신진(咸新鎭)에 이르렀다가<sup>55)</sup> 다음 해(1225년) 1월에 몽골 사신이 서경(西京)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면서 다만 나라의 예물[國贖]인 **수달 가죽**[獺皮]만 가지고 가고 그 나머지 **비단**[紬布] 등의 물품은 모두 들에 버리고 갔는데, 도중에 (저고여가) 도적에게 살해당하게 되자 몽골에서 도리어 고려를 의심하

174쪽을 보시오.

48) 『집사·2』 「칭기스 칸 기」, 308~310쪽; 티모시 메이, 앞의 책, 165~167쪽.

49)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1997;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研究』, 2016, 139~161쪽.

50) Thomas T. Allsen, 앞의 논문, 1989, pp. 83~94.

51) 고려와 원과의 관계의 변화와 복식문화의 변화상 전반에 대해서는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2017; 이호정, 「몽골-중국의 단수의(短袖衣)형 의복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몽중월 프로젝트·한국문화학회 2023년 연합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중흥으로 보는 동아시아 문명 교류』, 한국외국어대학교(2023.10.28.), 25~38쪽; 이호정·김은정, 「사료를 통해 본 고려와 몽골의 식물 교류」, 유라시아·몽골센터 제3회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 자료집 『몽골학의 종합적 검토 및 학문 후속세대의 새로운 연구 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2023.11.09.), 9~21쪽 등을 참고하십시오.

52) 『高麗史』 高宗 8年 8月 己未; 『元高麗紀事』 太祖 16年; 『元史』 「外夷傳」

53) 『高麗史』 高宗 8年 8月 甲子;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8年 8월

54) 『高麗史』 高宗 11年 1月 丙午; 高宗 11年 一月 癸丑;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1年 1月

55) 『高麗史』 高宗 11年 11月 乙亥;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1年 11月; 『元高麗紀事』 太祖 19年

여 마침내 국교가 끊어지게 되었다.<sup>56)</sup>

몽골과 고려의 초기 교류에서, 몽골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물품을 '공물'로 요구하여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비단 등 견직물과 솜 등 면직물, 심지어 수달피 등 모직물 [모피]도 들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㉞-1. 힌두스의 중부에 이르도록 추격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회군하면서 힌두스의 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낙타(temeged), 수많은 거세 염소들(serkes)을 가져왔다. [『몽골비사』 §264]

기록이 있는데, 이는 호레즘 왕의 아들 잘랄 앓 딘이 인더스 강을 넘어 도망치자, 몽골군이 회군하면서 그 지방 백성들을 약탈하고 낙타와 거세 염소들을 빼앗아 오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㉞-2. 아샤 감보가 나서며, “모욕하는 말들은 내가 했다. 이제라도 너희들 몽골이 싸움을 배웠으니, 싸우고자 한다면 나는 알라샤이(賀蘭山)에서 목영하며, 모직 장막(terme ger)이 있고, 낙타 짐(temege-iyen ačiya)을 갖고 있다. 알라샤이를 향해 내게 오라! 거기서 싸우자! 금, 은, 피륙(ayurasun), 재화(tabar)가 필요하면 에리 카야(寧夏), 에리 제우(西凉)를 목표로 해라!”하고 말을 전해 보냈다. [『몽골비사』 §265]

위 기록은 칭기스 칸이 호레즘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돌아오자마자, 중앙아시아 원정에 군대를 내지 않은 탕구트를 1226~27년에 응징하러 갔다가 병에 걸린 상황에서, 아샤 감보가 항복하지 않고 싸움을 청하는 장면이다. 당시 탕구트가 많이 갖고 있던 재화의 품목들이 열거되어 있다.

㉞-3. 칭기스 칸은 유언을 모두 마치고 아들들을 보낸 뒤 낭기야스 방면으로 향했는데, 그 도시의 군주들이 차례로 찾아와 복속했다. 주르체와 낭기야스와 탕구트 지방들의 경계 중간에 있는 류판산(六盤山)에 도착했을 때, 주르체의 군주가 “칭기스 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에게 선물을 들려 파견해서- 그 가운데에는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도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우리는 복속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칭기스 칸은 “귀에 구멍을 뚫은 사람에게는 모두 진주를 주라”고 명령했다.<sup>57)</sup> [『집사』 「칭기스 칸 기」]

위 기록은 칭기스 칸이 다시 원정길에 올라 금나라 근처에 오자, 금나라 황제가 칭기스에게 ‘호화스런 큰 진주들이 담긴 접시’를 보내 복속을 청해왔고, 칭기스는 이 진주를 부하들과 군사들에게 모두 사여해 준 내용이다. 이 기록을 통해 칭기스 칸은 전리품이나 공납품을 자신보다도 부하들에게 사여해 줌으로써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㉞-4.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 산 위에서 여름을 나고, 아샤 감보와 산에 올라 저항하던 모직 장막

56) 『高麗史』 高宗 12年 1月 癸未; 『高麗史節要』 卷15, 高宗 12年 1月

57) 『집사』 2, 「칭기스 칸 기」, 385쪽.

(terme ger)을 가진, **낙타 짐(temege-iyen ačiya)**을 가진 탕오드들을 군대를 보내 의도한 바대로 절멸할 때까지 약탈했다. 거기서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힘이 자라는 데까지 갖도록 하라!”고 상을 내렸다. [『몽골비사』 266절]

이 기록은 결국 칭기스 칸이 1227년에 저항하는 탕구트의 아샤 감보를 섬멸하고 재화를 약탈하고, 부하 장수인 보오르초와 모칼리에게 전리품을 취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다.

㉔-5. 칭기스 카한이 차소토에서 이동하여 오라카이 성에서 묵고, 오라카이 성에서 이동하여 두르메게이 성(靈州城)을 깨뜨리고 있을 때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을 알현하러 왔다. 보르칸은 황금 불상을 비롯한 금은 기명을 아홉 가지로 아홉 벌씩, 동남동녀 각 아홉 명, **거세마(aytas)**와 **낙타(temeged)** 각 아홉 마리 등 온갖 것을 아홉 가지씩 아홉 색으로 갖추어 알현하였다. 보르칸을 문을 닫은 채 알현케 했다. [『몽골비사』 §267]

이 기록은 탕구트의 군주였던 보르칸이, 1227년 칭기스 칸에게 항복을 청하는 과정에 그가 가져온 공납품이 열거되어 있다.

이상 사료 ㉔~㉔에서, 위구르가 칭기스 칸에게 복속을 청할 때 바친 직물류는 『비사』 238절에는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비단**, **피륙**이 나오며,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이득 쿠트(亦都護)가 상으로 하사해달라고 청한 **붉은 색 외투** 등이 보인다. 이 물품들을 보면, 실크로드 상의 정주국가인 위구르왕국의 재화가 아주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

금나라 역시 몽골에 항복을 청하며 다양한 것을 바쳤는데, 『비사』 248절에는 **피륙**, **물화** 등이, 252절에는 **피륙**,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등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금실로 짠 의복**, **보물들이** 보인다.

탕구트[西夏]가 몽골에 복속을 거부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물품들이 언급되는데, 『비사』 249절에는 탕구트가 보낸 **많은 낙타**, **피륙**이, 265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피륙**, 266절에는 **모직 장막**, **낙타 짐**, 267절에는 탕구트 국왕 보르칸이 칭기스 카한에게 **거세마**, **낙타** 등을 바치며 알현했다고 기록하였다.

호레즘과 몽골 사이에 이루어진 교역과 전쟁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수많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사』 「칭기스 칸 기」에는 몽골 초원민에게는 귀한 **여러 종류의 직물과 의복과 카펫** 등이, 칭기스 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려고 부하라 상인이 가져온 **金絲 織物**, **잔다니치**, **면포**, **각종 물품들**, **금실로 짠 옷과 진귀품들**, 그리고 『비사』 260절에 **피륙**, **물화** 등이 보인다. 그리고 264절에는 힌두스의 수많은 **낙타**, 수많은 **거세 염소들**을 약탈해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몽골국 성립 이후에는 카라코룸을 중심으로 하여<sup>58)</sup> 몽

58) 이개석, 「元代の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1996;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2019; di Cosmo N., “Why Qara Qorum? Climate

골고원으로 아주 다양한 물품과 재화들이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9)</sup> 직물류 또한 값비싸고 화려한 금단(金緞), 혼금단(渾金緞), 金絲 織物, 잔다니치, 비단, 금실로 짠 의복, 금을 섞어 짠 피륙, 무늬를 넣은 피륙, 붉은색 외투, 모직 장막, 면포 등이 몽골고원으로 유입되었다.

한편 대몽골국 성립 이전 사료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가축과 동물[모피]들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겨우 탕구트와 힌두스에서 약탈한 낙타와 거세마, 거세 염소, 매 정도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칭기스 칸이 대몽골국을 성립하고자 했던 요인 중 하나로, 주변 세력과의 안정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고원의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발전을 추구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동시대 사료에 보이는 다양한 직물류의 유통 양상과 그 변화를 통해 몽골초원의 유목세계와 외부 정주세계와의 교류상을 살펴보았다.

칭기스 칸은 이런 몽골고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교환을 통해 유목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유목민의 통합이 최우선임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칭기스 칸은 몽골고원의 유목민들을 통합하여 대몽골국을 세우고 주변 정주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무역 상인들이 몽골제국의 통치 하에 안전을 보장받고 적극적으로 몽골고원으로 몰려들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노력하였다. 뒤를 이은 우구데이 카안 시기에는 다양한 이방인들이 새로 정비한 '역참(驛站, jamči)'망을 통해 새로운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으로 몰려들었다.<sup>60)</sup>

---

and Geography in the Early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1(2014-2015), 2015, pp. 67~78.

59) 몽골고원과 주변 정주지역 사이에 물품이 유통된 대몽골국 시기 역참로에 대해서는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잠치(jamči)」, 『몽골학』 25, 2008, 236~245쪽; 심호성,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交通로의 변천」, 『동양사학연구』 118, 2012, 90~97쪽을 참조하시오.

60) 칭기스 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와 몽케 카안 시기의 동유라시아 물품의 유통에 대해서는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ト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70, 1989; 김장구,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2022, 101~139쪽을 참조하시오. 쿠빌라이 카안 이후 대몽골국[元]과 고려의 교역에 대한 연구는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이 대표적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漢書』 『元史』

저자미상, 『몽골비사(元朝秘史)』(유원수 역주), 파주, 사계절, 2004.

李志常, 『長春真人西遊記』(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趙珙, 『蒙鞬備錄』(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彭大雅·徐霆, 『黑鞬事略』(王國維, 『蒙古史料四種本』), 臺北, 正中書局, 1962.

張德輝, 「[嶺北]紀行」, 王惲, 『秋澗先生大全文集』 卷一百, 「玉堂嘉話」卷之八, 5b~9a.

(姚從吾 校注, 『姚從吾先生全集』 第七集, 臺北, 正中書局, 1982)

라시드 앓 단, 『집사·1』 「부족지」(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2.

-----, 『집사·2』 「칭기스 칸 기」(김호동 역주), 파주, 사계절, 2003.

플라노 드 카르피니·윌리엄 루브룩, 『몽골제국 기행』(김호동 역주), 까치, 2015.

### 2. 연구서

김윤정, 『고려·원 관계 추이와 복식문화의 변천』, 연세대학교 대학원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파주, 돌베개, 2010.

-----,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파주, 사계절, 2016.

라츠네프스키, 『칭기스 칸』(김호동 옮김), 지식산업사, 1992.

모건, 『몽골족의 역사』(권용철 옮김), 모노그래프, 2012.

블라디미르초프, 『몽골사회제도사』(주채혁 譯),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설배환, 『蒙·元제국 쿠릴타이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동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이강한, 『고려와 원제국의 교역의 역사』, 창비, 2013.

정재훈, 『흥노 유목제국사, 기원전 209~216』, 파주, 사계절, 2023.

-----,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파주, 사계절, 2016

-----, 『위구르 유목제국사, 744~840』, 문학과지성사, 2005.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권용철 옮김), 파주, 사계절, 2020.

Allsen, Th. T., *Commodity and Exchange in the Mongol Empire: A cultural history of Islamic textil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The Royal Hunt in Eurasian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6.

de Nicola B., *Women in Mongol Iran: The Khatuns, 1206-1335*,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7.

### 3. 논문

- 김인욱, 「기원전 4~서기 1세기의 고고학 자료로 본 흉노와 동아시아 -흉노학의 정립을 위한 토대구축을 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5, 중앙아시아학회, 2010.
- , 「북방 유라시아 초원지역과 한반도 교류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보』 100, 2018.
- 김경나, 「몽골제국의 카라코룸 유물로 본 초원길의 동서교역」, 『아시아리뷰』 8-2,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
- 김성수, 「몽골제국 시기 유라시아 광역 교통망 참치(jamči)」, 『몽골학』 25, 한국몽골학회, 2008.
- 김장구, 「대몽골국 성립 전후 유목경제의 실상과 유통물품의 변화」, 『중앙아시아연구』 26-2, 중앙아시아학회, 2021.
- , 「대몽골국 초기 몽골고원으로 유입된 외래물품의 변화상 -우구데이~몽케 카안 시기(1229~1259년)를 중심으로-」, 『몽골학』 68, 한국몽골학회, 2022.
- , 「대몽골국 초기 고려-몽골 간 물품 이동과 그 배경」, 『이화사학연구』 65, 이화사학연구소, 2022.
- 설배환, 「“인간은 친절의 노예다” -사우가(sauya) 문화와 몽골제국 사회 경제 정치 네트워크-」, 『중앙아시아연구』 26-2, 중앙아시아학회, 2021.
- 심호성, 「몽골帝國期 東部 중앙아시아 驛站 交通로의 변천」, 『동양사학연구』 118, 동양사학회, 2012.
- 이개석, 「몽고帝國 성립기 商業에 대한 一考」, 『慶北史學』 9, 경북사학회, 1986.
- , 「元대의 카라코룸, 그 興起와 盛衰」, 『몽골학』 4, 한국몽골학회, 1996.
- 추이하오(邱駝皓), 「자파르 화자」, 미할 비란 외 편저, 『몽골제국, 실크로드의 개척자들: 장군·상인·지식인』(이재황 옮김), 책과함께, 2021, 223~247쪽.
- 宇野伸浩, 「オゴデイ・ハントムスリム商人」, 『東洋學報』 70, 東京, 東洋文庫, 1989.
- 原山煌, 「モンゴル狩獵考」, 『東洋史研究』 31-1, 京都, 東洋史研究會, 1972
- Allsen, Thomas T., “Mongolian Princes and Their Merchant Partners, 1200-1260”, *Asia Major*, 3rd series 2-2, 1989.
- di Cosmo N., “Why Qara Qorum? Climate and Geography in the Early Mongol Empire”,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21(2014-2015), Wiesbaden, Otto Harrassowitz Verlag, 2015.
- Dode Z., ““Zandanīr Silks”: The Story of a Myth”, *The Silk Road* 14, 2016.
- May T., “Commercial queens: Mongolian Khatuns and the Silk road”,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26-1/2, 2016.
- Münküjev N. Ts., A Mongolian Hunting Practice of the 13th Century and the Buryat Terms Zeegete aba and Aba Khaidag, *Tractata Altaica*(Heissig W. et. al. eds.), Wiesbaden, Harrassowitz, 1976.
- Yihao Qiu, “Gift-Exchange in Diplomatic Practices during the Early Mongol Period”, *Eurasian Studies* 17, Leiden, Brill, 2019.



【제2발표】

## 라마의 선물: 티베트 식물 특(phrug, 穉穉) 연구

최소영(동국대)

---

序論

I. 拂廬 그리고 穉穉

II. 라마의 선물

- 달라이 라마와 뽌첸 라마
- 특의 생산과 수급

結論



# 라마의 선물: 티베트 식물 특(phrug, 穉穉) 연구

최소영 (동국대학교)

序論
Ⅰ. 拂廬 그리고 穉穉
Ⅱ. 라마의 선물
1. 달라이 라마와 卞첸 라마
2. 특의 생산과 수급
Ⅲ. 특, 조선에 가다
結論

## 序論

13세기 중반 몽골제국이 유라시아를 장악해 가고 있을 때, 당시 대칸 몽케의 동생이었던 쿠빌라이는 티베트의 젊은 승려 팍빠를 자신의 막영으로 초청하여 만났다. 그런데 쿠빌라이가 티베트에 군역과 差稅 요역 그리고 貢物을 거두러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자 팍빠는 “티베트는 변방의 소국입니다(bod mtha' 'khob yul chung). 땅은 큰데 재화는 없으니(sa rgya dang 'byor pa med pas) 군대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청했다.<sup>1)</sup> 중앙티베트는 1240년 이후 몽골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으나 몽골 수도로 공물이나 세금을 보냈는지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티베트 승려와 사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시를 보낸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sup>2)</sup> 몽골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한 明은 군사적·정치적으로 몽골처럼 티베트를 장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여러 교파가 병립하던 티베트에 사신을 보내 각 교파의 座主를 초청하고 다양한 王 칭호와 茶를 비롯한 풍부한 물품을 주었다. 또한 明을 이은 淸은 入關 이전부터 몽골과의 관계를 통하여 티베트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달라이 라마, 卞첸 라마를 수도로 초청하였다.<sup>3)</sup> 전근대 시

1)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 : distributor,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975, p.176 쿠빌라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팍빠는 그렇다면 이 티베트 승려가 여기에 머물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고 쿠빌라이도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쿠빌라이의 妃 차부이(察必)가 팍빠를 돌려보내지 말 것을 쿠빌라이에게 강하게 청했고 이에 따라 쿠빌라이와 팍빠는 설법을 하고 듣는 것을 계속했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vol.155, 2021, p.143 참고.

2) 구체적인 내용은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참고.

기 여러 정치체들은, 그들이 이른바 조공-책봉 관계에 있든 아니든, 광범위한 정치·외교 질서 안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 물론 중국 지역의 “황제”는 그 덕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받은 것보다 더 후한 선물을 주었고<sup>4)</sup> 종교적으로 특수한 위치에 있던 티베트 승려들은 여타 집단보다 더 많은 사여를 받아 돌아갔다. 그렇다면 티베트 승려들은 중원의 군주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보냈을까. 元代와 清代에는 이들의 중국 지역 방문이 설법이나 기도 등 종교적인 성격이 컸으므로 불상 등 불교 관련 용품을 가지고 갔을 것은 예상 가능하나 티베트는 그 외에는 줄 것이 없었을까.

변방의 소국이며 재화도 없는 땅이라고 하는 팍빠의 말처럼 티베트는 해발고도가 높고 기후가 매우 건조하여 보리 등을 제외하면 변변한 농산물도 없고 당연히 비단이나 면 등 정교한 직물을 만들 환경을 가지지도 못했다. 중국 역사서에 티베트가 처음 등장하는 唐代의 역사서도 “그 땅의 기후는 매우 추워서, 메벼가 자라지 못하고, 청과 맥, 노두, 소맥, 교맥이 있다. 기르는 짐승 중에는 야크, 돼지, 개, 양, 말이 비교적 많다.”고 적고 있다.<sup>5)</sup> 토번 멸망 후 티베트가 기층 유목민부터 최상층까지 모두 불교를 깊이 받아들이면서 토번제국 시기의 세속 기록은 폐기되거나 불교적으로 윤색되었기 때문에 티베트가 당에 무엇을 주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또한 토번 멸망 이후의 이른바 분열기를 지나 13세기 티베트는 군사적으로 몽골 세력 하에 들어갔으나 몽골 지배층이 티베트 불교를 깊이 숭상하게 되면서 양 세력은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몽골인들은 저명한 티베트 승려를 빈번히 수도로 초청했고 많은 보시를 주어 돌려보냈는데, 이 시기 역시 승려의 전기의 소수 기록 외에는 세속적인 일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티베트 승려들이 무엇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元 이후 티베트 僧俗 수령들이나 그 사신들이 빈손으로 중국 지역의 군주를 찾아갔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비교적 기록이 남아 있는 명대와 청대의 사료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의문을 시작으로 여러 사료의 기록들을 찾아 분석하여 티베트가 주변 집단에게 준 물품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 拂廬 그리고 穉穉

1240년, 당시 대칸이던 우구데이의 아들 쿠텐(Köten, 1208-1251)이 보낸 군대가 중앙티베트(dbus gtsang, 烏思藏)로 진입해 왔고 정찰전 정도의 규모이던 이때의 전투에서 약 500명의 티베트 승려가 살해되었다. 전투 후 관례대로 몽골은 자신들에게 공식적인 신속을 표할 상대측의 대표를 요구했다. 그런데 티베트는 토번제국(617-842) 이래 이른바 “분열기”가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중앙집권 세력이 없었다. 이에 티베트의 僧俗은 논의를 거쳐 사까(sa skya) 지역의 교파인 사까派(sa skya pa)의 座主 사

3) 청은 1720년대에는 중앙티베트를 사실상 세력 하에 넣기까지 했다.

4) 이선애,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淸 初期 滿·蒙 관계와 禮物」, 『동국사학』, vol.75, 2022. p.219.

5) “其地氣候大寒, 不生秔稻, 有青麥、豆、小麥、蕎麥。畜多犛牛、猪、犬、羊、馬(『舊唐書』 卷196上 「吐蕃列傳」 第146, 김성수 역주, 『중국정사외국전 구당서』 吐蕃, 동북아역사재단, 2011).”

까 빠디따(sa skya paNDi ta kun dga' rgyal mtshan, 1182-1251)가 대표자로 몽골로 갈 것을 결정했다. 사까에서부터 천천히 이동한 사까 빠디따는 쿠텐이 있는 涼州로 가서 그를 만났고, 곧 티베트의 승속 수령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에서 그는 몽골에게 확실한 복속을 보여주기 위해 공물을 바쳐야 함을 힘주어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바치는 공물로 금, 은, 상아(glang po che'i mche ba, 象牙), 큰 진주알(mu tig rdog po che ba), 주홍 염료(mtshal), 꼭두서니 염료(btsod), 목향(ru rta, 木香), 코끼리 담즙(gi wang), 호랑이(stag), 표범(gzig), 초표(gung, 草豹) 세 종류 [가축], 수달(sram) [가축], “티베트 남(bod snam)”, “위(dbus) 지역의 질 좋은 특(dbus phrug bzang po)” 등이라면 여기에서 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sup>6)</sup>

몽골제국 시기 티베트 사료 기록은 그 수가 매우 적고, 위 목록의 물품들을 티베트인들이 실제로 몽골 조정에 바쳤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상어나 진주 등은 티베트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때문인지 사까 빠디따는 서신 말미에 “대개 재화로 여기(몽골)에서는 중요하지 않아도 [티베트] 각지에서 어떠한 것이든 좋은 재화가 오는 것으로 족합니다.”라고 썼다. 그런데 위에 열거된 물품들 중 주목할 것은 남(snam)이나 특(phrug)이다. 이들은 모직물이며 그 앞에 지명을 분명히 밝혀 “티베트의 남 snam”과 “위(dbus)의 질 좋은 특(phrug)”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어서, 티베트의 생산물인 것이 분명히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몽골 측의 사료나 티베트 사료 모두 관련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으나 쿠텐 이후 티베트와 몽골 간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므로 금, 은, 상아 등과 달리 이들 물품은 선물의 방식으로든 “貢物”의 방식으로든 大都의 대칸과 황실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sup>7)</sup>

특은 양털이나 야크털로 짠 티베트의 전통적인 모직물이다. 티베트에서 보리 농사 등을 짓는 농경민들은 돌과 흙으로 된 건물에 거주했지만 유목민들은 건물을 거주지로 두면서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특으로 만든 큰 천막에 거주하며 이동했다. 주로 야크털로 짠기 때문에 색은 검은 색이었고, 둥글고 흰 半球 모양의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게르나 유르트와 달리 형태는 텐트 모양이었다. 특은 그 발음이 근대 까지도 “프루(ᠮᠠᠯᠢ)”이었고 따라서 대체로 명대 이전까지는 “프루”로 소리났던 것으로

6) 'dab nor la gser/ dngul/ glang po che'i mche ba/ mu tig rdog po che ba/ mtshal/ btsod/ ru rta/ gi wang/ stag/ gzig gung gsum/ sram/ bod snam/ dbus phrug bzang po/ 'di na de tsho dga' bar 'dug/ ('Jam mgon A myes zhabs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P. : distributor,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975, pp.160:6~162; 최소영, 보시, 티베트와 몽골을 잇다: 티베트 승려에 대한 몽골 황실의 보시 연구, 경인문화사, 2022, pp.41-47) 위(dbus)는 중앙티베트에서 라싸를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 원, 명대에는 烏思, 청대에는 발음이 위로 바뀌어 衛로 적혔다.

7) 사까 빠디따의 서신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저작이 高僧의 전기이므로 그의 생애를 기록하다 보니 기록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며 티베트 저작들은 세속의 일을 적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특히 달라이 라마 이전 시기는 더욱 그러하다.

보인다. 티베트의 모직물에는 새마(Tib. shad ma)나 테르마(Tib. ther ma) 등도 있었으나 특히 가장 광범위하게 쓰였고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舊唐書』는 티베트인들의 모직물 천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 백성 중 혹자는 목축을 하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성곽이 꽤 많다. 그 나라의 도성을 邏些城이라 부른다. 지붕은 모두 평평하며, 높은 것은 수십 척(尺)에 이른다. 귀인은 大 氊帳에 거처하는데 이를 “拂廬”라고 한다.<sup>8)</sup>

여기의 “拂廬”가 바로 “프루” 즉 “툽”이다. 『新唐書』는 “귀인은 大拂廬에 거주하고 백성들은 小拂廬에 거주한다.”고 적고 있어서, “拂廬”라고 불리던 직물이 이 시기 특히 천막의 소재로 빈번히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물품이 唐이나 주변 지역으로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sup>9)</sup>

元代에는 한문이나 티베트어 사료 모두 “貢物”이나 “선물” 관련 기록 자체가 많지 않다. 티베트는 불교 관련 기록이 대다수이기 때문이고, 元의 경우 우리에게 이른바 ‘蒙文 실록’이 전해지지 않고 明의 유학자들이 입수할 수 있었던 한문 기록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런데 주목할 것은 명대부터는 중앙티베트가 보낸 물품이 빈번히 기록되어 있는 점이다. 『明會典』은 중앙티베트(dbus gtsang, 烏思藏)가 명 황제에게 “조공품”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西番은 옛날 吐番이며 元代에 軍현이 되었다. 홍무 초 그들의 옛 직으로 말미암아 烏思藏 番僧들에게 闡教王, 闡化王, 輔教王, 贊善王 칭호를 내려 백성을 통합하였다. 또한 護教王, 大乘法王, 大寶法王이 있으니 7 왕이 있었고 모두에게 銀印을 수여하고 매년 혹은 격년으로 조공하게 하였다. ... 공품으로는 畫佛, 銅佛, 銅塔, 舍利,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各色 氊氈, 珊瑚, 犀角, 左髻, 毛纓, 酥油, 明盔, 明甲, 刀, 그리고 劍이 있었다.<sup>11)</sup>

앞에서 본대로 元代는 사까파가 몽골의 지원으로 정치와 종교 양 방면에서 티베트를 다스렸는데, 14세기 후반 이후 즉 중원에 명이 자리잡고 있던 시기의 티베트는 정치적으로 팍모두派(phag mo gru pa)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으나 종교적으로는 여러 교파가 힘을 겨루며 병립하고 있었다.<sup>12)</sup> 위 『大明會典』의 기록은 바로 명이 元代처럼

8) 김성수 역주, 『중국정사 외국전 구당서』, 吐蕃 동북아역사재단.

9) 티베트가 당에 보낸 선물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15세기 저작 『한지와 티베트의 문서들의 모음』은 송젠 감보가 大臣 가르똥젠을 당에 보내 공주를 청할 때 “은전 백냥과 보석으로 만든 의복 한 벌, 보석으로 된 그물을 덮은 코끼리, 금가루 반 켤(gser phye bre phyed) 등을 가지고 갔다”고 적고 있다(최소영, p.140) 그러나 이 기록은 사실상 군사력을 앞세운 토번의 혼인 요구를 불교적으로 윤색하여, 가르똥젠이 지해로 공주를 얻어왔다고 하며 그가 푼 수수께끼를 적어두는 등 사실적 기록이라고 볼 수 없기에 그가 이러한 물품을 실제로 가져갔는지도 신뢰하기 어렵다.

10) 관련 내용은 金浩東, 「元대의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的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vol.109, 2009, pp.141-189 참고.

11) “西番古吐番地、元時為郡縣。洪武初、因其舊職。於是烏思藏番僧、有闡教王、闡化王、輔教王、贊善王、統化番民。又有護教王、大乘法王、大寶法王、凡七王、俱賜銀印。令比歲或間歲朝貢。貢物 畫佛、銅佛、銅塔、舍利、各色足力麻、各色鐵力麻、各色氊氈、珊瑚、犀角、左髻、毛纓、酥油、明盔、明甲、刀、劍(『大明會典』卷108·朝貢四·西戎下·烏思藏)”

12) 달라이 라마의 교파인 겔룩派(dge lugs pa)는 14세기 초에 등장한 가장 신생 교파로, 17세기 중반

티베트를 장악하지는 못하였으나 각 교파의 좌주들에 대한 王 칭호 수여와 “조공” 관계를 통해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준다.<sup>13)</sup>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한 중앙티베트에서는 명 조정에 佛畫나 佛像, 탑, 사리를 비롯한 불교 관련 물품 외에 산호, 犀角, 버터, 투구와 갑옷, 검과 도 등을 “貢物로” 보내고 있다. 여기서 여러 색의 “足力麻”와 “鐵力麻”라는 것은 각각 앞에서 본 새마(shad ma)와 테르마(ther ma) 직물일 것이다. 테르마는 몽골-투르크어에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저자미상의 13세기 저작 『몽골비사』는 “테르메로 만든 장막(terme ger)”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한국어 번역은 이를 모직 장막으로 번역하고 있다.<sup>14)</sup> 그리고 여러 색의 “氍毹”는 바로 “프루” 즉 특(phrug)이다.<sup>15)</sup> 明의 宋應星은 『天工開物』 <氍毹> 항목에 “무릇 氍毹은 백색과 흑색이 본색이며 나머지는 모두 물들이 색이다. 氍毹나 氍毹 등의 명칭은 모두 華와 夷가 각각의 方語로 이름붙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sup>16)</sup> 氍毹라는 명칭은 명대에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듯하다. 한편 위의 기록은 팍모두파를 위시한 주요 교파들이 거주하였고 현대의 西藏自治區와 대체로 일치하는 중앙티베트에 대한 기록인데, 전통적으로 티베트는 그 외에도 청해와 감숙 일부인 암도(a mdo) 지역, 그리고 사천 서부와 운남 일부인 도캄(mdo khams, 朵甘)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大明會典』은 이들 암도와 도캄 지역이 명에 보낸 물품도 중앙티베트와 거의 유사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캄 지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洪武 7년, 朵甘衛를 승급하여 西安行都指揮使司로 하고 銀印을 주었다. 18년, 朵甘思宣慰使司와 萬戶府, 招討司, 東道萬戶府, 塔千戶所로 고치고 매년 한 번 進貢하게 하였다. ... 隆慶 3년, 3년에 한 번 進貢하게 하였다. ... 공물로는 여러 색 足力麻, 여러 색 鐵力麻 여러 색 氍毹, 左髻, 明盔, 長刀가 있었다.<sup>17)</sup>

까지 계속해서 기존 교파들과 같등하며 힘겹게 존속하였다. 이는 대체로 중국 역사의 명대와 일치한다. 달라이 라마가 몽골 호쇼드 부의 구시 칸의 도움을 얻어 티베트를 장악하는 것은 1642년의 일이다.

13) 최고 세력이던 팍모두파의 座主에게는 明은 闡化王 칭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외의 칭호들은 일관되게 일정한 교파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었다.

14) “모욕하는 말들은 내가 했다. 이제라도 너희들 몽골이 싸움을 싸우고자 한다면 나는 알라샤이(賀蘭山)에서 목영하며, 모직 장막(terme ger)이 있다.”저자미상,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 265, 266절. 그런데 足力麻의 경우 새마(shad ma)에 ‘r’이나 ‘l’음이 없어 같은 단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티베트에서 테르마와 새마가 나란히 언급되는 모직물이므로 새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테르마와 새마의 제작 과정과 직물의 특징에 대하여는 Namgyal L. Taklha, *Costumes and Jewellery of Tibet*, Tibet Museum (Dharmasāla, India), 2018, p.39.

15) 그 외에 左髻와 毛纓은 겔룩파 승려들이 머리에 쓰던 노란 벼슬같은 관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 明盔와 明甲은 수은으로 광을 낸 투구와 갑옷으로 번역되는데 중앙티베트가 명 조정에 보내는 물품으로 역시 자주 언급되고 있어서, 이후 연구가 필요하다. 刀와 검은 불교 의례에 필요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명회와 명갑이 실제 사용하는 투구와 갑옷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전투용도 겸일 수도 있다.

16) “凡毡绒白黑为本色, 其余皆染色. 其氍毹、氍毹等名称, 皆华夷各方语所命.”(明 宋應星, 『天工开物』, 「乃服·褐毡」)

17) “洪武七年, 升朵甘衛為西安行都指揮使司, 給銀印. 十八年, 改朵甘思宣慰使司、及萬戶府、招討司、東道萬戶府、塔千戶所、每年一貢. ... 隆慶三年、定俱三年一貢. ... 貢物 各色足力麻、各色鐵力麻、各色氍毹、左髻、明盔、長刀(『大明會典』卷108 朝貢四·西戎下·朵甘思朵甘直管招討司附).” 이는 암도의 洮州, 岷州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조주와 민주의 番僧들은 ... 공물로 銅佛, 佛畫, 사리, 말, 낙타, 酥

그런데 『明會典』의 이 목록은 티베트인들이 그때그때 바친 물품이라기보다 티베트와 명이 서로 약속한 규정을 적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조공 내용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明實錄』은 중앙티베트를 비롯한 청해, 감숙 지역과 사천 지역의 티베트인 집단의 수도 방문과 조공을 다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록은 『大明會典』과 다소 다르나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 즉 穉穉이다.

烏思藏 지역의 果加 등 사원의 라마 번승 빠마겐 등이 來朝하여 甲, 穉穉 등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표리, 차, 초정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18)</sup>

烏思藏 날란다사 등 사원의 라마 번승 庵配 등이 來朝하여 穉穉 등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와 의복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19)</sup>

油, 청염, 청목향, 새마, 테르마, 특(穉穉), 左髻, 毛纓, 明盔, 明甲, 腰刀가 있었다 (“洮岷等處番僧 ... 貢物: 銅佛、畫佛、舍利子、馬、駝、酥油、青鹽、青木香、足力麻、鐵力麻、穉穉、左髻、毛纓、明盔、明甲、腰刀 (『大明會典』卷之一百八·朝貢四·西戎下·洮岷等處番僧)”)

『大明會典』에 보이는, 중앙티베트를 비롯한 압도, 캄의 티베트인들의 “貢物” 기록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밑줄은 필자).

지방	貢物
烏思藏	畫佛, 銅佛, 銅塔, 舍利,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各色穉穉, 珊瑚, 犀角, 左髻, 毛纓, 酥油, 明盔, 明甲, 刀, 劍
長河西魚通寧遠等處雜道長官司	畫佛, 舍利,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各色穉穉, 珊瑚, 犀角, 左髻, 明盔, 刀, 毛纓
朵甘思朵甘直管招討司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各色穉穉, 左髻, 明盔, 長刀
董卜韓胡別思寨安撫司加渴瓦寺	各色穉穉, 各色足力麻, 各色鐵力麻, 珊瑚, 明盔, 鐵甲, 遮甲麻衣, 白毛纓, 紅毛纓, 黑毛纓, 黃左髻
金川寺番僧	珊瑚, 胡黃連, 木香, 穉穉, 足力麻, 左髻, 毛衣
雜谷安撫司	珊瑚, 胡黃連, 木香, 茜草, 海螺, 左髻, 毛衣, 穉穉, 足力麻
打喇兒寨 (四川威州地方)	珊瑚, 穉穉
長寧安撫司 韓胡碉怯列寺 (四川松潘茂州等處地方)	珊瑚, 明盔, 明甲, 刀, 乾松, 穉穉
洮岷等處番僧	銅佛, 畫佛, 舍利子, 馬, 駝, 酥油, 青鹽, 青木香, 足力麻, 鐵力麻, 穉穉, 左髻, 毛纓, 明盔, 明甲, 腰刀

18) “董卜韓胡宣慰司 都綱刺麻<阿兒夜吒>[阿吒兒夜]等 貢馬及穉穉 舍利等物, 賜宴并綵幣表裏有差.”(『英宗睿皇帝實錄』卷二百三十三 景泰四年九月六日)

19) “烏思藏 南連查等寺 刺麻番僧 庵配等來朝 貢 穉穉等物, 賜宴并綵幣衣服有差.”(『英宗睿皇帝實錄』卷二百七十九 天順元年六月二日)

위장 麥朋 등 사원 도강 라마 번승 예세 린첸(也失言千) 등이 來朝하여 穉穉와 방물을 바쳤다. 연회를 베풀어주고 채폐표리, 초정 등을 차등 있게 주었다.<sup>20)</sup>

관련 기록이 상당히 많으므로 여기에 다 적지는 못하나, 이러한 양상은 明末까지 이어졌다. 萬曆 45년, 역시 당시 중앙티베트의 최고 종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팍모 두파의 闡化王은 국사 쇠남 겐첸(bsod nams rgyal mtshan, Ch. 鎖南堅參) 등 1천여 명을 파견하여 珊瑚와 穉穉를 진헌하였고<sup>21)</sup> 萬曆 46년에도 산호, 서각, 穉穉 등을 바쳤다.<sup>22)</sup> 티베트인들이 명 조정에 주로 穉穉를 가져간 것은 『明史』 外國傳의 한 기록에서도 볼 수 있다. 즉 弘治 12년(1499)에 禮部의 한 관원이 長河西 및 烏思藏의 여러 蕃人이 동시에 함께 진공하니, 사신이 2,800여 명에 이르게 되며 수신에게 명하여 그같이 넘치게 보내지 말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는 허락되었다. 『明史』는 “그들의 공물은 珊瑚·穉穉 등이었는데, 모두 『闡化王傳』에 기재된 것에 준하였다. 여러 蕃人의 진공은 모두 이와 같았다.”<sup>23)</sup>라고 적고 있다. 중앙티베트에서 한번 사신을 보내면 다수의 사람을 보내 茶 등을 구해오게 하였는데 차는 穉穉 등 “貢物”에 비해 가치가 높은 것이었고, 이는 명 관료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명 정통 연간 사천의 한 관료 侯軌은 사천을 통해 명 수도로 “進貢”하러 가는 티베트 승려들의 접대와 이송 문제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四川左布政使 侯軌 등이 주를 올려 말하기를 ... 臣 등이 간절히 생각건대 각 승려들은 番地에서 나고 자라 말이 통하지 않고 다만 通事의 통역에 의존하는데 생각건대 [번승과 역관이] 서로 사귀어 생겨, 가까운 것을 멀다고 하며<sup>24)</sup> 譏察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그 바치는 것은 모두, 겨우 사리, 佛像, 穉穉, 茜草 등이거나 중하급의 여위고 약한 말에 지나지 않고, 그 뜻은 進貢이라는 것을 거짓 명분으로 하여 사실은 몰래 金銀을 가지고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가 私茶 등의 물자를 구매하려는 것입니다.<sup>25)</sup>

즉 明 조정이 그들로부터 겨우 사리나 불상, 穉穉 모직물에 “불과한” 것을 받느라 관청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료는 사람과 물자를 조정으로 이송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조악한 물건들(粗惡之物)은 변경에 그대로 남기고 사람도 예로

20) “烏思藏 麥朋等寺 都綱刺麻 番僧也失言千等 來朝 貢穉穉 方物, 賜宴及綵幣表裏鈔錠等物 有差.” (『英宗睿皇帝實錄』 卷三百二十七 天順五年四月十九日)

21) “萬曆四十五年 ... 烏思藏 闡化王 差國師鎖南堅參等 一千名 進獻珊瑚 穉穉等物” (『神宗顯皇帝實錄』 卷五百五十六 萬曆四十五年四月四日)

22) 만력 46년, ... 중앙티베트의 천화왕이 번승 삼뎐 도르지 등 15명을 파견하여 산호, 서각, 穉穉 등 물품을 바쳤다. (“萬曆四十六年 ... 烏思藏 闡化王差 番僧三旦朵兒只等一十五名 進獻珊瑚、犀角、穉穉等物”(『神宗顯皇帝實錄』 卷五百七十 萬曆四十六年五月二十一日)”)

23) “弘治十二年, 禮官言: 「長河西及烏<期>[斯]藏諸番, 一時並貢, 使者至二千八百餘人. 乞諭守臣無濫送。」亦報可. 然其後來者愈多, 卒不能却. 嘉靖三年定令不得過一千人. 隆慶三年定五百人全賞. 遣八人赴京之制, 如闡教諸王. 其貢物則珊瑚·穉穉之屬, 悉準『闡化王傳』所載. 諸番貢皆如之.”

24) 즉 암도나 캄이 아니라 중앙티베트에서 왔다고 거짓으로 보고한다는 것.

25) “四川左布政使侯軌等奏比奉勅 ... 臣等切思 各僧生長番地 語言不通 止憑通事傳譯 慮有交結 以近作遠 無由譏察 况其所進 皆不過 舍利, 佛像, 穉穉, 茜草等物, 中下羸弱等馬. 其意 盖假進貢之名 潛帶金銀 候回日 市買私茶等貨(『英宗睿皇帝實錄』 卷一百七十七 正統十四年 四月 二日).”

써 대해주고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다.<sup>26)</sup> 그러나 조정에서는 예부상서 胡濙 등이, 멀리서 오는 티베트인과 변경에서 오는 티베트인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으며 조정에 바치기에 정 마땅치 않은 진공품은 外庫에 두면 된다는 의견을 내어 이에 반대하였다.<sup>27)</sup> 어쨌든 犛羶는 명대에 중앙티베트에서 대량으로 명에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물품인 것이 분명하다.

## II. 라마의 선물

### 1. 달라이 라마와 뽌첸 라마

1642년 5대 달라이 라마 아왕 롽상 가초(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1617-1682)는 몽골 호쇼드부의 도움을 받아 중앙티베트를 장악했다. 이때부터 겐룩파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는 사실상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티베트를 장악하기 전에도 이미 몽골 초원의 여러 수령들은 티베트로 순례를 왔고 달라이 라마에게 예경하였다. 그의 자서전은 달라이 라마 선정 후 몇 년 뒤인 9살 때, 라싸로 순례를 온 몽골 타이지(tha'i ji)와 그 권속들에게 자신이 칭호를 내려주고 좋은 물건을 사여해 준 것을 기록하고 있다. 몽골인이 티베트에 찾아온 것에 대한 기록이므로 좀 길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라싸로 와서 說法園(gsung chos ra ba)에 세라, 대뽕의 승려들이 모였는데 대단히 많은 무리들의 한 가운데에서 타이지(tha'i ji)가, 비단, 금, 은을 필두로 한 漢地와 몽골의 물품 대 보시를 일만 개 바쳤다. [타이지의] 근신인 승려 따원따이진(tA 'on ta'i sbyin) 법주는 천 가지를 바쳤다. 다창(僧院)의 법주와 다르칸 의사(dar khan em chi) 두 사람이 백가지를 바쳤다. 세첸 법주도 역시 30여개 정도를 냈다. ... 타이지와 그 권속들은 돌아가기로 하고 간댄 포당의 大廳에 줄지어 앉아 있다가 타이지가 나에게 緣起의 방식으로 '달라이 라마 바즈라다라(tA la'i bla ma bdzra dhA ra)'라고 하는 칭호를 다시 또 주는 방식으로 주었다. [나는] 타이지에게 '타이순 흥타이지(tha'i sun hung tha'i ji)'라는 칭호를 주고 法

26) 侯軌은 멀리 중앙티베트에서 왔다고 해도 모두 조정으로 갈 수 있게 하지 말고 몇 명만 뽑아 가게 하며 말이나 물품도 아주 좋은 것만 조정으로 이송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邊軍에게 남겨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때문에 오는 길에 배와 수레와 人力을 다수 사용하며 운송은 몇 년 몇 달이 걸리니 길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관할 청이 이들을 대접하느라 피로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잔악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명령을 내리셔서 금후로는 番僧이 進貢을 오면 비록 말은 멀리 사는 자라고 할지라도 近邊者의 예에 따라 몇 명만 헤아려 뽑아 공물을 보내게 하고 上馬는 수도로 보내고 나머지 방물과 마필은 모두 官庫에 두고 邊軍이 타도록 주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예로써 대하고 돌아가게 하십시오(以此緣途多用船車人力, 運送連年累月, 絡繹道路, 所司非惟疲於供億 抑且罹其凌虐. 乞勅 今後 番僧進貢 雖稱遠方者 亦如近邊者例 量撥數人 送其貢物 上馬赴京 其餘方物馬匹 悉收官庫 及撥邊軍騎操 餘人 悉禮待, 遣回.)”라고 하였다.

27) “예부상서 胡濙 등이 논의하여 생각하기를 번승의 원근은 같지 않으니 하나로 생각하여 돌려보내기는 어렵다. 그 방물은 이전에 바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은 외고에 저장하면 됩니다. 알 등이 말한 것은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황제가 옳다고 여겼다(禮部尚書胡濙等議 以為番僧遠近不同 難以一槩 遣回. 其方物例 該御前奏進不宜收貯外庫 軌等所言難允. 上然之.)”

主, 善人 귀족들에게도 칭호를 주었는데 통역사가 큰 목소리로 소리쳐 옛날 몽골의 방식 그대로 하였고, 다창 법주가 올린 구두 보고를 따라 셸오가 마련하여 시행하니 대단히 잘 되었다. 타이지를 필두로 한, 새로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珊瑚(byu ru), 琥珀(spos shel), 남(snam)과 특(phrug) 등 이별의 선물을 모두 풍성하게 주었다.<sup>28)</sup>

즉 몽골의 타이지는 달라이 라마에게 “중국의 물품인 비단, 금, 은을 필두로 한” 보시를 바쳤고 이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특산물인 남(snam)과 특(phrug)을 회賜한 것이다.<sup>29)</sup> 라싸로 순례온 몽골 수령들에게 라마가 특별히 선정한 하사품이 특이라는 것은 티베트에서 이 물품이 대단히 높았던 것을 보여준다.

관련 내용을 실은 티베트 기록은 더 보이지 않지만 달라이 라마가 유라시아의 다른 군주와 수령들에게 특을 선물한 것은 새로 들어선 왕조 淸의 기록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淸을 세운 만주인들은 건국 이전부터 몽골과 때로는 연맹하고 때로는 복속시키면서 티베트 불교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고 수도 북경에 여러 티베트 불교 사원을 세웠다. 특히 乾隆帝(1711-1799)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피서지인 熱河에 중앙 티베트의 사원을 그대로 모방한 사원을 하나씩 지었다. 티베트 승려들은 국초부터 빈번히 초청을 받아 淸 조정을 방문하였고 이때 승려들은 황제에게 불상 등 불교용품 외에 역시 璽璽, 즉 특을 비롯한 티베트의 특산물을 선물했다. 『大清會典』과 『大清會典事例』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달라이 라마(達賴喇嘛)와 뽕첸 이르더니(班臣額爾德尼)는 경축하는 일 외에 따로 壽帕, 산호, 호박, 진주, 티베트 향(藏香), 璽璽를 바친다.<sup>30)</sup>

28) “lha sar phyin gsung chos ra bar ser 'bras kyi dge 'dun 'dus pas gtsos khrom shin tu che ba'i dbus tha'i jis gos dar gser dngul gyis mtshon pa'i rgya hor gyi spyad pa snangs che ba'i khri 'bul/ nang skor gyi ser mo ba tA 'on ta'i sbyin chos rjes stong 'bul/ grwa tshang chos rje dang dar khan em chi gnyis kyis brgya 'bul/ se chen chos rjes kyang grangs sum cu skor bstar/ ... tha'i ji dpon g.yog phyir 'byon gdong dga' ldan pho brang tshoms chen du bzhugs gral thog tha'i ji des nged la rten 'brel gyi sgor tA la'i bla ma bdzra dhA ra zhes pa'i ming yang skyor gyi tshul du btags/ tha'i ji la tha'i sun hung tha'i ji'i mtshan dang/ chos rje mi bzang drag rigs rnam la cho lo ster bar lo tsA bas skad chen pos 'bod pa snga dus kyi sog po'i lugs srol ji lta ba bzhin grwa tshang chos rje'i snyan sgron phul ba ltar zhal ngos bkod pas phyogs par mdzad song ba legs tshogs che ba byung/ tha'i jis gtsos gzar 'grul log mi rnam la byu ru spos shel snam phrug sogs gang la gang 'tsham gyi rdzong ba rgyas par byas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 *Za hor gyi ban de ngag dbang blo bzang rgya mtsho'i 'di snang 'khrul pa'i rol rtsed rtogs brjod kyi tshul du bkod pa du kU la'o gos bzang*, Lhasa: Bod ljongs mi dmangs dpe skrun khang, 1989, pp.78-81)”

29) 남(snam)에 대하여 현대의 연구들은 특과 거의 같은 종류의 모직으로 보기도 하는데, 티베트 망명정부에서 펴낸 티베트 복식 관련 서적에서는 남이 테르마, 새마, 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Namgyal L. Taklha, 앞의 책, p.39). 또한 이 보시와 회賜가 몽골 수령과 달라이 라마가 칭호를 서로 주고받은 후에 이루어졌고 그 의식이 옛날 몽골제국 시기의 방식대로 행해졌다는 것에서 남과 특이 이전 몽골제국 시기에도 선물로 몽골인들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위 기록이 언급하고 있는 시기는 명 말기이며 달라이 라마의 교파가 티베트 전체를 장악하기 전이다.

30) “達賴喇嘛 班臣額爾德尼 於慶祝之外 別具壽帕 珊瑚琥珀 數珠 藏香 璽璽 以貢(『欽定大清會典』卷18,「理藩院」).” 중앙티베트에서 중국 지역으로 보내는 물품에 산호와 호박이 특과 함께 빈번히 거론되는 것은 특기할만하다.

달라이 라마와 뽌첸 이르더니는 격년으로 사신을 보내 進貢하는데 진공로는 西寧을 통하여 오며 京師에 이르면 西黃寺에 머문다. 공물로는 카닥, 동불, 사리, 산호와 호박 꾸러미, 티베트향, 穉穉 등이 있다.<sup>31)</sup>

또한, 토르구트와 청해 몽골은 달라이 라마, 뽌첸 라마가 바치는 물품 중 불상 등을 제외하고 티베트 향과 穉穉를 똑같이 바치고 있다. 또한 중앙티베트의 기타 승속 수령이 보내는 것도 “달라이 라마와 같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할하, 오이라드는 낙타와 말, 湯羊을 공물로 바친다.  
토르구트와 청해는 티베트 향과 穉穉, 말을 바친다.  
西藏이 바치는 것은 달라이 라마와 같다.<sup>32)</sup>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건륭 45년(1780) 황제는 열하에서 거행한 만수절 하례(賀禮)에 두르베트, 우량하이, 토르구트, 회부(回部), 금천(金川) 지역 토사(土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자신의 ‘제국’ 건설의 업적을 성대하게 기념하였다.<sup>33)</sup> 의례의 화룡점정으로 건륭제는 당시 6대 뽌첸 라마인 롱상 뽌댄 예세(blo bzang dpal ldan ye shes, 1738-1780)를 티베트로부터 초청하였다. 당시 달라이 라마는 좀더 어리고 뽌첸 라마가 경력이 길고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륭은 뽌첸 라마의 티베트 주석 사원인 따쉬윈뽌(bkra shis lhun po) 사원을 본뜬 수미복수묘를 열하에 짓고, 조강 사원을 모방한 사원도 세웠다. 초청에 응해 열하러 온 뽌첸 라마는 당연히 건륭제에게도 선물을 주었고 청의 기록은 이를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일단 불상이나 불화, 향 등을 비롯한 불교 용품 외에<sup>34)</sup> 나머지 선물은 다음과 같다.

藏 紅花 1갑(匣), 靠背坐褥 하나, 산호 구슬 꾸러미 하나(총 130알), 호박 구슬 꾸러미 하나(총 109알), 황색 穉穉 한 덩어리(塊), 각색 穉穉 100개, 藏棗 1갑, 藏核桃 1갑, 藏葡萄 1갑, 糖果 1갑.<sup>35)</sup>

紅花는 붉은 색 연료를 내기 위한 식물인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사까 뽌디따가 티베

31) “達賴喇嘛、班禪額爾德尼 閒年 遣使進貢，貢道由西甯，至京 寓居西黃寺。貢物有哈達 銅佛 舍利 珊瑚 琥珀 數珠 藏香 穉穉之屬(『大清會典事例』, 1220卷, 卷九百八十六 理藩院).”

32) “喀爾喀厄魯特以駝馬湯羊 土爾古特青海以藏香穉穉馬 西藏貢與達賴喇嘛同.”

33) 구범진, 조선의 건륭 칠순 진하특사와 열하일기, 인문논총 제70집 (2013), pp. 3~60; 1780년 열하의 칠순 만수절과 건륭의 ‘제국’. 명칭사연구, vol. 40, p.177-217, 2013.

34) 불교용품은 다음과 같다. “카닥 하나, 은 만달라 一座(拴五色哈達), 利瑪 무량수불 1존, 利瑪 문수보살 1존, 利瑪 뎀축불 1존, 무량수불 畫像 9축(軸), 관세음보살 畫像 9축(軸), 金字 무량수經 1本, 楞伽經 18本、바다소라 하나(오색 카닥으로 감쌌), 鍍金銀杵 하나, 금탑 1座, 은병 하나, 은륜 하나, 은 七珍 하나(連銅盤), 銀 팔보 하나(連銅盤), 銀 八吉祥 하나(連銅盤), 白芸香 1갑, 黑芸香 1갑, 黃紅 微粗香 200묵음”

35) 中國第曆史檔案館編, 『清宮珍藏歷世達賴喇嘛檔案薈萃』, 北京:宗教文化出版社, 2002, pp.190-191; 陳昱彤, 「升平累洽: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 『中國藏學』, 2022, 第2期, pp.90-91. 한편 달라이 라마와 뽌첸 라마의 이른바 연반에서의 공물과 청의 回賜에 대하여는 관련 기록이 『元以來西藏地方與中央政府關係資料彙編』와 『清宮珍藏歷世班禪額爾德尼構案薈萃』 등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관련 내용은 小松原 ゆり, 「チベットの年班のテンシュクと清朝からの返礼品 -乾隆40年から59年を中心に-」, 『明大アジア史論集』, vol.23, 2020, pp.227-244 참고.

트인들에게 서신을 보내 몽골에 바치라고 한 목록의 염료와 같은 것일 수 있다. 靠背坐褥은 기대앉을 수 있는 좌석일 것이고 또한 산호와 호박 그리고 藏棗一匣, 藏核桃一匣, 藏葡萄一匣, 糖果 등 먹을 것이 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황색 氈氍와 여러색 氈氍이니 역시 특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뽕첸 라마는 달라이 라마의 선물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목록에도 역시 여러 색 氈氍가 200개 포함되어 있다.<sup>36)</sup>

## 2. 특의 생산과 수급

氈氍 하나 당 정확한 크기를 알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본대로 티베트 승려들이 한 번에 100장이나 200장씩 청에 가져온 것을 보면 티베트에서는 특이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청대 티베트 지역의 수공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가경 연간 和琳가 찬수한 『衛藏通志』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달라이 라마에게 속한 前藏과 後藏 지방은 비교적 넓으며 매년 番民들은 혹은 곡식으로 혹은 특(氈氍), 大綿, 鹽筋, 酥油, 奶渣, 羊腔, 차엽 등을 납부함으로써 租賦로 삼으며, 먼 곳의 부락이어서 운반하기 어려우면 각각 銀錢으로 환산하여 납부합니다.<sup>37)</sup>

즉 특, 綿, 소금, 유제품, 양고기나 찻잎 등을 租賦로 납부한다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정부는 이를 거두어 선별하여 몽골 왕공이나 만주의 군주 등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생산의 체제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20세기의 구술 자료들은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 정부 휘하에서 보로를 전담하여 생산하던 家戶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라싸 남쪽 끼쇠(skyid shod) 지방의 남겔실(rnam rgyal zhol) 지방의 가호들이 특 직조를 맡았으며 이들은 북경 황실에 보낼 “貢品”과 달라이 라마의 가사 등을 제작했다. 특은 품질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뉘었으며 달라이 라마 조정의 규정에 따라 남겔실은 매년 특급 특을 약 250미터 분량을 바쳐야 했다. 조정이 이를 거두는 시기는 매년 티베트력 4월에서 6월까지의 매달 10일, 20일, 30일이었다. 이 마을 전체가 짜낸 여러 품질의 특은 한 해에 약 2만 5천 미터 분량이었다고 한다. 납부한 특은 등급을 매긴 후 염색이 되고 이후 포탈라 궁으로 보내졌다.<sup>38)</sup> 염색은 또한 부근의 쨌데실(ice bde zhol, 현 貢嘎縣 내) 마을이 맡았다.<sup>39)</sup>

## Ⅲ. 특, 조선에 가다

36) 陳昱彤, 위의 글, p.90.

37) “達賴喇嘛所屬 前後藏地方 較為寬廣 每年 番民 交納係以糧石 或以氈氍 大綿 鹽筋 酥酒 奶渣 羊腔 茶葉等項 作為租賦 其遠處寨落 難以運者 各以銀錢折交”

38) 관련 내용은 廖東凡, 『藏地風俗』, 中國藏學出版社, 2014, pp.42-51 참고.

39) 쨌데실 마을은 현대에도 특의 생산지로 유명하며 특히 티베트 특산물로 잘 알려진 여성용 오색 앞치마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앞치마의 지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廖東凡, 위의 책, pp.49-51.

조선 학자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앞에서 언급한 건륭제의 만수절에 열하에 갔던 조선 사절단이 황제의 명으로 강제로 뺨첸 라마를 만난 기록을 해학적으로 적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신들은 “오랑캐 중”을 만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에게 절을 하는 것도 어떻게든 피하고자 했다.<sup>40)</sup> 할 수 없이 알현하고 난 후 뺨첸 라마가 조선 사신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거기에 불상이 포함되어 있어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하사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熱河日記』의 이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라마 수십 명이 붉고 푸른 여러 색의 (普+毛)(魯+毛), 붉은 탄자, 티베트 향, 작은 금불상을 지고 와서 차등 있게 나눠주었다. 군기대신이 받들고 있던 수건으로 불상을 싼다. 사신은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왔는데, 군기대신은 뺨첸이 하사한 모든 물건을 적고 황제께 아뢰기 위하여 말을 달려 갔다.<sup>41)</sup>

위 텍스트에서 괄호 안의 두 글자 (普+毛)와 (魯+毛)는 필사본에 적혀 있는 대로라면 인쇄할 수가 없다. 『熱河日記』 온라인 버전의 원문들은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잘 보면 이 글자들은 穉와 穉 두 글자 각각의 뜻과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순서가 바뀌어 쓰여 있는 것일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뺨첸 라마는 불상과 향 외에 티베트 모직물을 선물로 주었고 그것이 바로 穉穉 즉 특이었던 것이다. 앞에서 본대로 뺨첸 라마는 이때 건륭제에게 대량의 특을 선물하였고 여분의 특 중 일부를 조선 사신단에게 나눠 주었던 것이다. 조선 사절단은 이때 받은 불상으로 그들은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 이 穉穉를 어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정사신으로 파견되었던 朴明源은 5년 뒤인 정조 9년(건륭50, 1785) 謝恩正使로 다시 청에 파견되어 갔다가 다음과 같은 장계를 올렸다. 조선의 기록이므로 좀 길지만 인용문을 다 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가 사은하는 표문을 훑어보고 명령을 내리기를, ‘국왕에 사례하는 글과 아울러 표문에 따르는 공헌 방물(貢獻方物)을 보니, 모두 정성을 알 수가 있다. 모든 공물을 해당 아문(衙門)에 알려주고 은혜를 다하여 상을 주도록 할 것이다. 전번에 사신 서명(西明)과 아숙(阿肅)을 보내었는데, 북경(北京)에 돌아와서 복명하면서 자세히 아뢰기를, 「해당 국왕이 즉석에서 지은 시(詩)로 보아 학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아울러 그 지은 시를 바쳐서 보게 하였다. 짐이 이를 읽어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겨 상으로서 내부(內府)에 있는 송판(宋板)을 모방한 《오경전부(五經全部)》와 아울러 필묵(筆墨) 등의 물건을 주어서 특별히 우대하는 뜻을 보였었다. 이것은 곧 보통으로 우대하고 상을 준 것인데, 반드시 전사(專使)가 와서 사은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으므로 흠차(欽此)하였습니다. 내각(內

40) 이 일은 뺨첸 라마의 전기에도 그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남았고 뺨첸은 조선 사절단이 “대황제의 속국에서 왔고” “황제의 명으로 나에게 강제로 절하게 되었을 뿐 실은 예경을 모르는 자들”임을 적었다. 관련 내용은 최소영, 「티베트 사료의 한국 관련 기록 고찰」, 『동양사학연구』, vol.149 참고.

41) “喇嘛數十人擔紅綠諸色(普+毛)(魯+毛), 猩猩毡, 藏香, 小金像, 分賜有差. 軍機以所捧帕裹佛, 使臣以次起出, 軍機開錄所賜諸物, 奏帝馳馬去(『熱河日記』「扎什倫布」)”

閣)에서 특별히 송판본을 모방하여 《오경전부》 12투와 벼루 1개, 화전지(花箋紙) 2권, 휘묵(徽墨) 4갑, 호필(湖筆) 4갑, 감옥 여의(嵌玉如意) 1자루, 문죽합(文竹盒) 4개, 파려기(玻璃器) 4건, 자기(磁器) 4건, 우추(羽綉) 4필, 정향견(程鄉繭) 4필, 홍사녕주(紅絲寧紬) 4필, 紅氍毹 4개를 주었는데, 예부에서 통역[任譯]을 불러다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신 등이 일일이 내려주는 물건을 받았습시다.<sup>42)</sup>

건륭제가 정조와 조선 사신단을 여러모로 가상히 여겨 여러 하사품을 주었는데 특이하게 여기에는 책자와 문방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정향견(程鄉繭) 4필, 홍사녕주(紅絲寧紬) 외에 붉은 氍毹 4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일은 6대 뵤첸 라마가 건륭제의 칠순에 초대되어 온 지 얼마 후의 일이므로 이 특은 그가 선물한 것을 다시 준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청은 織染局에서 氍毹를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大清會典則例』는 건륭 47년의 “乾隆 47년 주를 올려 한 해에 段紗 38필, 屯絹 2백필, 대홍 長毛 氍毹 40필을 짤 것을 허락받았다.”<sup>43)</sup>고 적었다. 그러므로 위의 붉은 특은 청이 직접 만든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본 대로 특은 의복을 만들거나 천막을 만드는 데 쓰였고 티베트 고위 라마와 귀족들은 티베트의 추위를 막기 위해 좋은 특으로 만든 가사를 입었다. 조선의 학자 이규경은 『五洲衍文長箋散稿』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喇嘛僧은 곧 西藏의 番僧인데, 이들은 모두 붉은 禪衣를 입고 누런 左髻冠을 쓰고 팔뚝을 드러내고 맨발인데다 손발에는 다 사슬을 채우고 귀에는 금고리를 달고 팔뚝에는 용무늬[龍文]를 자자[刺]하였다. 大寶法王은 황색 氍毹로 된 관을 썼는데, 말갈기 같은 털이 달렸고 모양은 마치 가죽신처럼 생겨 높이가 두 자 남짓하며, 또 금으로 짠 禪衣를 입었는데, 소매가 없이 왼쪽 어깨에 걸쳐 온몸을 옷으로 썼다.<sup>44)</sup> 이규경이 특을 실제로 보았는지는 알 수 없고 이는 다른 저작에서 옮겨적었을 것이나 특은 달라이 라마의 모자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서유구 역시 『林園經濟志』 贍用志에 氍毹의 생산 방식을 적었다.

氍毹: 면양(綿羊) 의 털로 만든다. 요즈음 연경에서 수입한 氍毹는 대부분 하얀 바탕에 청색으로 꽃잎 문양을 그렸거나, 가장자리에 ‘만(毳)’자 문양 을 넣었다. 氍毹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방석을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도 있다.<sup>45)</sup>

42) “皇帝覽謝恩表文，下旨曰：“覽王奏謝，並隨表貢獻方物，俱見愜忱。所有貢物，該衙門知道，着加恩賞賚。再前遣使西明、阿肅，回京復命，具奏該國王，即席賦詩，頗知好學，並所賦詩章呈覽。朕閱之，深爲嘉獎，着加賞內府，仿宋板五經全部，並筆墨等物，以示優眷。此乃尋常優賚，不必專使謝恩。”欽此。自內閣特頒仿宋板五經全部十二套、硯一方、花箋紙二卷、徽墨四匣、湖筆四匣、嵌玉如意一柄、文竹盒四個、玻璃器四件、磁器四件、羽縐四疋、程鄉繭四疋、紅絲寧紬四疋、紅氍毹四個。禮部招任譯傳給，故臣等一一祇受賜物。”(『正祖實錄』 19권, 正祖 9년2월14일 甲午, 번역은 국역조선왕조실록에서)

43) “四十七年奏準 歲造段紗 三十八疋 屯絹二百疋 大紅長毛氍毹四十疋”(『大清會典則例』180卷 卷一百六十七內務府 清文淵閣四庫全書本)

44) “喇嘛僧 卽西藏番僧。紅色禪衣。戴黃左髻冠。袒臂跣足。手脚皆鑲兜脫。耳朵金環。臂刺文龍。大寶法王冠黃色氍毹有鬚。狀似靴。高二尺餘。被織金禪衣。無袖祛掛左肩。(『五洲衍文長箋散稿』, 「釋典總說」)”

45) 서유구, 추담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林園經濟志 贍用志)』 2, 풍석문화재단, 2017, p.216.

이 글에 따르면 조선에서도 북경으로부터 羶羶를 들여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티베트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청의 직염국에서 생산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羶羶는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청 황제들이 숭상하는 그 라마승들의 땅의 중요한 생산품인 것이 꽤 알려졌을 것이며 귀족층 일부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것을 소비하고 있었을 것을 알 수 있다.

## 結論

티베트 불교는 12세기 서하 군주의 초청을 받아 그 스승으로 거하면서 많은 보시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유라시아 대부분을 장악한 몽골제국의 지배층이 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세계제국의 부의 상당부분이 티베트 승려들에게로 전해졌다. 몽골을 이은 명은 정치적으로 티베트를 장악하지 못하였으나 티베트 불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승려들을 초청하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만주인이 세운 청대에도 많은 재화가 티베트로 보내졌다. 그러나 티베트 승려들이 그들에게 불상이나 불화 외에 무엇을 주었는지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다.

티베트는 농산물이 풍족하지 않으나 야크나 양과 같은 가축들이 많았다. 티베트인들은 그 털로 실을 자아 직조하였으며 거기에 염색을 하고 문양을 넣어 따뜻하고 보기에 좋은 직물인 특을 만들어냈다. 토번제국 시기에는 거친 직물로 천막을 만드는 데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점차 기술이 발전하여 사까 시대 즉 몽골제국 시기에는 몽골 조정에 보낼만한 품질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달라이 라마 시기인 명말부터는 그 수량을 정하여 중앙티베트 특정 지역의 가호에게 그 직조와 염색을 맡기고 다른 세금과 노역은 면제해 주었으며 그 품질이 좋았다. 이렇게 생산된 특은, 티베트 고위 승려들이 몽골 군주와 수령, 중원의 군주들로부터 받은 화려한 보시품에 대한 답례로 보내졌다. 명과 청이 남긴, 라마들의 선물 목록에 특은 羶羶라는 이름으로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이 글은 달라이 라마와 빠첸 라마를 정점으로 한 티베트 불교 세력이 몽골과 중원의 군주들에게 티베트의 물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 보냈는지 그 일면을 살펴 보았다. 이 글이 티베트와 주변 정치체들 간의 물질적 관계의 작은 일면이라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특 외에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고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朴趾源, 『熱河日記』

서유구 지음, 서우보 교정,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2, 풍석문화재단, 201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正祖實錄』

Ngag dbang kun dga' bsod nams, Dzam gling byang phyogs kyi thub pa'i rgyal tshab chen po Dpal ldan Sa skya pa'i gdung rabs rin po che ji ltar byon pa'i tshul gyi rnam par thar pa ngo tshar rin po che'i bang mdzod dgos 'dod kun 'byung. Delhi : Tashi Dorji ed., Dolanji, H. : distributor, Tibetan Bonpo Monastic Centre, 1975

저자미상,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

김성수 역주, 『중국정사외국전 구당서』 吐蕃, 동북아역사재단, 2011

(明) 宋應星, 『天工开物』

中國第曆史檔案館編, 『清宮珍藏曆世達賴喇嘛檔案薈萃』,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2002

(清) 和琳, 『衛藏通志』

『大明會典』

『大清會典』

『大清會典則例』

『明實錄』

金浩東, 「元代の 漢文實錄과 蒙文實錄 - 『元史』 「本紀」의 中國中心의 一面性的 解明을 위하여」, 『동양사학연구』, vol.109, 2009, pp.141-189.

이선애, 「칸들의 선물, 황제의 은혜: 淸 初期 滿蒙 관계와 禮物」, 『동국사학』, vol.75, 2022. pp.217-267.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최소영, 「대칸의 스승: 팍빠(Phags pa, 八思巴, 1235-1280)와 그의 시대」, 『동양사학연구』, vol.155, 2021, pp.127-200.

廖東凡, 『藏地風俗』, 中國藏學出版社, 2014.

小松原ゆり, 「チベットの年班のテンシュクと淸朝からの返礼品 -乾隆40年から59年を中心に-」, 『明大アジア史論集』, vol.23, 2020, pp.227-244

陳昱彤, 「升平累洽: 論清代西藏地方年班貢品的政治內涵」, 『中國藏學』, 2022年 第2期.

Namgyal L. Taklha, Costumes and Jewellery of Tibet, Tibet Museum (Dharamsala, India), 2018.



【제3발표】

모청포(毛靑布)와 삼사포(三梭布):  
17세기초 후금·조선의 중국산 면포 교역

임경준(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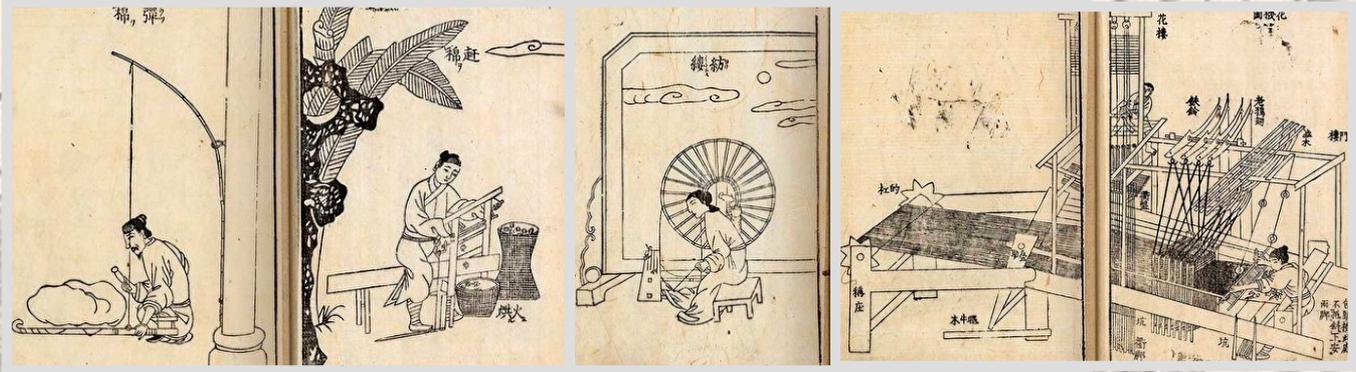
---

착상의 계기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동유라시아 물품학과 국제성



## 毛靑布와 三梭布

17세기초 後金·朝鮮의 중국산 면포 교역

木牛織

임경준(동국대 문화학술원)

## 착상의 계기

### ◇ 문제의식

- 목적: 壬辰戰爭(1592~98)을 계기로 조선에 유입된 중국산 면포인 靑布·藍布는 명대 중국에서 어떠한 물품이었으며 後金과 조선 사이에서 어떻게 교역되던 상품이었는가.
- 구성: 靑布·藍布로 재조명하는 17세기초 後金·조선 관계 양상  
; ① 명대 면포의 명칭과 분류, ② 명대 면포의 유통 범위, ③ 後金·조선 무역과 면포

### ◇ 중국산 면포의 연구 동향

- ① 사회사·경제사 ..... 자본주의 맹아론의 기반으로서 명대 면직물 산업(~80년대)
  - ② 무역사·관계사 ..... 전근대 동아시아 무역의 핵심 상품으로서 면직물(90년대~)
- ⇒ 어디서 만들어졌나? 무슨 명칭으로 불렸나? 어떻게 무역되고 어떻게 쓰였나?

# 면포란 무엇인가

## ◇ 면포(綿布·Cotton)

- 면화에서 추출한 무명[木綿]으로 짠 직물
- 다른 식물류와 비교할 때 생산성과 경제성에서 탁월한 옷감
-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된 필수 재화



## ◇ 명대의 면포

① 농업을 보조하는 가내수공업 생산품 → ② 국가 수취의 대상 → ③ 대외 교역품

## ※ 명칭 차이

- 명조: 綿布 = 布
- 조선: 綿布 = 木  
    麻布 = 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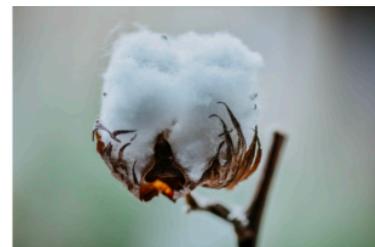
# 면포의 제작



면화(아욱목 아욱과)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



씨앗을 감싼 흰 털 부분을 섬유로 사용



섬유와 씨를 나누어 짜는 작업, 紡績



완성된 면포로 다양한 활용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木綿布는 村과 鎭마다 각자 명칭을 붙이고 있어 다 분별할 수 없다.”

崇禎『松江府志』권6, 물산조

- 명대에는 면포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고 있던 것이 특징 [西嶋 1966]
- 원재료, 제조법, 색상, 문양, 크기, 생산지에 따라 분류 기준이 제각각  
ex) 絲布, 靑布, 番布, 三梭布, 松江布 → 三梭木棉布·三紗木棉布
- 다만 고급 면포의 생산지는 강남 델타 지역에 한정 → 명말 이후 지역별 자립화 [山本 2003]  
ex) 四川, 廣東, 浙江, 福建 등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周忱의 강남 델타 세제 개혁

- 강남 델타의 핵심인 蘇州府와 松江府의 무거운 세율  
“蘇松二府田賦之重” 『日知錄』 권10
- 1430(宣德 5)년 工部侍郎 周忱의 江南 巡撫 파견
- 강남의 重稅에 대해 平米法을 비롯한 세제 개혁 실시
- 1433(宣德 8)년 개혁의 일환으로 면포의 折納을 허용

면포의 세수 납부



면포 생산의 활성화와 규격화



周忱(1380-1453)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 면포 折納에 따라 松江府에서 생산되는 면포의 규격화
- 납부 단위로서 ‘三梭布’의 성립 cf) 조선의 三升布  
→ ‘梭’와 ‘升’은 동일하게 베틀의 북이 오가는 올수 의미
- 松江府에서만 생산되는 면포로서 전국 유통 [西嶋 1966]

## ◇ 三梭布의 가치(1)

- 正德『大明會典』권38, 廩祿  
: 又令以甲字庫三梭布折在京文武官俸每布一疋准絹一疋
  - 明『憲宗實錄』권205, 成化 16년 7월 병신조  
: 然三梭一疋極細者不過直銀二兩 / 粗濶綿布直銀三四錢
- ⇒ 일반 면포와 달리 비단에 견줄 수 있는 고급 면포



周忱(1380-1453)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 면포 折納에 따라 松江府에서 생산되는 면포의 규격화
- 납부 단위로서 ‘三梭布’의 성립 cf) 조선의 三升布  
→ ‘梭’와 ‘升’은 동일하게 베틀의 북이 오가는 올수 의미
- 松江府에서만 생산되는 면포로서 전국 유통 [西嶋 1966]

## ◇ 三梭布의 가치(2)

- 明·陸容, 『菽園雜記』권1:  
嘗聞尚衣縫人云, 上近體衣, 俱松江三梭布所製.
  - 康熙『松江府志』권53, 遺事  
明時, 御用近體衣, 皆松江三梭布.
- ⇒ 명조 궁중에서 활용하는 어용 면포로서 공급



周忱(1380-1453)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三梭布를 착색한 면포, 靑布와 毛靑布

“靑布는 애초 蕪湖에서 만들어져 긴 세월 유행하였다. 청색즙으로 문질러서 청색 빛깔을 내는 방법으로 만든 것인데, 변방과 외국에서 모두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정이란 것이 오래되면 싫증이 나기 마련이라 毛靑이 근래에 출현하였다. 松江府에서 나는 좋은 면포를 짠 청색으로 염색하여 만들어 청색즙으로 문질리지 않고 바람으로 말려 豆漿水를 섞은 膠水에 한 차례 걸러 낸다. 미리 標礪이라는 좋은 靑黛를 비축해 두고 거기에 넣어 얇게 염색한 뒤에 바로 꺼내면 붉게 타오르는 색이 은은히 나타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면포가 별안간에 유행하게 된 것이다.”

『天工開物』卷上, 「附染毛靑布色法」

- 靑布: 松江府의 면포를 安徽省 蕪湖에서 청색으로 착색한 면포
- 毛靑(布): “松江府에서 나는 좋은 면포”(=三梭布)를 착색한 면포
- \* 명대에 松江府에서 생산하는 三梭布 이외의 면포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사례는 없음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명대의 갑옷



청대의 갑옷 안면(요녕성박물관 소장)



17세기초 청의 갑옷(대만고궁박물관 소장)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鴈門關	寧武關	偏頭關				
	振武衛	鴈門所	振武衛	寧武所	寧化所	偏頭所	八角所
明盔	60	0	60	15	60	15	40
腦包	60	0	60	15	0	15	0
靑布鐵甲	40	40	40	10	40	10	40
腰刀	60	60	60	15	60	15	40
靑帶	100	0	100	15	140	15	0
弓	40	40	40	10	40	10	0
弦	80	80	80	20	80	20	80
箭	1200	1200	1200	300	1200	300	1200
撒袋	40	40	40	10	40	10	40
鎗	40	40	40	10	0	10	0
銃箭	400	400	400	100	400	100	400
牌盔	0	20	0	0	0	0	0
護項	0	40	0	0	0	0	40
斬馬刀	0	0	0	0	4000	0	40
長牌	0	0	0	0	20	0	20



출전) 『三關志』, 「武備考」

# 1. 명대 면포의 종류와 명칭

## ◇ 면포의 규격화, 三梭布

- 면포 折納에 따라 松江府에서 생산되는 면포의 규격화 진행 ‘松江三梭布’
- ‘梭’는 베틀의 북이 오가는 ‘올수’를 의미하므로 조선의 ‘升’과 동일한 의미

## ◇ 착색된 三梭布, 靑布와 毛靑布

- 송강부의 고급 면포인 三梭布를 착색한 염색 면포가 국내외 시장에 유행
- 三梭布를 착색한 靑布와 毛靑布가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유통
- 三梭布 = 착색 전의 白布 / 靑布·毛靑布 = 착색한 三梭布로 物名의 정리가 가능

## ◇ 三梭布·毛靑布·靑布의 활용

- 봉록의 지급 수단으로 비단에 견줘 지급되는 고급품
- 궁중에서 활용되던 어용 면포로서 지속적으로 공급
- 군용 皮綿甲의 재료로서 몽골과 접경하는 北邊 배치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중국산 면포의 외국 전파: 몽골의 경우

“(萬曆)二年, ……時俺答既封吉能, 亦修貢受約束, 因貢爲市. 中國以梭布皮物易虜馬, 虜亦利漢財物, 交易不絕, 胡越一家.”

『全邊略記』권2

“每年互市額馬一萬四千五百匹, 其欸有八 ……曰梭布, 馬每匹梭布四十疋.”

『三雲籌俎考』권2, 封貢考:

- 隆慶和議(1571)에 따라 명과 몽골 사이의 封貢互市가 성립되어 양자간의 교역 정례화
  - ① 알탄과 그 일족에게 王號·官職 수여, ② 馬匹의 朝貢과 馬價 지급, ③ 馬市 개설
- 몽골은 馬市를 통해 중국의 ‘緞布米麥’을 ‘牛羊馬匹’과 교환함으로써 일용생필품 확보
  - 몽골이 확보하려던 ‘布’의 경우 ‘梭布’, 즉 ‘三梭布’였던 것을 확인 가능
- 몽골이 공무역만이 아닌 밀무역으로도 ‘三梭布’를 획득하려던 움직임도 존재 [谷井2021]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중국산 면포의 외국 전파: 만주의 경우

7월에 자식들과 처를 빼앗긴 王一屏, 戴集賓, 金玉和, 白奇策이라는 네 千總과 戴一位라는 한 守堡가 20여명을 이끌고 그들의 자식들과 처를 찾으러 도망해 오자 경기연 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하늘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나라가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는 것을 듣고 찾으러 온 것이로다!”라고 말하며 개원성에서 투항해 온 아부투 바투루(Abutu Baturu)에게 사람 1백명, 마소 1백마리, 양 1백마리, 낙타 5마리, 은 1백냥, 비단 20필, 毛靑布(mocin samsu) 2백필을 주고, 千總 직의 여섯 사람에게 사람 50명, 마소 50마리, 양 50마리, 낙타 2마리, 은 50냥, 비단 10필, 모청포 1백필을 각각 주고, 守堡·百總 품급의 사람에게서는 사람 40명, 마소 40마리, 양 40마리, 낙타 1마리, 은 40냥, 비단 8필, 모청포 80필을 주었다.

『만주실록』권5, 천명 4(1619)년 7월조.

※ 만주에서는 항복한 장수에게 하사하는 물품으로 일찍부터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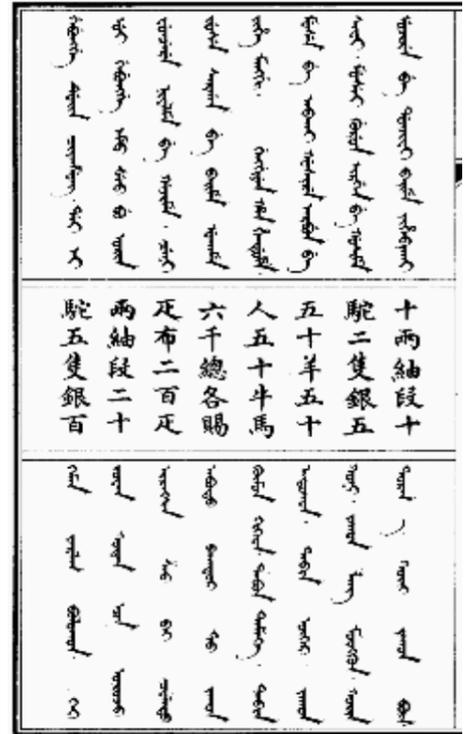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毛靑布의 만주어 표기

- 『만주실록』 = (만문+한문+몽문) 三體 合璧
- 만문 : mocin samsu ↔ 한문 : 布
- 동일 기사를 수록한 『태조실록』 한문본은 모두 ‘布’
- ← 『태조실록』 만문본의 경우 모두 ‘mocin samsu’

### ◆『五體淸文鑑』과 『大清全書』의 분류

- mocin samsu: 毛靑布
  - lamun samsu: 藍扣布 → 藍布
  - samsu: 翠藍布, 三梭布, 梭布
- ⇒ samsu = 三梭布이고 착색된 색에 따라 mocin과 lamun이 samsu에 접속되는 형태



『만주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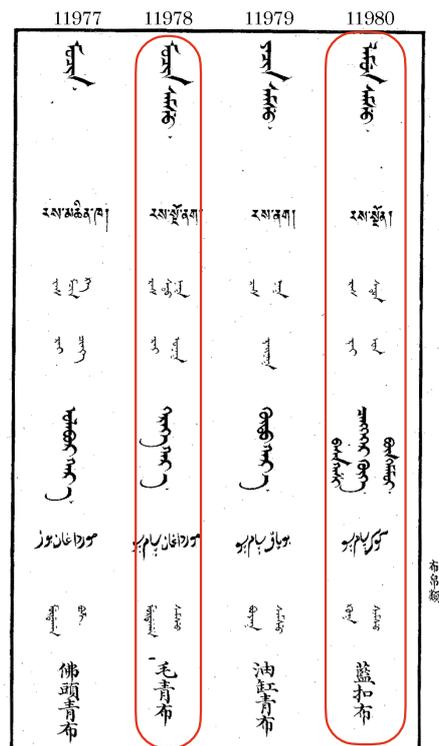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毛靑布의 만주어 표기

- 『만주실록』 = (만문+한문+몽문) 三體 合璧
- 만문 : mocin samsu ↔ 한문 : 布
- 동일 기사를 수록한 『태조실록』 한문본은 모두 ‘布’
- ← 『태조실록』 만문본의 경우 모두 ‘mocin samsu’

### ◆『五體淸文鑑』과 『大清全書』의 분류

- mocin samsu: 毛靑布
  - lamun samsu: 藍扣布 → 藍布
  - samsu: 翠藍布, 三梭布, 梭布
- ⇒ samsu = 三梭布이고 착색된 색에 따라 mocin과 lamun이 samsu에 접속되는 형태



『五體淸文鑑』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毛靑布의 만주어 표기

- 『만주실록』 = (만문+한문+몽문) 三體 合璧
- 만문 : mocin samsu ↔ 한문 : 布
- 동일 기사를 수록한 『태조실록』 한문본은 모두 ‘布’
- ← 『태조실록』 만문본의 경우 모두 ‘mocin samsu’

### ◆『五體淸文鑑』과『大清全書』의 분류

- mocin samsu: 毛靑布
  - lamun samsu: 藍扣布 → 藍布
  - samsu: 翠藍布, 三梭布, 梭布
- ⇒ samsu = 三梭布이고 착색된 색에 따라 mocin과 lamun이 samsu에 접속되는 형태

『大清全書』

## 2. 명대 면포의 유통과 전파

### ◇중국산 면포의 유통과 전파

- 몽골의 경우 융경화의 이후 공무역과 밀무역을 통해 몽골지역으로 유통·전파
- 만주의 경우 누르하치 시기부터 毛靑布(mocin samsu)가 여러 용도로 활용
- 양측 모두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그 유통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

### ◆중국산 면포의 만주어 物名

- 청대 만주어 字書로 중국산 면포에 해당하는 어휘를 추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
- ① mocin samsu: 毛靑布
- ② lamun samsu: 藍扣布 → 藍布
- ③ samsu: 翠藍布, 三梭布 → 梭布
- samsu는 三梭布를 의미하고 착색된 색에 따라 mocin과 lamun이 samsu에 접속되는 형태로 정리 가능
- 『滿洲實錄』·『滿文老檔』·『內國史院檔』과 같은 淸初의 근본사료도 대략 일치되는 경향

###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 후금·조선 무역의 계기, 정묘호란(1627)

- 1627년 1월 후금의 조선 침공
- 1627년 3월 후금·조선의 강화 체결
- 후금·조선의 강화 조건
  - ①예물 진헌, ②사신 파견, ③開市 개최, ④양국간의 상호 불침, ⑤국경 준수, 開市의 경우 강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이후 추가된 조항
- 병자호란(1637~38) 전까지 양국 관계에서 중국산 면포는 어떻게 무역되었나?
  - ①예물 진헌, ②사신 파견, ③開市 개최

###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 예물로서의 靑布

- 후금에 사신을 파견할 때에 보내는 예물
- 강화 직후 조선이 후금에 발송한 예단품목
- 靑布를 필두로 면포류의 비중이 압도적
- 이외의 항목은 단목을 제외하면 수량적인 의미는 제한적
- 후금에서 온 사신에 대한 예물
  - 八旗 旗王이 파견한 사자 『승정원일기』 인조 13년 1월 2일(계축)  
: 청포(靑布) 19필, 백목면(白木綿) 8필을 증정
  - 아주후(Ajuhū)와 박중남 『승정원일기』 인조 7년 2월 28일(갑인)  
: 청포(靑布) 100필과 단자(段子) 1필을 증정

白綿紬 50필	長劍 5병
白苧布 50필	短劍 5병
紅色布 50필	長槍 2병
靑色紬 50필	弓子 1장
靑布 400필	弓袋 1부
豹皮 8장	馬 2필
白綿紙 80권	鞍具 2부
油氈 4부	丹木 100근
花席 15장	胡椒 8두
油扇 100병	大箭 10부

조선이 만주에 발송한 예단품목  
(『朝鮮國來書簿』 천총원년 7월 10일조)

###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 무역품으로서의 靑布

: 일반적인 무역

- 후금측 사신이 은자 1천여냥으로 청포(靑布)와 각색 비단 그리고 가죽과 종이 등을 구매 『인조실록』 권20, 인조 7년 2월 27일(계축)

: 강제적인 무역

- 청포 1만 9천여필을 요구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12월 10일(병신)  
: 후금측 사신이 인삼 4백 80여 근에 대가로 청포(靑布) 1만 9천여 필을 요구
- 청포 16만 5,200필을 요구 『승정원일기』 책30, 인조 8년 5월 27일(병오)  
: 조선측은 1만 910통을 준비  
: 후금측의 협박으로 5396통을 더 보내 최종적으로 125,200필 발송

###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 포로 속환 대응으로서의 靑布

전일 도주해간 사람으로 곡호(曲虎)에게 잡힌 세 명과 투로세(投老世)에게 잡힌 일곱 명에 대해 값을 시장에서 매매 가격대로 하되 상품은 소 한 마리 · 청포(靑布) 백 필, 중품은 청포 백 필, 하품은 소 한 마리 혹은 청포 6 · 70필로 등급을 나누어 값을 치르도록 하라는 칸의 부탁이 있었소. …… 박경룡과 되풀이하며 힐난을 해서 마침내 한 사람당 청포 65필로 정하여 쌍방이 문서를 작성하고 파했습니다.

『속잡록』 권2, 무진년 상 송정(崇禎) 원년, 인조 6년(1628년)

- 포로 속환 대응으로서 청포가 활용됨  
상품: 소 1마리 + 청포 100필 / 중품: 청포 100필 / 하품: 소 1마리 or 청포 60~70필
- 박경룡이 교섭한 결과 1인당 청포 65필의 비율로 결착 『인조실록』 권18, 인조 6년 4월 3일(갑오)
- 강화 직후 청포 1,000필을 별단으로 포로 속환에 사용 『승정원일기』 책19, 인조 5년 10월 11일(갑진)

### 3. 後金·朝鮮의 면포 무역

#### ◇ 후금·조선간 중국산 면포 무역의 계기

- 1627년 정묘호란에 의해 후금과 조선이 화의를 맺음으로써 양국간 통교관계 수립
- 강화조건으로서 후금과 조선간 예물 진헌과 開市 개최가 명기되어 재화의 이동이 개시
- 조선이 명에게서 수입하고 있던 중국산 재화가 후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계기로 기능

#### ◇ 후금·조선의 중국산 면포 무역

- 후금측 중요인사와 사신단에 대한 예물로서 조선은 靑布와 같은 중국산 재화를 헌상
- 후금은 조선에게서 開市와 같은 일반적인 정기 무역만이 아니라 무역을 강제함으로써 靑布와 같은 중국산 재화를 입수하려는 태도를 보임
  - ← 후금측에서 靑布가 생필품으로서 갖는 위상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 포로 贖還의 대가로서 후금은 조선측에 靑布와 소를 요구하여 교섭 끝에 타결
  - ← 당시 조선측 포로가 물품처럼 거래되던 상품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靑布는 화폐로서도 기능하고 있었던 것을 유추할 수 있음 cf) 임진전쟁 당시의 靑布 [임경준 2022]

### 참고문헌

- 민경준, 「清代 江南의 棉業商人」, 『釜大史學』 3, 1996.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 임경준, 「壬辰戰爭과 靑布·藍布—明軍이 朝鮮에 가져 온 중국산 면포」, 『중국학보』 101, 2022.
- 谷井陽子, 「東部ユーラシアにおけるモンゴル勢力の衰退とその政治的·經濟的背景」, 『東洋史研究』 81-1, 2022.
- 寺内威太郎, 「義州中江開市について」, 『駿台史學』 66, 1986.
- 山本進, 『清代社會經濟史』, 汲古書院, 2002.
- 山本進, 「近世中朝貿易と靑布」, 『朝鮮學報』 234, 2015.
- 西嶋定生, 『中國經濟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66.
- 天野元之助, 『中國農業史研究(增補版)』, 御茶の水書房, 1989.



감사합니다

중국 라오닝성 환런현 오녀산성



【제4발표】

## 조선시대 용뇌(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권기석(동국대)

- 
1. 머리말
  2. 용뇌의 수입과 유통
  3.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4. 용뇌의 효능과 활용의 확대
  5. 맺음말



# 조선시대 龍腦의 유통과 의학적 활용

권기석 (동국대 문화학술원)

## [목차]

1. 머리말
2. 용뇌의 수입과 유통
3.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4. 용뇌의 효능과 활용의 확대
5. 맺음말

## 1. 머리말

약재(藥材) 중에는 한정된 기후나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식물이나 특정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광물질을 가공해서 얻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인 생활용품이라면 현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하겠지만, 약재와 같이 질병 등에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한 효능이 있는 물품은 지리적 거리에 따른 운송의 어려움을 감수해서라도 먼 지역에서 들여와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쉽다. 전근대 한국에서도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아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재들이 적지 않았고 본고에서 다룰 용뇌(龍腦)도 그 중의 하나였다.

용뇌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용뇌수(龍腦樹, *Dryobalanops aromatica*)에서 채취하는 향료(香料)이자 약재이다. 용뇌는 청량감을 가져다주는 독특한 향기와 함께 답답하게 막힌 것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약품 조제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유사한 약재인 장뇌(樟腦)는 중국 및 일본 남부에도 분포하는 장수(樟樹), 즉 녹나무(*Cinnamomum camphora*)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용뇌와 유사한 효능을 갖추었지만 원료 식물과 제조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열대식물인 용뇌수가 전혀 없었고,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도 추위에 약해서 제주도 일대에서만 부분적으로 자생할 뿐이었다. 따라서 용뇌이든 장뇌이든 사실상 전적으로 대외 무역에 의존하여 얻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에서 용뇌 또는 장뇌가 어떻게 유통·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의료를 위해 대외 교역의 대상이 된 약재 중 하나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고려시대 용뇌 도입과 의약품 또는 향료로서의 활용을 다루었는데, 고려시대 의서(醫書)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약재에 용뇌가 포함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고,<sup>1)</sup> 왕의 병증

을 치료하거나 국가적 행사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 용뇌가 쓰였음을 밝히기도 했다.<sup>2)</sup> 또한 『송사(宋史)』의 기록을 근거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해상 실크로드'를 활용하여 동북아시아로 이동한 물품 중 하나로 용뇌를 지정한 연구도 있다.<sup>3)</sup>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용뇌의 생산, 교역, 활용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 야마다 겐타로(山田憲太郎)<sup>4)</sup>와 미야시타 사부로(宮下三朗)의 연구<sup>5)</sup>에서 개관한 바 있다. 이들 연구는 특히 용뇌와 그 유사품인 장뇌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생산지와 제조법의 발달, 교역 경로와 용도의 확대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련된 연구의 길잡이가 될 만하다.

하지만 한국사에서 용뇌가 약재 또는 향료로서 어떻게 유통되고 활용되었는지 전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하며, 특히 조선시대 용뇌에 대한 고찰은 더욱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대체로 여러 약재의 품목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하지만 용뇌가 지니고 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은 이 물품에 대한 연구가 한국사 뿐만 아니라 동유라시아 물품교류사 및 의학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첫째로 용뇌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소비되어온 물품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한 원료와 제조법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둘째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유의 향기와 효능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새로운 효능과 용도가 개발되어 다양한 가공품이 만들어지는 등 활용도가 높아져왔다. 셋째로 생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기후적 조건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했고 그 결과 장거리 국제교역을 유발시키는 물품이었다. 넷째로 수요에 비해 충분한 양을 조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대체품이나 저급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진위(眞僞)나 품질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로 다양한 의약품의 조제에 용뇌가 재료로 사용되었고, 발열이나 염증,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한 약재로 인식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졌고, 값비싼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용뇌의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교역과 국내 유통의 추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 용뇌와 그 유사품인 장뇌의 특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학적 용도가 확대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과 유통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거의 전량을 국외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용뇌가 어떻게 중국과 일본 등을 통해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었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조선에서 통용된 '용뇌'와 '장뇌'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차별화되었음을 밝히고, 양질의 물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기울여졌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용뇌가 실제 질병의 치료에 어떻게 활용되

1) 윤성재, 『『어의촬요』로 본 고려시대의 의료』, 『白山學報』 120, 백산학회, 2021

2) 권순형, 「고려 전·중기 향과 문화 생활」, 『한국문화연구』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3) 강희정, 「해상 실크로드와 불교물질문화의 교류」, 『東亞研究』 37권 1호(통권 74집), 서강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8, 76~77쪽.

4) 山田憲太郎, 『東西香藥史』, 東京: 福村書店, 1956

5) 宮下三郎, 1989, 「竜腦と樟腦、天工から人工へ」,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 22

있는지를 살펴보고, 용뇌가 구하기 어려운 수입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학적 용도와 사용 계층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 2. 용뇌의 수입과 유통

조선시대 용뇌는 거의 전량 수입품이었고, 통상 중국산 약재를 의미하는 ‘당약재(唐藥材)’ 중 하나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주로 유입되기는 했지만, 원산지가 중국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용뇌의 원료 식물인 용뇌수는 말레이반도 남부와 수마트라, 보르네오 일부 지역에만 생육하는 수종(樹種)이라고 한다.<sup>6)</sup> 중국인은 수·당대에 이를 접하게 되었는데, 당의 본초서(本草書) 『신수본초(新修本草)』(659년)에 수마트라섬 남해안에 소재한 ‘파률국(婆律國)’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보르네오 섬의 용뇌도 유명했다고 한다.<sup>7)</sup> 송대에도 여러 본초서에 용뇌가 香料로 언급되고 있는데,<sup>8)</sup> 이 시기에도 용뇌는 보르네오 섬의 발니국(渤泥國)과 수마트라섬의 빈솔국(賓率國)에서 생산되어, ‘남해번박(南海番舶)’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sup>

용뇌는 비슷한 시기 한반도에도 이미 전래되고 있었는데, 8세기 신라에서 용뇌의 교역이 확인된다. 752년(경덕왕 11)에 신라 왕자 김태렴(金泰廉)의 사절단이 일본에 내방하여 교역활동을 했는데 이때 거래된 물품 중 하나가 용뇌향(龍腦香)이었다.<sup>10)</sup> 용뇌는 고려시대에도 대외 무역을 통해서 유입되어 약재로 사용된 물품 중 하나였는데, 1226년(고종 13)에 편찬된 고려시기의 의서(醫書) 『어의촬요(御醫撮要)』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약재 10가지 중 하나에 용뇌가 포함된 바 있다.<sup>11)</sup>

조선시대 용뇌의 수입은 주로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일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뇌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 지역이므로 중국이나 일본도 남방으로부터 들어온 용뇌를 재수출하는 것이었다. 조선이 동남아시아로부터 직교역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태종대에 한 차례 확인된다. 1406년(태종 6)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추정되는 조와국(爪哇國)의 사신 진언상(陳彦祥)이 용뇌를 포함한 약재를 싣고 가다가 전라도 군산도(群山島)에서 왜구에게 약탈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용뇌는 조선 개국 초기인 태종(太宗)~세종(世宗) 재위 기간

6) 山田憲太郎, 앞의 책

7) 宮下三郎, 앞의 글 ; 山田憲太郎, 앞의 책

8) 11~12세기에 저술된 蘇頌의 『圖經本草』(1061), 寇宗奭의 『本草衍義』(1116)에 용뇌가 香料로서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宮下三郎, 앞의 글)

9) 宮下三郎, 앞의 글 ; 중국 남송대인 1225년 泉州에서 福建路의 提舉市舶으로 있던 趙汝适이 작성한 『諸蕃志』에 따르면 ‘腦子’, 즉 龍腦의 산출지는 보르네오섬에 해당하는 渤泥國과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賓率國이라고 한다.(池永佳昭, 『『諸蕃志』의 賓率國と 龍腦』, 『史學』 Vol.48, No.1, 1977, 三田史学会)

10) 『(신편)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310~311쪽

11) 윤성재, 앞의 글, 271쪽

에 주로 대명(對明) 사행의 예물로 등장한다. 1403년(태종 3) 태종은 명에 이귀령(李貴齡)을 파견하여 부왕(父王) 태조의 병을 위해서 용뇌(龍腦)를 비롯해 침향(沈香), 소합향유(蘇合香油) 등의 약재가 필요하니 포(布)를 가지고 조공하겠다고 주청하였다. 이에 황제가 태의원(太醫院)에 명하여 해당 약재를 내려주고 포는 돌려주도록 하였다.<sup>12)</sup> 1406년(태종 6)에는 조선에서 명에 동불(銅佛)을 바치자 답례로 편뇌(片腦) 등의 약재 18종을 보내주었는데,<sup>13)</sup> 편뇌는 용뇌의 이칭(異稱)이다. 1450년(세종 32)에는 명의 사신 예겸(倪謙)이 용뇌 등 여러 약재를 올렸고,<sup>14)</sup> 1425년(세종 7)에는 조선의 진하사(進賀使)가 '흠사약재칙서(欽賜藥材勅書)'와 함께 용뇌 1근을 받아왔는데,<sup>15)</sup> 이때 명 황제로부터 받은 약재도 조선 측에서 요청한 것이었다. 상기한 여러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조공책봉 체제 하에서 진공(進貢)에 대한 회사품(回賜品)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 '진공무역(進貢貿易)'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하지만 조공책봉관계의 의례에 수반되어 유입되는 물량만으로는 용뇌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인지, 사행을 계기로 약재 무역의 길을 열어보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5세기부터 사행을 계기로 약재를 구입 1406년(태종 6)부터 명에 사행을 보낼 때마다 의원 1명씩을 보내서 약재를 구입하게 하였고, 1423년(세종 5)부터 매년 사행마다 전의감(典醫監), 혜민국(惠民局), 제생원(濟生院)으로 하여금 흑마포(黑麻布) 5필을 가지고 가서 약재를 구입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삼았다.<sup>17)</sup>

조선 왕실과 조정에서 용뇌 등의 약재를 각별히 귀중히 여기고 무역품으로 구매하여 확보하고자 하였음은 실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세종은 1425년(세종 7) 용뇌 등 약재에 대하여 본국 소산이 아니고, 희귀하다는 이유로 비록 구하는 자가 있더라도 계(啓)하지 않도록 내약방(內藥房)에 지시하여<sup>18)</sup> 매우 긴요한 물품이라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1432년(세종 14)에는 주사(朱砂), 침향(沈香) 등과 함께 용뇌와 같이 구하기 힘든 당약(唐藥)을 화매(和賣)할 수 있는지 중국 예부(禮部)에 이첩하여 묻도록 하기도 했다.<sup>19)</sup>

하지만 용뇌와 같이 희귀한 약재는 신뢰도 높은 고급품을 얻기 위해 특별한 예물의 형태로 수수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475년(성종 6) 좌의정 한명회가 명에 나오면서 태감(太監) 강옥(姜玉)이 주는 용뇌를 가지고 돌아왔다.<sup>20)</sup> 1481년(성종 12)

12) 『海東繹史』 36권, 交聘志 4, 朝貢 4, 本朝 항목에 1403년 4월에 李貴齡을 파견하여 조공하고 약재를 구매할 것을 주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때 判承寧府事 이귀령이 명 황제가 하사한 약재 18가지를 가지고 돌아온 사실은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1043) 6월 18일 甲子 기사에 실려있다. 한편 이듬해인 태종 4년(1404)에도 進賀使가 명 황제가 하사한 약재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기에도 용뇌가 포함되어 있었다.(『태종실록』 8권, 4년 11월 1일 己亥)

13) 『태종실록』, 6년(1406) 12월 22일 丁未

14) 『세종실록』 32년(1450) 윤1월 5일 庚戌

15) 『세종실록』 7년(1425) 11월 7일 壬寅

16) 進貢貿易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도영, 「조선 초기 對明貿易體制의 성립과 운영」, 『사학연구』 109, 2013 참조.

17) 孫弘烈, 「朝鮮中期 醫術과 醫藥의 發達」, 『國史館論叢』 56, 1994

18) 『세종실록』 7년(1425) 8월 28일 갑오

19) 『세종실록』 14년(1432) 10월 20일 을사

20) 『성종실록』 6년(1475) 6월 5일 임오

에도 한명회의 요청에 따라 강옥이 조선 사신이 머무르고 있던 회동관(會同館)에 이르러 소합유(蘇合油)와 용뇌 1근씩을 특별히 전해 주었는데, 모두 황제가 내탕(內帑)으로 내려준 것이어서 '어봉인제(御封印題)'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sup>21)</sup> 이에 대해 조선 조정에서는 본국에 없는 귀한 약을 하사한 것을 사신에게 사례하고 사은사를 통해 포자(布子)를 보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sup>22)</sup> 15세기 후반 성종대까지도 용뇌의 고급품은 교역품이라기보다는 사행에서 오가는 특별한 선물에 가까웠다.

같은 시기 일본의 사절을 통해서도 용뇌 혹은 장뇌가 헌상(獻上)된 기록을 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와 달리 사절의 내방이 세종대에 집중될 정도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용뇌뿐만 아니라 장뇌도 언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먼저 용뇌에 관한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사절	헌상 물품
1421년(세종 3) 4월 16일 戊申	對馬島 左衛門代郎	龍腦 4兩
1423년(세종 5) 1월 12일 甲午	筑州管事 平滿景	龍腦 50錢目
1423년(세종 5) 10월 4일 辛亥	對馬州太守 宗貞盛	용뇌 1斤4兩重
1423년(세종 5) 11월 24일 辛丑	源道鎮	龍腦 3兩重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一岐州의 知州 源朝臣重	龍腦 5兩重
1427년(세종 9) 1월 13일 壬寅	肥前州의 源臣昌明	龍腦 3兩重

[표 1] 조선초기 일본측의 龍腦 獻上 기록 (전거: 『世宗實錄』)

이어서 장뇌에 관한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시기	사절	헌상 물품 (용뇌 중심)
1421년(세종 3) 11월 6일 乙丑	九州摠管 源道鎮	樟腦 5근
1423년(세종 5) 9월 18일 丙申	筑州府 石城管事 平滿景	樟腦 5근
1423년(세종 5) 10월 15일 壬戌	九州 多多良德雄, 築前州管事 平滿景	各 장뇌 10근 및 5근
1423년(세종 5) 10월 25일 壬申	平滿景	장뇌 1근
1423년(세종 5) 11월 17일 甲午	平滿景	장뇌 10근
1424년(세종 6) 6월 16일 己未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4근
1424년(세종 6) 11월 23일 甲午	石城管事 平滿景	장뇌 20근
1426년(세종 8) 11월 1일 庚寅	石城管事 宗金	장뇌 5근
1426년(세종 8) 12월 14일 癸酉	九州 前都元帥 源道鎮	장뇌 5근

[표 2] 조선초기 일본측의 樟腦 헌상 기록 (전거: 『世宗實錄』)

21) 『성종실록』 12년(1481) 4월 19일 계해. 한명회가 용뇌를 요청한 일화에 대해서는 李承詵(1422~1484)의 문집 『三灘集』 11권, 序, 「上黨府院君燕京使還詩序」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강옥은 한명회가 구해달라는 용뇌와 소합유에 대하여 이들은 모두 藥肆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모두 가짜라서 쉽게 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22) 『성종실록』 12년 5월 9일 계미 ; 『성종실록』 12년 5월 16일 경인

이렇게 세종대에는 일본 측에서도 외교 사절의 예물로서 용뇌 또는 장뇌가 등장하는데, 중국으로부터 용뇌가 들어오는 계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조일 무역의 대부분이 사신의 왕래를 통한 진상과 회사라는 조공무역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일본통교자들이 가져오는 품목으로는 일본 광산물과 남방산 약재와 향료 등이 있었는데, 용뇌도 그러한 물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sup>23)</sup>

다만 같은 시기 명으로부터 유입된 사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장뇌가 일본으로부터는 여러 차례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장뇌의 원료식물인 녹나무는 일본에서도 성장하는 것이었지만, 후술할 바와 같이 일본에서 자국산 장뇌의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17세기 이후이므로, 이 시기 조선측 기록에 나오는 '장뇌'가 일본산 장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sup>24)</sup> 15세기 조선은 호초(胡椒), 소목(蘇木), 침향(沈香), 속향(束香), 백단향(白檀香) 등 일본이 주산지 아닌 다양한 남방산(南方産) 물품을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sup>25)</sup> 용뇌도 그러한 물품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용뇌와 장뇌의 구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상술하기로 한다.

공식적인 사행 무역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용뇌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조선에서는 일본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용뇌를 들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일본에서의 약재 수입을 중시하여, 일본이 가지고 온 무역품의 처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값을 제대로 쳐 주지 않을 경우 일본이 동철(銅鐵)이나 약재 등 물건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였다. 성종대에는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게 되자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는 보고 듣는 대로 무역하도록 하였다. 명으로부터의 약재 수입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중요시했던 것이다.<sup>26)</sup>

15세기말 성종대를 시작으로 16세기에 이르면, 단순히 외교사절이 바치는 토산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일본과의 무역품으로서 용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494년(성종 25)에는 일본 사신 일행과의 사무역을 억제하는 입장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온 물건 중 용뇌 등 국용(國用)에 긴요한 것은 값을 주고 무역하도록 하였다.<sup>27)</sup> 1522년(중종 17) 내섬시의 종이 왜인의 방수(房守: 방지기)로서 흥리(興利)를 하던 사람과 공모하여 황금, 용뇌 등의 물품을 속여서 진상한 사건을 통해서,<sup>28)</sup> 일본으로부터 유래한 용뇌가 상당량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525년(중종 20)에는 일본 사신이 가지고 온 용뇌 중 일부를 공무역 대상으로 하려는 조선측과 전부 무역하지 않으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일본측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는데,<sup>29)</sup>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sup>30)</sup> 1544년(중종 39) 일본 사

23) 정지연, 「朝鮮前期 對日 私貿易 研究 -太祖~成宗代를 中心으로-」, 『韓日關係史研究』 24, 2006

24) 山田憲太郎, 앞의 책 ; 宮下三郎, 앞의 글

25) 朴平植,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韓國史研究』 181, 2018

26) 구도영, 『16세기 한중무역 연구』, 태학사, 2018

27) 『성종실록』 25년(1494) 6월 16일 계유; 『성종실록』 25년(1494) 6월 20일 정축

28) 『중종실록』 17년(1522) 1월 20일 무진

29) 『중종실록』 20년(1525) 8월 19일 병오

30) 『중종실록』, 18년(1523) 6월 28일 기사에 따르면, 조선 측에서 이렇게 수입량을 제한하고자 한 것은 왜인들이 공적으로 무역하려는 금, 은, 용뇌 등의 물건을 모두 사들이려면 과도한 면포가 소요되었기

절의 일행으로 인 왜인이 무역하는 상품에 대해 정가를 고쳐 달라고 요구하고,<sup>31)</sup> 이듬해 1545년(중종 40)에도 일본 사신이 용뇌, 호초, 단목, 침향 등을 무역하려 하였다.<sup>32)</sup>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일본과는 사절의 왕래에 수반하여 용뇌 등 약재에 대한 정례적인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은 16세기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나,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행의 예물 수준을 넘어서는 무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이 명에서 약재를 수입하는 규모가 확대되어, 수입 약재를 일본에 수출하는 약재 증계 무역이 출현할 정도였다.<sup>33)</sup> 17세기 전반인 1625년(인조 4) 명 사신이 데리고 온 인원들이 보따리에 용뇌와 구리, 호박, 주사 등의 물건 약간을 교역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시전상인이 아닌 호조(戶曹)에서 바뀐 주도록 조치한 일이 있었으며,<sup>34)</sup> 중국과의 용뇌 교역에서는 은(銀)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sup>35)</sup> 이를 통해서도 사행을 기회로 용뇌의 사적인 교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역 과정에 시전상인과 호조가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전반은 명청 교체로 인하여 북방의 사행로가 불안정해져 해로(海路)를 이용하기도 했던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재위한 광해군~인조대의 기록을 보면, 양질의 용뇌를 확보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시기인 15~16세기에 주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용뇌 등 희귀 당약재를 확보해 왔던 사정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1622년(광해군 14)에 명 사신 일행 중 감군(監軍)이 내놓은 물건 중에 '빙편용뇌(冰片龍腦)'가 있었는데 이를 내국(內局: 내의원)으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귀중한 물품도 어용(御用)이라 하여 결코 시민(市民)에게 내어주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sup>36)</sup> 당약재의 확보가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왕실에서 사용할 물량을 우선 확보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625년(인조 3)에는 명 사신 일행이 들여온 용뇌의 가격을 깎으려고 시도하였으며,<sup>37)</sup> 그들이 발매한 용뇌가 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일부만을 사들이기도 했다.<sup>38)</sup> 국가에서 사용할 수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 하면서, 가격에 비해서 좋은 품질

때문이라고 하였다. 1528년(중종 23)에도 일본 사신 一鶚東堂 등이 沈香, 龍腦, 朱紅胡椒 등의 공무역 품목수가 적다고 하며 그냥 떠나려고 하기도 하였다. (『중종실록』 23년(1528) 12월 7일 갑술)

31) 『중종실록』 39년(1544) 4월 18일 丙戌

32) 『명종실록』 즉위년(1545) 8월 12일 壬寅

33) 구도영, 앞의 책

34)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6월 17일 戊子. 上使令 張禮忠이 행차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약간의 물건을 보따리에 넣어 가지고 온 것을 교역할 수 있기를 청하였고, 小單에 적힌 바에 따르면 구리, 호박, 용뇌, 주사 등의 물건이 있었다고 한다.

35)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6월 26일 丁酉에도, 差官이 龍腦 등의 물품을 팔려고 하자 은 25냥을 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36) 『광해군일기』 14년 4월 26일 신묘

37)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6월 9일 乙酉에 따르면, '頭目' 등이 발매한 수량이 너무 많아서 글을 올려 호조에서 값을 깎을 것을 청하였다. 두목은 명 사신단에 포함된 상인들로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무릅쓰고 조선까지 왔다고 한다. 朴平植, 「15世紀 後半 對外貿易의 擴大」, 『韓國史研究』 181, 2018 참조.

38)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7월 13일 己未. 내의원 도제조에 따르면, 天使가 發賣한 龍腦를 看品하니 御用に 적합하지 않아 가려 뽑아 겨우 8냥을 취하였다고 한다.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7월 15일 辛酉 기사에 따르면, 성절사와 동지사간 무역한 것으로도 내의원은 약재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 용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용뇌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정은 명(明)과의 사행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해야 하니 호조에서 당약재의 비축 분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sup>39)</sup> 1626년(인조 4)까지는 호조에 비축된 용뇌 등 약재의 물량이 남아 있었으나,<sup>40)</sup> 1629년(인조 7) 내의원이 보유한 용뇌가 소진되어 약용 또는 납제에 쓸 것을 구하게 없게 되자, 당시 모문룡(毛文龍)이 점거하고 있던 가도(槲島)의 물화를 보내도록 하였다.<sup>41)</sup> 모문룡이 당시 조선과 명, 후금 사이의 교역에 관여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용뇌를 확보하는 데에도 가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7세기 전반 명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조선전기 이래로 용뇌는 주로 명과의 사행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품이었다. 둘째로 수입된 약재는 주로 호조에서 은을 주고 구입하였으나, 시전 상인도 이에 참여한 정황이 보인다. 셋째로 명칭 교체로 인한 정세 불안으로 광해군~인조 시기에는 해로로만 당약재를 수입하던 시기가 있었고, 이 때는 양질의 용뇌를 안정적인 물량으로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로 호조에서 구매한 용뇌 등 당약재는 내의원에서 사용했으며, 그 직무로 볼 때 왕과 그 가족을 위한 약용, 즉 어용으로 소비된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 후술하겠지만 해로를 통해서 당약재를 수입해야 하는 17세기 전반의 일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용뇌 유통의 특성은 조선 후기까지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으로부터의 용뇌 수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조선 조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용뇌에 관심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1618년(광해군 10)에 내의원의 요청에 따라 왜인이 무역하는 용뇌의 품질이 양호하니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하유(下諭)하여 사오도록 조치하였다.<sup>42)</sup> 또한 예전에는 용뇌 등 약재를 왜인이 진상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니 동래부사가 그들을 타일러서 때때로 바치도록 하라고 비밀히 전교하기도 했다.<sup>43)</sup> 1629년(인조 7)에는 일본의 부차(副差) 평지광(平智光)이 철포(鐵砲), 조총(鳥銃), 유황(硫黃) 등과 함께 용뇌를 진상하였고,<sup>44)</sup> 1639년(인조 17) 당약재가 부족하자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왜차(倭差)가 가져오는 약재를 올려 보내도록 지시했다.<sup>45)</sup> 17세기 전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용

---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북경에 보내는 조선 사행과 조선에 오는 명 사행 양쪽에서 모두 용뇌 등 당약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9) 『승정원일기』 인조 3년(1625) 7월 17일 癸亥

40)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윤6월 6일 丙午

41)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8월 27일 己卯. 당시 내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용뇌가 바닥나자, 管嚮使 成俊耆가 보관하고 있는 槲島에서 나온 物化 가운데에서 용뇌를 올려보내도록 조치하였다.

42) 『광해군일기』 10년(1618) 4월 18일

43) 『광해군일기』 10년(1618) 4월 23일

44)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5월 5일 己丑

45)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9월 22일 丙子. 창고의 당약재가 부족하자 왜차(倭差)가 가져오는 약재를 올려 보내라고 경상감사와 동래부사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동래부사는 왜관에서 용뇌 등의 약재를 구입하고 있었고 호조에서 銀價를 지급하고 있었다. 왜관에서 들어오는 용뇌 중에는 품질이 나쁜 것도 있지만, 다음 배에 품질이 좋은 것을 갖추어 보내오도록 값을 쳐서 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아 왜관을 매개로 지속적인 약재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뇌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청과의 관계가 안정된 이후로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중앙정부의 기록에 일본산 용뇌 또는 장뇌에 대한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46)</sup> 같은 시기 일본에서 네덜란드 상인 등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용뇌를 공급받고 있었고, 자국 산 장목(樟木)을 증류하는 장뇌 제조 기술의 개발에 따라 장뇌 생산이 활성화된 것을 감안하면<sup>47)</sup> 의외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왕실이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량은 주로 중국에서 ‘당약(唐藥)’의 일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관한 기록만 집중적으로 남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통용된 분량은 도리어 일본에서 수입된 것으로 그 수요를 충당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대청관계가 안정되면서 용뇌 등 당약재의 수입도 사행을 매개로 하여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대청 교역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대부분 호조(戶曹), 상의원(尙衣院), 내의원(內醫院)을 통해 구입하였고, 정기적인 연행사를 활용하여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용뇌 등 약재의 수입은 내의원이 담당하였다.<sup>48)</sup>

조선후기 『승정원일기』에는 매년 연례로 무역해야 하는 당약재에 대한 보고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용뇌를 비롯한 당약재의 재고량과 무역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요량을 확인할 수 있다. 1년간 내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당약재의 필요량을 파악하고, 다음 사행 전에 용뇌 값을 호조에 지급하고 무역하도록 하는 조치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내의원 관원이 전하는 도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금년에 진상할 납약(臍藥)을 마련하였더니 창고의 부족한 물품의 숫자는 육계(肉桂) 2근 12냥, 서각(犀角) 4근 10냥, 용뇌(龍腦) 1근 5냥, 침향(沈香) 1근, 가자(訶子) 1근 5냥, 목향(木香) 2근, 주사(朱砂) 4근, 백단(白檀) 2근 10냥, 사인(砂仁) 1근, 당황련(唐黃連) 1근, 정향(丁香) 4근, 백두구(白豆蔻) 1근, 육두구(肉豆蔻) 1근 4냥, 계피(桂皮) 1근 10냥, 삼내자(三乃子) 15냥, 감송(甘松) 15냥, 전갈(全蝎) 1근, 석웅황(石雄黃) 10냥입니다. 우황(牛黃)은 연례적으로 마련하는 수가 77부(部)이고 더 보태는 수가 22부입니다. 모두 해당 조로 하여금 속히 진배(進排)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sup>49)</sup>

46) 일본의 용뇌 무역에 대해서는 효종대 네덜란드인 하멜이 제주도에 난파하였을 때, 배에 용뇌와 倭銀가 실려 있었다는 정도의 기록 외에는 조선의 사료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효종실록』 4년(1653) 8월 6일 戊辰 ; 柳得恭(1748~1807), 『고운당필기』, 2권, 西洋番人 등 참조.

47) 이에 대해서는 본고 3장에서 상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48) 이들 세 기관은 『度支志』에 정기적으로 청의 物貨를 買入하는 정부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고(李弘斗, 17세기 對淸交易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81, 1998 ; 金廷美, 「朝鮮後期 對淸貿易의 전개와 貿易收稅制의 시행」, 『韓國史論』 3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정기 연행사가 연례적으로 상의원과 내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구입해 왔음은 지적하였다.(이철성, 「조선후기 연행무역과 수출입 품목」, 『韓國實學研究』 20, 2010)

49) 『승정원일기』 영조 1년(1725) 10월 2일 丙寅, “又以內醫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今年進上臍藥磨鍊, 則庫中不足之數, 肉桂二斤十二兩, 犀角四斤十兩, 龍腦一斤五兩, 沈香一斤, 訶子一斤五兩, 木香二斤, 朱砂四斤, 白檀二斤十兩, 砂仁一斤, 唐黃連一斤, 丁香四斤, 白豆蔻一斤, 肉豆蔻一斤四兩, 桂皮一斤十

위 기사에서 보이듯이 당약재 중 상당량은 납약(臘藥)을 조제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납제(臘劑)'라고 하며 세시풍속에 따라 납일(臘日), 곧 설달 그믐날에 상비약으로 나누어 주던 납약을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sup>50)</sup> 조선 조정에서는 신하들에게 이 납약을 의례적으로 나누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대량의 약재 확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51)</sup> 또한 납약 중에는 용뇌안신환(龍腦安神丸) 등 용뇌가 함유된 것이 다수 있었기에 납약의 조제는 곧 용뇌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조선후기 내의원이 주도한 당약재 연례 무역은 용뇌가 포함된 것만 집계하면, 1661년(현종 2)부터 1779년(정조 3)까지 100년이 넘게 장기적으로 확인된다.<sup>52)</sup> 이를 [부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용뇌 이외에도 황련(黃連), 호박(琥珀), 무공주(無孔珠), 주사(朱砂), 석웅황(石雄黃), 진주(眞珠), 녹용(鹿茸), 사향(麝香), 육계(肉桂), 서각(犀角), 소합유(蘇合油) 등 의례적으로 '연무(燕窩)'의 대상이 된 다양한 당약재가 함께 거론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재 구입 비용은 호조에서 지급하고, 구입한 약재를 입수하여 약품으로 사용하는 관청은 내의원이었는데, 국왕과 왕실 가족을 위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납약을 조제하는 목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결제수단 또한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은(銀)이었다. 호조에서 지급한 은은 사행에서 돌아온 뒤에 회감(會減)하기로 되어 있었고, 평안감사(平安監司)와 의주부윤(義州府尹) 등이 마련한 관향은자(管餉銀子)<sup>53)</sup>를 사용하기도 했다. 용뇌의 진위 판별을 위해서 어의가 사행에 동행하여 직접 선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고급품을 얻기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납월(臘月)의 납약 조제를 위해서 필요한 당약재에 대해서도 내의원에서는 10~11월경에 관례적으로 보고하고 부족량에 대해서 호조에서 보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용뇌가 표함된 기사도 [부표]에 수록되어 있는데, 약재 부족량을 내의원에서 보고하고, 호조가 전례에 따라서 부족분을 무역해서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납약을 지으면

兩, 三乃子十五兩, 甘松十五兩, 全蝎一斤, 石雄黃十兩, 牛黃則年例七十七部及加數二十二部, 竝令該曹, 卽速進排, 何如? 傳曰, 允. ”

50) 臘藥의 풍습은 다양한 세시기 서적에서 확인되며, 왕실과 일반백성에게까지 깊숙이 자리잡은 절일인 납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사회적 기능까지 있었다고 한다. 서금석, 「조선후기 납일 풍속 양상과 소멸 과정에 대한 검토」, 『歷史學研究』 63, 2016 참조.

51) 臘藥을 나누어 주는 관행은 매우 뿌리 깊은 편이었다. 고려시대에도 팔관회나 연등회에서 후대의 납약과 비슷한 封藥을 하사하여 약재를 유통시켰고 납약과 유사하게 상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이경록, 『고려시대 의료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10, 227쪽) 이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는데, 16~17세기 인물인 許筠(1569~1618)의 문집에도 臘劑에 용뇌가 사용되었다는 언급이 있다.(『惺所覆瓿藁』 2권, 詩賦 2, 秋官錄, 「驛樓에서 臘劑를 감시하다」에 '값진 약재 용뇌 사향 기운이 분방한데(珍劑龍腦麝氣芬芳)', '봄 파로 물을 들인 용뇌 사향 구경했네(愛賞春蔥染腦香)와 같은 구절이 있다.

52) 본고는 '龍腦'의 필요량이 거론된 사례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를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53) 관향은자는 管運餉銀子라고도 언급되어 있는데, 管運餉은 管餉使와 運餉使를 합쳐서 부르는 말로서 관향사는 국경을 방비하는 군인에게 군량을 지급하는 관리로 平安道觀察使가 겸임하였고, 운향사는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관장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된 관리로 주로 義州府尹이 겸임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평안감사와 의주부윤에게 분부한 것은 바로 이들이 지방재정을 덜어내어 의관이 지참할 은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서 대비전, 세자궁 등을 공상(供上)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기도 했고, 1743년(영조 19) 이후에는 호조 이외에 선혜청도 부족분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였다.

용뇌 등 약재 수입으로 인한 은(銀)의 지출은 국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조 초년인 1728년(영조 4)의 기록에 따르면 호조의 1년 은화 수입은 2,000냥 이내인데, 지출은 7,311냥에 달했고 그 중 내의원에서 사들인 '납약우황은가(臘藥牛黃銀價)', '당약재은가(唐藥材銀價)' 등 중국산 약재의 값만으로도 4,460냥이 달하여 수입액을 상회하였다. 약재 구입 비용 4,460냥 중 '용뇌은가(龍腦銀價)'는 95냥으로서 큰 비중은 아니었다. 당약재로 막대한 은을 지출하다보니 4~5년 전 14만 냥이었던 은 보유량이 6만여 냥으로 감소하였다고 한다.<sup>54)</sup> 약재의 국제 교역에서 은이 주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용뇌가 은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교역품 중 하나였던 상황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재난고(頤齋亂藁)』에 산학(算學) 문제의 예시로 인삼(人蔘), 우황(牛黃), 용뇌(龍腦)를 은으로 교환하는 계산식을 제시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sup>55)</sup>

내의원에서는 납약에 들어갈 당약재 물량 확보를 위해서 '납자(納者)'로 지칭되는 민간의 공납(貢納) 책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629년(인조 7) 진상할 납제에 들어갈 당약재(용뇌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납자(納者) 헌언협(韓彦協)과 홍경준(洪慶俊)을 독촉하였는데,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일족의 우두머리를 가두기도 하였다.<sup>56)</sup> 1632년(인조 10) 내의원은 약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의원(醫員) 김영길(金永吉)과 의관(醫官) 최원립(崔元立)·홍경준(洪慶俊)을 수금(囚禁)하고 독촉하였다. '부경약재(赴京藥材)'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호조로 하여금 두 배 값으로 다시 징수하게 하는 것이 규례였는데, 이번에도 값을 징수하여 바꾸어 사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sup>57)</sup> 1632년도 기사에 의관으로 나오는 홍경준이 1629년도 기사에 납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관들이 납자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부경약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의관들이 사행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구입한 약재를 귀국 후 내의원에 납부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1633년(인조 11)에도 납자 이시찬(李時燦), 배요립(裴堯立), 김언심(金彦深), 강정원(姜廷元) 등이 용뇌 등 약재를 봉납하지 않아서 이들을 수금하고 독촉한 사건이 있었다. 납약 조제 기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사와야 할 5냥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강정원은 값을 마련하여 납부하고 싶지만 옥중에 있어 주선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sup>58)</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 주로 의관(醫官) 등 의약품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

54) 호조에서 비축하고 있는 銀의 양과 內局의 당약재 및 용뇌 구입 가격에 대해서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10월 9일 丙戌 기사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비변사등록』 영조 4년(1728) 10월 9일 기사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 기사는 대청 무역에 대한 다음 연구에서도 인용한 바 있다. 金廷美, 앞 논문 ; 유승주·이철성,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2002.

55) 『頤齋亂藁』, 권14, 庚寅年(1770) 3월 17일 甲午, “今有人蔘一兩價 銀十兩 牛黃一兩價 銀八兩 龍腦一兩價 銀六兩 欲似銀七兩 買參黃腦三色 共一兩 問各該若干 三率分身” 이를 통해 당시 은으로 거래되는 대표적인 약재로 인삼, 우황, 용뇌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6)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9) 12월 3일 癸丑

57) 『승정원일기』 인조 10년(1632) 3월 13일 庚戌. 이를 통해 사행시에 의관이 약재를 사와서 납부하던지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돈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는 이들이 납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燕行使를 통해서 약을 구하여 내의원에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일이 지날 경우 본인이나 족인이 감금되었는데, 값을 징수하여 국내의 시장에서 납부할 약재를 구입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납자와 그들에게 가해진 독촉에 대한 기록은 인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시기 명청 교체로 인한 당약재 수급의 불안정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의 입관(入關) 이후인 1653년(효종 4)까지도 납약을 짓는데 용뇌가 부족하여 당재를 무역하고 미납한 자에게 징수하자는 논의가 확인된다.<sup>59)</sup> 한편 용뇌를 자진해서 바친 자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는데, 1637년(인조 15)에는 용뇌를 찾아서 들여온 하인(下人)을 내의원에서 논상하도록 하고,<sup>60)</sup> 같은 해 의원(醫員) 오이건(吳以建)이 용뇌 등 당재 6종을 바치자 전라감영의 심약(審藥) 자리를 전례에 따라 차송(差送)하도록 하였다.<sup>61)</sup>

18세기 영조대에 이르면 내의원의 납제(臘劑)에 필요한 용뇌 등 납약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역관(譯官)과 함께 양의사(兩醫司: 典醫監과 惠民署)에 소속된 공물주인(貢物主人)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청 사행원에 포함된 역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관은(官銀)을 제공 받아 무역 자본을 확보했고, 국가기관도 관은을 대출해 주면서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재원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62)</sup> 또한 공인들은 18세기 이후 전의감과 혜민서에 소속된 관리인 심약(審藥)과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거나, 대청 무역에 참여하여 고가의 약재와 당약재 등을 무역하고 치부하는 활동도 전개하였다.<sup>63)</sup>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1724년(영조 즉위)에는 전년도 동지사행(冬至使行) 때 역관 김익해(金益海)가 호조로부터 값을 받아가지고 들어가 용뇌를 구매하여 그의 집에 두었고 호조의 간품(看品)까지 받았으나 실물을 납입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내의원의 납약에 들어가는 용뇌는 보통 호조에서 진배(進排)하는데, 사행 때 상거래가 허용된 역관에게 값에 해당하는 은을 미리 내준 다음 구매해서 납부하게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담당 역관의 납입 미수로 인해서 내의원의 용뇌가 바닥나버리자, 이번에

58) 『승정원일기』 인조 11년(1633) 10월 24일 癸未. 이때 납약을 조제할 기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른 약재는 비축분이 있으나 용뇌는 중국에서 사오는 수량 자체가 많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었다.

59)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25일 丁巳. 같은 기사에서 제주 용뇌가 올라왔으니 내의원으로 이송하여 和劑하는 데 쓰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국내산 용뇌를 찾을 정도로 용뇌의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0)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2월 10일 庚辰

61)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4월 20일 己丑. 吳以建 이름 앞의 직함이 '□員'으로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審藥 관직을 내려준 것으로 보아 '醫員'일 것으로 생각되며, 『醫科榜目』에 1630년(인조 8) 식년시에 합격한 인물로 1599년생에 출생한 吳以建이 확인되는데 동일인으로 보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참조: [people.aks.ac.kr](http://people.aks.ac.kr))

62) 김영록, 「17~18세기 대청 사행의 중계무역과 價債廳」, 『한국민족문화』 63, 2017. 역관이 각종 직물류, 장신구, 문구, 보석, 장식품, 차, 담배, 향 등 다양한 물품을 대청 무역을 통해 들여왔음은 金奉佐, 「譯官의 對淸貿易 관계 件記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90, 2019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63) 金澐, 「16세기 후반 京·鄕의 의료 환경: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大丘史學』 64, 2001 ; 김동철, 『조선 후기 공인 연구』, 한국연구원, 1993, 225~213쪽 ; 허재혜, 「18세기 의관의 경제적 활동 양상」, 『한국사연구』 71, 1990, 108~110쪽

는 양의사의 공물주인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약재 가게[藥肆]의 용뇌도 떨어져 공인(貢人)들은 세 배의 가격으로도 구매하지 못했다고 한다.<sup>64)</sup> 청에서 조선으로 수입되는 용뇌 중에 관에는 납부하는 분량 이외에도 시중의 약재상들에 의해 유통되는 분량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이후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지정된 공인들이 왕실용 진상품과 각관사용 공납품을 공급하도록 법제화되어 공인들이 어용 약재를 조달하고 있었던 상황을 잘 반영하며,<sup>65)</sup> 용뇌도 이들이 취급하는 약재 중 하나였던 것이다.

영조 재위 말기인 1772년(영조 48)에는 용뇌 등 당약재의 별무(別貢)와 은가(銀價) 문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사에서도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납품하는 공인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호조는 연례적으로 당재은가(唐材銀價)를 2천~3천 냥 정도 내놓고 있었는데, 내의원은 연례적인 은가를 내세우면서 공인에게 책벌(責罰)을 가하여 가무(加貢)하였고, 은가를 다 쓰고 나면 무역계(貿易契)로부터 받아내는 폐단이 있었다고 한다.<sup>66)</sup> 여기서 무역계는 무역을 맡은 공인들의 공동 조직이며, 호조는 이러한 계를 통해서 당약재의 공납을 관리하고 있었다. 19세기 당약재계인(唐藥材契人)의 청원에 따라 당약재 공납을 변통한 절목인 『당약재계변통절목(唐藥材契變通節目)』(1856년)에 따르면, 어용(御用) 당약재를 상납하는 공인계(貢人契)로서 ‘당약재계(唐藥材契)’가 있었는데 호조에 소속되었다. 당약재계인은 호조에서 은가를 받아서 부연사행(赴燕使行)을 통해 당약재를 구입하고 있었는데, 북경(北京)에서 당약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수가(受價)와 시가(時價)와의 차이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다고 한다.<sup>67)</sup> 『만기요람(萬機要覽)』에도 호조 공물에 대한 별무공가(別貢貢價)가 정리되어 있는데, 1778년(정조 2) 각전계(各廳契) 별무(別貢) 내용 중에 당약재계의 절가(折價)가 2,091냥으로 기재되어 있다.<sup>68)</sup> 상인 조직인 계에서 정례적으로 당약재를 공물로 납품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용뇌를 포함한 당약재를 납품하는 책무를 가진 부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17세기에는 주로 납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18세기 이후로는 당약재 납품을 전담하는 공인들이 계를 조직하며 용뇌를 납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듯 용뇌 등 약재의 무역과 납품에는 상인 계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역관과 의관이 이권에 개입하였다.

다음으로 약재 가격은 호조에서 은으로 미리 지불하였고 연행 중에 약재를 사들여 내의원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약재 무역은 호조의 은 보유량을 격감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도 했다. 당약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 못할 경우 다음 사행을 기다리기에 앞서 시중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국가의 당약재 확보 과정에서 확인되는 용뇌의 수입과 유통은 모두 국가의 공적인

64)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1월 17일 丁巳 ; 『승정원일기』 영조 즉위년(1724) 12월 1일 庚午

65) 김경미,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大丘史學』 119, 2015

66) 『승정원일기』 영조 48년(1772) 12월 14일 甲戌

67) 『唐藥材契變通節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9337) 및 규장각 제공 解題 참고

68) 『萬機要覽』, 財用編 3, 戶曹貢物, 「別貢一年貢價」, “正宗戊戌年 各廳契別貢 ... 唐藥材契 ... 唐藥材契. 龍腦, 小腦, 甘松, 零陵, 沉束, 葦草, 八角, 丁香, 三乃子, 白檀, 沈香等價折錢二千九十一兩”

소용(所用)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의 수요를 위해서 사적으로 외국에서 용뇌를 사들인 기록은 본고에서 검토한 사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1799년(정조 23)의 한 연행록(燕行錄)에 따르면 백간점(白礪店) 부근의 동락사(同樂寺)라는 절에서 역관과 하인이 용뇌 성분이 들어간 안질약(眼疾藥)을 많이 구입하였고, 이곳의 약은 거의 조선 사람에게만 판매되었는데 의주(義州) 상고(商賈)가 그 이익을 독차지하였다고 한다.<sup>69)</sup> 이 사례를 통해 용뇌 또는 그 가공품이 민간의 수요를 위한 사무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조선에서 사용된 용뇌의 종류와 특징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조선 정부는 용뇌를 꾸준히 필요로 하였고 이를 중국과 일본을 경유한 대외무역을 통해서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원산지는 어디였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앞서 머리말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용뇌의 유사품이자 대체품인 장뇌가 있었고 생산지는 오히려 조선에서 가까운 중국과 일본에서도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살펴본 조선측의 사료에서는 거의 용뇌만이 거론된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용뇌라는 이름으로 주로 지칭되던 약재는 정말로 용뇌였는지, 혹시 실제로는 장뇌에 해당하는 물품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용뇌의 영어 명칭 camphor(캠퍼)는 범어(梵語) kampura에서 온 이름이며, 용뇌 주산지인 수마트라 남부 해안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며, 중국에서는 이를 음역하여 羯布羅라고 했다. 인도 각지를 여행한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갈포라향수의 수지가 곧 용뇌향이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유래한 용뇌를 지칭할 때 ‘갈포라향’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다.<sup>70)</sup>

그 후 귀중하다는 의미의 ‘龍’ 자를 붙인 용뇌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었고, 그 밖에 무색 투명한 결정 형태로 반짝이는 얼음과 같다는 뜻으로 빙편뇌(冰片腦)라 불렀고, 매화 꽃잎 같다고 하여 매화뇌(梅花腦)라는 명칭도 통용되었으며, 그 밖에 매편(梅片), 뇌자(腦子), 미뇌(米腦), 속뇌(速腦), 금각뇌(金脚腦), 창룡뇌(蒼龍腦) 등의 이름도 있었다. 이런 명칭은 주로 용뇌를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장뇌 또한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품이었기 때문에 같은 용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쓰이기도 하였다. 특히 영어명 camphor는 용뇌와 장뇌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굳이 구분하려 할 때도 지역명을 덧붙이는 정도로 구별하였다.

용뇌와 장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료 식물과 제조법이었다. 용뇌는 보르네오 섬, 수마트라 섬 등 열대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용뇌수(龍腦樹)의 수간(樹幹)에서 흘러 나오는 수지(樹脂)를 굳혀서 얻는다. 장뇌는 녹나무 또는 장수(樟樹)의 목질부, 가지,

69) 『戊午燕行錄』 제6권, 己未年(1799, 정조 23) 2월 10일

70) 이하 중국과 일본에서 용뇌 및 장뇌의 원료와 제조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宮下三郎, 앞 논문 ; 山田憲太郎, 앞의 책 참조

잎을 절단하여 수증기를 증류하여 얻은 장뇌유(樟腦油)를 냉각시켜 결정체를 석출(析出)시켜 얻는다. 약효 성분도 차이가 있어서 용뇌에는 보르네올(borneol)이, 장뇌에는 캄퍼(camphor)가 함유되어 있다.

장뇌의 원료인 녹나무는 중국 장강(長江) 이남이나 일본 남부의 규슈(九州) 등 온대 및 아열대 지역에도 생장하기 때문에 그 주된 소비처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의 입장에서 보자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무의 조각을 수증기로 증류하고 승화시켜야 하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뇌는 용뇌에 비해서 생산 기술의 발달이 늦게 이루어진 편이었다.

중국에서는 남송말에서 원대에 해당하는 12~13세기경에 '남해(南海)'에서 나는 용뇌의 대용품으로 화중(華中)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장수(樟樹)를 물과 함께 불에 때서 그 뇌분(腦分)을 승화시켜 장뇌를 얻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장뇌가 중국의 본초서에 처음 출현하는 것은 1505년의 『본초품휘정요(本草品彙精要)』였을 정도로 비교적 뒤늦게 출현한 약물이었다. 송대와 원대의 자료에는 조뇌(潮腦), 소뇌(韶腦), 장뇌(漳腦) 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름의 유래가 된 조주(潮州), 소주(韶州)는 광동성(廣東省), 장주(漳州)는 복건성(福建省)으로 어느 곳이나 장뇌의 산지였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 장뇌의 원료인 장재(樟材)가 생산되었고, 명대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의 서적에서도 승화시켜 정제하는 등의 제조법을 소개하였다.

일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녹나무로부터 장뇌를 제조하게 되어 16세기 후반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 용뇌의 대용품으로서 일본산 장뇌의 별칭인 '화용뇌(和龍腦)'를 생산하는 장뇌의 가공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여, 수입품인 용뇌와 달리 장뇌는 일본의 중요 수출품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에서 장뇌 제조법이 창시된 것은 17세기 전반인 관영(寬永) 연간(1624~1643)이었는데, 조선인 정종관(鄭宗寬)으로부터 전수 받아 만든 '소소발(素燒鉢)'을 사용하여 녹나무 조각에 불을 때서 발내(鉢內)에 장뇌가 부착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고 전해진다. 이 방식은 에도시대 말기까지 장뇌 제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중국의 송대 말기부터 원·명대까지 행해진 제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조선에서 유래한 소소발은 장뇌의 수득(收得) 효율을 높여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sup>71)</sup> 『화한삼재도회』에서는 『본초강목』의 제조법을 초록하였고, 平瀨徹齋이 1754년에 지은 『일본산해명물도회(日本山海名物圖會)』에는 『본초품휘정요』에 기술한 승화법을 도시(圖示)해 놓은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유래한 제조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장뇌의 주된 생산지는 규슈 남부의 薩摩 등지였는데, 중국 민월(閩粵) 지역의 장뇌보다 뇌분(腦分)의 승화율(昇華率)이 높아서 더 생산 효율이 높았던 데다가, 남벌(濫伐)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었던 중국의 장뇌를 대체하여 17세기 초에 급속히 생산량이 늘어났다. 17세기 이후로 일본의 장뇌는 네덜란드 선박을 통해서 유럽 등지로 많은 양을 수출하여 큰 이익을 내고 있었다.

71) 山田憲太郎은 녹나무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조선에서 장뇌 제조법이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정종관이 제작한 용기가 장뇌의 승화 공정에 사용하기 적합하여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19세기 이후로는 土佐式 제조법의 개발로 일본의 장뇌 제조 기술에 더 큰 진보가 있었고, 화학공업의 발달로 합성수지와 화약의 원료로도 장뇌의 용도가 확대되었다. 그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서 원재료인 녹나무가 점차 고갈되어 가면서, 대만이 새로운 장뇌 생산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sup>72)</sup>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장뇌에 추가적인 공정을 통해서 용뇌를 합성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전근대에는 가격과 품질에 차이가 있는 유사품으로서 고급품과 저급품으로 차등화되어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은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용뇌를 수입하였는데,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조선측의 사료에는 거의 ‘용뇌’라는 명칭만이 눈에 띈다. ‘용뇌’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 약재가 모두 실제로 용뇌였다면, 조선에서는 중국과 일본에서 자체 생산 가능한 ‘장뇌’가 아닌 남방의 열대지방에서 생산되는 ‘용뇌’를 수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용뇌는 중국에 있어서 남방의 여러 나라로부터 정례적인 조공품 또는 교역품으로 받아들이는 물품 중 하나였고,<sup>73)</sup> 일본에서 들어오는 용뇌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유래한 ‘남방물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sup>74)</sup> 그런데 조선에서는 직접 교역한 상대국과 물량만을 의식할 뿐 그 원산지가 어디인지까지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리학적 건문의 차원에서 조선의 문헌에서 용뇌의 원산지를 소개한 사례는 있는데, 그러한 지역으로 섬라(暹羅), 남천축(南天竺), 발니도(渤泥島), 교지(交趾) 등이 언급되었다.

현재의 태국에 해당하는 섬라의 경우 중국 청조에 올린 공물이 주로 언급되는데,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조선 사신의 여행일기 등에 섬라국이 표문과 함께 황제에게 빙편(氷片)과 장뇌(樟腦) 등을 방물(方物)로서 바쳤다는 사실을 전했다.<sup>75)</sup> 여기서 빙편은 중빙편(中氷片), 빙편유(氷片油) 등의 용어로도 지칭되는데 용뇌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장뇌아(樟腦兒)로도 지칭되는 장뇌와는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남천축 안의 작은 나라인 태니(太泥: 말레이반도에 있었던 파타니 왕국으로 추정)의 토산물 중에 빙편(氷片)이 있었고,<sup>76)</sup> 지금의 보르네오섬인 발니도(渤泥島)에서 ‘편뇌(片腦)’가 나며,<sup>77)</sup> 교지(交趾: 베트남 북부)에서 당대(唐代)부터 ‘서룡뇌향(瑞龍腦香)’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다.<sup>78)</sup> 이들 지역은 모두 동남아시아 일대에 해당하면

72) 文明基, 「臺灣 建省時期(1886~1891) 劉銘傳의 재원확보 노력과 대외교섭 -釐金 개혁과 樟腦 전매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27, 2007

73) 『宋史』에 占城의 왕이 龍腦 2근을 바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용뇌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물로서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바다를 통한 교역로를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희정, 앞의 글 참조

74) 『(신편)한국사』 22(조선양조의 성립과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397쪽

75) 『정조실록』 9년(1785) 2월 14일 갑오 ; 『戊午燕行錄』 3권, 무오년(1798, 정조 22) 12월 28일 ; 『심전고』 2권, 유관잡록, 諸國 ; 『일성록』 순조 8년 무진(1808) 3월 20일 丙辰

76) 『청장관전서』 65권, 「蜻蛉國志」 2, 異國

77) 『北轅錄』 5권, 1761년(영조 37) 6일(丙子)

78) 중국 唐代 문헌인 「楊妃外傳」에서 ‘교지에서 瑞龍腦香을 진상하였는데 모양이 蟬蠶과 같으니 늙은 龍腦樹의 마디라야 있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東國李相國集』 4권 序, 「瑞龍腦」에서도 이를 인용하였고, 李睟光이 『芝峯集』 8권,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에 실린 安南國 使臣에게 준 시의 한 구절인 “땅은 영기를 뿜으니 용향이 생산되도다(地蒸靈氣產龍香)”에 대하여, 『芝峯類說』에서 설명하면서 또 인용하였다.

서 용뇌의 생산지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장뇌’의 생산지는 섬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언급되지 않았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 효종대에 용뇌가 부족하자 제주도의 용뇌를 이송하여 화제(和劑)하는 데에 쓰자는 제안이 있었으나,<sup>79)</sup> 이 밖에는 조선 자국산 용뇌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을 수 없다. 한국 남부에서는 장뇌의 원료인 장수(樟樹), 즉 녹나무는 있을 수 있지만 용뇌의 원료는 용뇌수(龍腦樹)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효종실록』에 언급된 제주도산 용뇌는 실은 장뇌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주목사 이형상(李衡祥)이 지은 제주도의 본초서(本草書)인 『지약(誌藥)』에는 제주에 자생하는 다양한 향재(香材)에 주목하면서 용뇌향을 대체할 노목(櫨木)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sup>80)</sup> 이를 통해 제주도에 소량의 장뇌가 생산되기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용뇌의 원산지는 열대 동남아시아였고, 조선 국내에서는 장뇌만이 제주도에 서 소량 생산되었을 뿐이었다. 조선에서는 용뇌 생산지인 동남아시아와 직교역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므로 수입 대상인 중국과 일본에서 원산지나 원료 식물을 명확히 밝혀 주거나 또는 조선 측에서 자체적으로 용뇌와 장뇌의 품질이나 특성을 인지하고 감별해내지 못했다면, 용뇌와 장뇌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뇌 혹은 캄퍼(camphor)와 그 동계어휘(同系語彙)들이 용뇌와 장뇌를 크게 구별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지칭하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더욱 두 약재 간의 혼동이 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도 생산지와 가공방식이 다른 두 종류의 물품, 용뇌와 장뇌를 구별하고 있었다. 장뇌는 그 성상(性狀)이나 약성(藥性)이 용뇌와 유사하다는 대응품이라는 특성이 있다. 조선의 사료에는 용뇌의 유사품 또는 대응품이라 할 수 있는 ‘소뇌(小腦)’가 언급되어 있다. 예컨대 1440년(세종 22)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각사(各司)와 시정(市井)의 무리들이 쉽게 소합원(蘇合元)과 보명단(保命丹)을 제조하면서 용뇌를 얻지 못하면 소뇌를 사용하여 약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약성을 잃게 되고 본방(本方)에 어긋나서 유해하다는 언급이 보인다.<sup>81)</sup> 용뇌의 물량이 부족할 경우 대체품인 소뇌를 대신 사용하지만, 본래의 용뇌보다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 한의학서의 설명에 따르면 소뇌는 녹나무의 목부(木部), 가지, 잎 등을 잘라 증류하여 얻은 장뇌유(樟腦油)를 냉각시켜 얻은 결정체인 장뇌와 같은 물품이며,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자생하는 용뇌수에서 산출되는 용뇌와는 구별된다고 한다.<sup>82)</sup> 소뇌는 곧 용뇌와 구별되는 장뇌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소뇌를 용뇌와 구별하여 인식한 사례는 더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성종대의 저술 『용재총화(慵齋叢話)』에도 ‘주사(朱砂: 황화 수은)와 웅황(雄黃: 황화 비소)이 비슷한 것처럼, 소뇌(消腦)와 용뇌가 비슷하다’고 했는데,<sup>83)</sup> ‘消腦’는 小腦의 다른 표기인 것으

79) 『승정원일기』 효종 4년(1653) 11월 25일 丁巳

80) 김호, 「조선시대 제주의 주변성과 의료」, 『한국학연구』 59, 2020

81) 『세종실록』 22년(1440) 11월 22일

82) 하수민, 「조선 왕실 가례의 부용향(芙蓉香) 연구 -『순조순원왕후가례도감의궤』를 중심으로-」, 『문화재』 vol.52, no.9, 2019, 229~230쪽

83) 『慵齋叢話』 7권

로 보인다. 19세기 조선의 유사(類書)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도 ‘용뇌’로 알려진 물품 중에 진짜와 가짜가 많아서 구별이 어려운데, 서양 선박에서 온 것을 진짜 용뇌로 믿을 수 있으며 이를 ‘빙편(氷片)’이라 부르고, 소뇌(韶腦) 또는 소뇌(小腦)라고 불리는 약재가 장뇌라고 하였다. 덧붙여 장뇌의 제조법에 대하여 장목(樟木)을 성편(切片)하고 승뇌(升腦) 및 연뇌(鍊腦) 과정을 거쳐 성편(成片)한다고 설명하여,<sup>84)</sup> 용뇌와 장뇌 사이의 제조법 차이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왜관을 통한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용뇌와 소뇌는 구분되었던 것 같다. 예조(禮曹)에서 편찬한 『동래부 접왜장계등록 가고사목초록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抄錄冊)』<sup>85)</sup>에 따르면 왜관(倭館)에 구청(求請)한 물품 목록 중에 용뇌와 소뇌(小腦)가 함께 보인다. 이는 앞 장에서 보았듯이 조선 세종대 일본 측에서 헌상한 물품 중에서 용뇌와 장뇌가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제시한 두 표 [표 1]과 [표 2]를 종합해 보면, 용뇌보다 장뇌의 현상 빈도가 더 잦고, 물량의 단위도 용뇌가 주로 ‘냥중(兩重)’인데 비하여 장뇌는 ‘근(斤)’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상 1근(斤)이 16냥(兩)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뇌 쪽이 훨씬 큰 단위로 유통되었고 그만큼 흔하고 저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두 표에는 원도진(源道鎭)과 평만경(平滿景)처럼 동일인의 현상에 용뇌와 장뇌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두 용어는 같은 물품의 이칭(異稱)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물품이었음이 분명하다.

조선후기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로 한 여러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정리한 『탁지준절(度支準折)』<sup>86)</sup>에는 소뇌(小腦)와 용뇌(龍腦)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용뇌 1근의 값은 100냥, 소뇌 1근의 값은 1냥이어서 두 약재의 가치에 1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59년의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에도 옥책문(玉冊文)의 장책(粧冊)에 들어가는 물품으로 용뇌(龍腦) 3푼[分], 소뇌(小腦) 1돈[錢]이 사용되었고 기록되어 있는데, 1돈이 10푼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양자의 용도나 효과가 대등하다고 가정할 때 소뇌가 더 큰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품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는 장뇌의 생산지이자 용뇌의 수입국인 일본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18세기 일본의 사츠마(薩摩)와 五島에서 제조한 장뇌는 매우 값이 싸서 80~100근이 보르네오 천연 용뇌 1근의 가격과 같을 정도였다고 한다.<sup>87)</sup>

소뇌 또는 장뇌와 같이 용뇌의 저렴한 대응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국과 일본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바 있다. 중국 명대의 본초학자 이시진(李時珍)은 장뇌를 용뇌에 혼합하여 양을 늘린 바 있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천연의 용뇌수로부터 결정 상태의 용뇌를 채취한 뒤에 남은 목재 조각을 건류(乾溜)하여 만든 ‘편뇌(片腦)’가 소개

84)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香油, 「沈腦辨證說」. 같은 책의 人事篇, 技藝類, 「白顏滅癩香身辨證說」에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小腦와 龍腦를 별도의 약재로 구별해서 기재해 놓았다.

8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貴 9764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古5127-3

87) 山田憲太郎, 앞의 책

되어 있다. 1713년에 편찬된 일본의 유사(類書)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에는 장뇌를 한 번 더 구워서 정제하여 '반뇌(反腦)'라는 것을 만든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sup>88)</sup>

이렇게 저비용으로 용뇌의 효능을 모방하려는 물품이 고안되어 왔기 때문인지, 용뇌의 품질이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조선시대 전시기를 걸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적인 소용을 위해 충당된 용뇌의 경우 더욱 이러한 문제에 민감했다. 조선 초기부터 용뇌의 진품을 얻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는데, 앞 장에서 지적했듯이 1481년(성종 12) 한명회가 특별히 부탁하여 황제가 내탕으로 내려준 진품으로 받아온 사례가 대표적이다.<sup>89)</sup> 또 16세기 저술인 『패관잡기(裨官雜記)』에는 당시 의원들이 '뇌자(腦子)'라고 불리던 약재를 용뇌로 알고 있었으나, 1533년(중종 28) 연경(燕京)에서 태의(太醫) 강우(江宇)에게 물어 뇌자를 보여달라고 하니 실은 붉은 빛이 나는 비상(砒礪)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sup>90)</sup> 인조대에도 명의 사신 일행이 발매한 용뇌를 간품(看品)하여 적합한 경우만 어용(御用)에 쓰도록 하였다.<sup>91)</sup> 용뇌 이외에도 소합유, 곽향(藿香), 독활(獨活), 유향(乳香), 사향 같은 물품에는 가짜가 많았고, 북경의 회동관개시(會同館開市)에서도 가짜 약재가 유통되었기에 조선전기부터 사신이 북경에 갈 때마다 의관을 함께 보내어 살펴본 뒤에 가지고 오도록 조치하였다.<sup>92)</sup>

특히 16~17세기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용뇌 중에서 저급품 논란이 종종 발생한 것이 주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522년(중종 17) 내섬시(內贍寺)의 종이 왜인(倭人)의 방수(房守)로서 용뇌 등의 물품을 속여서 진상한 일이 있었다.<sup>93)</sup> 1639년(인조 17)에는 동래부사가 왜관에서 은을 주고 사서 올려 보낸 용뇌 등 약재가 도착했는데 품질이 나쁜 것이 섞여 있었다. 같은 해 12월에도 전년도 납제(臘劑) 때 지은 것 중에서 용뇌가 들어간 약의 맛이 다르다는 왕의 하교가 있어서 내의원 관원들이 두려워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중국산 용뇌의 수급 불안정으로 내의원에서는 부산에서 사오는 용뇌에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sup>94)</sup> 일본산 용뇌에 대하여 이처럼 의혹이 제기된 것은, 연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급품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조선에서 소비되던 기존의 '용뇌'와 차별화되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장뇌'가 들어왔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용뇌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조선후기 청과의 사행 무역이 안정화된 뒤에도 용뇌는 진품을 구하기 어려운 약재라는 이유로 어의가 동행하여 구입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1720년(경종 즉위) 실록을 보면 용뇌 이외에도 황련(黃連), 주사(朱砂), 석웅황(石雄黃), 진주(眞珠) 등이 모두 요긴한 약재로 진품을 구하기 어려우니 사행에 어의가 들어가 정밀히 택하여 사오도록 조치해야 했는데,<sup>95)</sup> 본고의 [부표]에도 어의(御醫)가 사행에 동행하여 당약재를 선별하여

88) 山田憲太郎, 앞의 책 ; 宮下三郎, 앞 논문

89) 『성종실록』 12년 4월 19일 계해

90) 『大東野乘』, 「裨官雜記」 4

91) 『승정원일기』, 1625년(인조 3) 7월 13일 己未

92) 구도영, 앞의 책

93) 『중종실록』 17년(1522) 1월 20일 무진

94) 『승정원일기』 인조 17년(1639) 12월 18일 庚子

사도록 조치한 예가 다수 확인된다. 1736년(영조 12)에도 당시 내국(內局)의 용뇌는 향이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진품이 아니라는 신료의 지적이 있었다.<sup>95)</sup> 19세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당시 백용뇌(白龍腦)라는 것이 있었는데, 벽토박하(壁土薄荷)를 쓰는 까닭에 토기(土氣)가 많아서 냄새가 진뇌(眞腦)와 달랐고 이를 거짓으로 편뇌(片腦)에 충당한다고 하였다.<sup>97)</sup>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용뇌는 유사한 용도와 효능이 있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는 장뇌와 함께 유통되고 있었고, 전자는 빙편(氷片), 편뇌(片腦)<sup>98)</sup> 등으로, 후자는 소뇌(小腦), 소뇌(昭腦) 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실과 정부에서는 전자의 용뇌를 '진품'으로 여기고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용뇌의 진위가 논란이 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용뇌의 수입처는 대체로 중국에 집중되는 편이었으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일본산 '용뇌'는 품질이나 향미(香味)가 차이가 있었기에 진품 용뇌를 구하고자 부심했던 내의원이나 국가적 소용(所用)으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4. 용뇌의 효능과 활용의 확대

앞서의 검토를 통해서 조선은 주로 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용뇌를 충분한 물량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대외 교역에 의존해야 하는 주요 당약재 중 하나로 용뇌에 대한 꾸준한 수요는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저렴한 대체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질 정도로 공급량에 비해서 확실히 큰 수요가 나타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뇌의 의학적 효능이 어떻게 용뇌의 수요 확대라는 역사적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용뇌 자체와 용뇌를 함유한 각종 의약품은 특유의 뚜렷한 성질과 효능이 있어서 다양한 병증에 적용되고 있었다. 용뇌는 맛이 맵고 쓰며 성질이 서늘하여 막힌 것이 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다.<sup>99)</sup>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답답하게 막힌 듯한 증상에 폭넓게 적용되었는데, 토사, 복통 같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용뇌가 활용되었다. 한편 정신을 맑게 하는 각성 효

95)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1720) 7월 23일 무자 ; 『비변사등록』 경종 즉위년(1720) 7월 23일

96)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2월 29일 癸巳

97) 『五洲衍文長箋散稿』 人事篇, 服食類, 香油, 「沈腦辨證說」

98) 片腦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龍腦樹의 잔존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용뇌의 유사품을 의미하기도 한다.

99) 조선 왕실에서 용뇌를 처방하면서 시원한 성질을 가진 '涼劑'로 인식하였다.(『승정원일기』 영조 21년(1745) 3월 10일 壬午) 純祖와 의관 趙宗協의 대화에서도 용뇌가 들어간 安神丸과 牛黃膏는 용뇌가 들어가서 清爽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승정원일기』 순조 5년(1805) 3월 9일 癸巳) 영조 재위 말기에 東宮(正祖)에게 식체가 있어서 茶珠를 복용하게 했는데, 약성이 차서 기를 조화시키는 데 알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湛軒書』 內集 2권, 桂坊日記, 을미년(1775, 영조 51) 4월 9일)

과가 있는 점을 활용하여 경련이나 경기(驚氣) 등 신경계 질환에도 적용되었고, 항염증(抗炎症) 작용이 있어서 열과 부기(浮氣)를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눈병, 종기, 가려움증 등 각종 염증에 널리 처방되었으며, 진통 효과도 있어서 통증을 완화할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약성이 독하여 기운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과도하게 복용하면 좋지 않다는 인식도 있었다.<sup>100)</sup> 장뇌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용뇌와 구별되는 별도의 약효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우나 용뇌와 거의 같은 약성(藥性)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여러 증상에 유용한 약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교역이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는 희소성 때문에 특권층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웠다. 고려시대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1079년 풍비증(風痺症)에 걸린 고려 문종(文宗)을 위해 송에서 용뇌 등 약재를 보내주었고,<sup>101)</sup> 무신집권자 최우(崔瑀)가 이규보(李奎報)의 눈병을 위해 의원에게 용뇌를 가지고 방문하도록 하였다.<sup>102)</sup> 외교 사절이나 권력자들이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로 귀중한 약재였지만, 팔다리가 마비되는 풍비나 눈병은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는 조선 후기 국왕과 왕비, 왕세자 등 왕실 주요 인물의 질환과 약제 처방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용뇌도 또한 자주 등장한다. 왕실 인물들의 용뇌 처방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조선중·후기 왕실 인물들의 용뇌 처방 사례 (전거: 『承政院日記』)

인물	처방 내용	증상	비고
宣祖	靈神丸, 龍腦蘇合元		용뇌가 기운을 분산시키며 서늘한 느낌이 든다고 하여 꺼림
仁祖	龍腦安神丸	발열, 눈이 흐릿해짐, 가슴 두근거림, 머리 어지럼증, 호흡이 가빠짐	
莊烈王后(仁祖妃)	龍腦安神丸	기가 편치 않고 막힌 증후가 반복. 만년에는 원기가 빠져 나가며 가래가 심함	1646년(인조 24)~1688년(숙종 14)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처방
明聖王后(顯宗妃)	淸金強火丹, 龍腦安神丸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움. 목구멍에 마른 가래, 막혀서 오그라드는 증세, 원기가 허함, 가슴, 옆구리, 배의 통증, 변비, 발열	
景宗	龍腦安神丸	원자일 때 가래로 인해 가슴이 답답함	

100)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3월 7일 甲子

101) 권순형, 앞의 글, 24~25쪽

102) 淸陽公 崔瑀가 용뇌와 함께 名醫를 보내어 치료하게 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용뇌가 매우 귀중한 약재였음을 알 수 있다. 윤성재, 앞의 글, 275쪽 ; 권순형, 앞의 글, 29쪽 참조.

인물	처방 내용	증상	비고
仁顯王后(肅宗妃)	洪瑞龜(治腫으로 유명한 인물)가 처방한 고약	옆구리와 아랫배 근처의 종기와 통증	
肅宗	龍腦安神丸	熏熱, 惡寒, 困惱, 膈氣, 惡心, 飽滿之氣, 口淡, 痰飲, 咳嗽, 喘症, 무릎·허리·등골 등이 당기면서 아픈 증세, 종기와 고름, 다리와 발의 浮氣와 저림, 가려움증, 목구멍이 마름, 呼吸不平, 溺道不平, 현기증, 눈이 침침함	재위 40년(1714)~46년(1720) 사망시까지 꾸준히 복용
仁元王后(肅宗妃)	龍腦安神丸	감기, 눈이 건조하고 눈꺼풀이 부어오름, 腫患, 濕痰	숙종 44년(1718)부터 간간히 복용
英祖	龍腦安神丸	현기증, 疝氣, 滯氣, 감기, 膈痰, 心火, 기침, 땀이 남, 목이 아픴, 감기, 목소리가 무겁고 탁하며 콧물이 나옴, 팔이 당기고 아픴, 가래, 가슴이 답답함, 風丹, 斑疹, 땀이 지나치게 많음	왕세제였던 1723년(경종 3)부터 복용
貞聖王后(英祖妃)	龍腦蘇合元	가슴이 답답함	순조 초년에 대왕대비로서 복용
思悼世子(莊祖)	龍腦安神丸	기침(咳嗽), 콧물, 감기, 기침하여 목소리가 쉬, 疹癩(홍역), 汗氣, 熱候, 紅暈, 臀部癢形, 煩熱	
惠慶宮		癢形, 齒痛, 어금니와 뺨 사이의 부기	세자빈 시기에 사도세자와 함께 홍역에 걸린 것으로 추정. 순조대 치통 등으로 복용
正祖	龍腦安神丸	癢形, 熱候, 蒸熱, 腫處	1754년(영조 30) 빈궁과 함께 홍역에 걸렸을 때 처방, 1800년(정조 24) 사망 직전 복용
純祖	九味清心元, 龍腦安神丸	痘症(落痂), 汗氣, 騷癢(가려움), 熱候	1801년(순조 1) 이후 간간히 복용

이상의 용뇌 처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역대 국왕, 왕비, 왕세자 등이 용뇌를 꾸준히 복용하였다. 용뇌 그 자체보다는 용뇌안신환, 용뇌소합원 등 다른 약재와 배합한 가공품 형태로 복용한 많았다. 가공된 약제 형태로 복용하였음에도 용뇌 특유의 성질, 즉 막힌 것을 통하게 해 주고, 시원한 느낌을 주어 열기를 식혀주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것에 기대한 처방이 많았다. 그렇기에 위 표에서도 비록 처방을 받은 사람은 존귀한 인물들이지만, 가슴이 답답함, 체한 기운, 감기, 기침, 가래, 발열, 염증, 눈병, 통증, 가려움 등 많은 질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평범한 증상에 적용이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의서(醫書) 또는 의학적 지식을 담은 유서에는 용뇌를 사용한 보다 다양

한 처방이 제시되어 있다. 고려시대 필수 의학서로 통용되었으며 992년에 편찬된 『태평성혜방(太平聖惠方)』에서도 이미 용뇌를 사용한 처방이 확인된다. 세종대 왕명으로 편찬된 『의방유취(醫方類聚)』에는 심폐에 열이 있어서 중풍이 온 경우, 열갈(熱渴)과 서독(暑毒)과 같이 더위로 인한 증상, 어린아이의 만경풍(慢驚風)에 처방하여 어금니를 악물은 입을 벌리게 한다고 하였다. 선조대 의관 양예수(楊禮壽)가 저술한 『의림촬요(醫林撮要)』에는 눈병과 각종 염증[楊梅瘡, 杖瘡, 疔瘡, 惡瘡], 통증[복통, 곱란]에 처방되고 있었고, 그 밖에 장학(瘡癩), 한상(寒傷), 내상(內傷), 탈항(脫肛) 등 다양한 증상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소아의 오줌이 안 나오거나 소아의 찰구(撮口) 같은 증상에 처방한 것에서 드러나듯 폭넓은 연령대에 걸쳐 사용된 것이 주목된다.

속종대 홍만선(洪萬選)이 지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는 혀가 부어오르거나 갓난아이 입안에 백설(白屑)이 끼는 증상과 두창(痘瘡) 등의 염증에 사용되는 약재로 소개되었다. 이익(李穡,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홍역(마진)에 처방하였고,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두통과 같은 통증에 처방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의 『마과회통(麻科會通)』(1798년)은 심허(心虛), 심번(心煩)을 진정시켜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홍역에 대한 처방도 소개하였다. 李圭景(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도 홍역에 대해 처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용뇌 처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용뇌의 기본적인 성질인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청량감이 있어서 열을 식히며,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여 처방하였다. 둘째로 고려시대에도 이미 알려진 용뇌의 약효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서 여러 의학서에 정리되어 왔으며, 유효한 병증은 다양한 편이었다. 셋째로 앞서 왕실 가족에 대한 처방과 일맥상통하는 편이지만, 소아에 대한 처방이 꾸준히 작성될 정도로 사용 연령의 폭이 넓었고, 홍역과 같이 흔히 발병하는 전염성 질환에도 처방되는 등 민간에서도 사용이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 다만 용뇌는 약성이 독하고 기운을 소모시키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의서에는 용뇌를 재료로 하는 여러 가공 약제(藥劑)도 소개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醫書에 기록된 龍腦를 포함한 藥劑와 적용된 증상

약제명	유효한 증상	비고
蘇合元	중풍(담이 생긴 증상, 심기가 부족해 말을 못하고 발열하는 증상)	
牛黃清心圓 또는 牛黃涼膈圓	蝦蟆瘟(얼굴이 붉어지고 목구멍이 아프고 붓는 병), 턱밑과 목 부위가 붓고, 입과 혀가 허는 증상	
清心丸	經絡이나 心에 열이 있어서 정신이 황홀한 증상	

약제명	유효한 증상	비고
朱砂凉膈丸	上焦에 虛熱이 있고 폐와 위, 인후가 답답한 증상	
靑金降火丹	心肺의 허열	
玉容膏	귀나 코가 허는 증상	
龍腦雞蘇圓	코피와 토혈	
茯苓補心湯	心虛	
妙香散	가슴이 울렁거려 잠을 못자는 증상	
龍腦安神圓 또는 龍腦安神丸	癲癇症의 발작	
截疔散	疔瘻瘡	가루를 뿌리거나 고약으로 만들어 붙임
龍腦膏	소아의 눈이 붉게 현 것	
靑黛散	重舌(혀에 생기는 종기), 인후가 부어오름	
九寶湯	哮喘, 咳嗽로 인해 숨이 차고 가쁜 것	
破棺散	중풍으로 입을 다물어 약을 삼킬 수 없을 때	
紫霞丹	虛損	
摩腰膏	노약자의 허리가 아플 때, 부인의 白帶下	
吹耳散	신경에 풍열이 있어 양쪽 귀에서 고름이 나옴	
生氣桃花散	인몸과 이의 출혈	
龍石散	상초에 열이 몰려 입과 혀가 헐고 목구멍이 부어서 아픔. 어린이의 흥역과 마마독이 입과 이에 들어갔을 때	
燒鹽散	목 안에 懸壅(목젖)이 길게 늘어진 것	
蝸牛散	치질이 생겨 헐고 부으면서 달아오름	
磨風膏	머리와 얼굴에 생긴 癰疽, 瘡腫, 疥癬, 화상이 파상풍으로 된 것	
內固清心散	열이 심하고 갈증이 나며 煩燥한 데에 독을 풀어줌	
返魂丹	疔腫(전염병에 걸린 소나 말 고기를 먹고 열 이 쌓이고 독이 깊어서 생김), 瘡病	
靑金錠子	농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거나 오래된 疔瘻, 漏瘡를 치료	
截疔散	해가 오래된 감창, 누창	
一捻金散	癰疾(자궁이 빠져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는 병)	
金箔丸	慢驚風 急驚風에 가래와 침이 심한 것	
猪尾膏	임신부의 두창	
上清散	상초에 熱邪가 있어서 귀와 코가 막히고 머리 와 눈이 편치 않음	
加味上清丸	해수병으로 변열이 날 때 목소리를 맑게 하며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갈증을 멎게 함	
牛黃膏	열이 자궁에 들어간 부인을 치료	
龍腦散	인후가 붓고 아프며 脾肺의 邪毒이 胸膈에 몰 리면서 죽이나 물도 넘기기 어려움	
玉鑰匙	風熱로 생긴 喉閉와 纏喉風	

약제명	유효한 증상	비고
絳雪散	인후가 붓고 아파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괴로운 것과 입과 혀가 허는 것	
雞蘇丸	虛熱로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나른하며, 下焦는 허하고 上焦는 막혀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코피가 나옴	
靑液散	어린이의 아구창, 중설, 구창	
桃奴丸	마음이 허하고 열이 있고 황홀함, 언어 착란	
玉容散	얼굴에 생긴 기미, 땀띠, 여드름, 피부 가려움	

위 표에서 나타난 용뇌를 포함한 약제가 적용한 증상을 통해서 다음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약재를 배합한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용뇌 특유의 성질을 기대한 처방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통적으로 답답하게 막힌 것을 해소해 주거나 열기를 가라앉혀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추구했다. 이러한 증상들이 많은 질환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던 만큼, 호흡기, 소화기, 피부질환, 중풍, 종기, 허리나 팔다리 등의 통증과 부기 등 광범위한 질환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기 『구급이해방(救急理解方)』부터 19세기 『의감산정요결(醫鑑刪定要訣)』에 이르기까지 용뇌를 재료로 한 약이 꾸준히 언급되어 용뇌의 활용도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왕실 가족의 복용이나 용뇌 조제를 위한 용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뿐만 아니라 의서에서도 거의 ‘용뇌’만을 언급하고, ‘장뇌’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관찬 사료에 주로 용뇌 처방만이 언급되는 것은 용뇌가 장뇌보다 고급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왕실과 관료를 위한 수요에는 용뇌가 주로 사용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의 약재 처방까지도 아우르는 의서에도 장뇌보다는 용뇌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용뇌가 고급품이라는 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용뇌와 장뇌가 품질과 희소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능의 약재였고, 의서에서는 두 약재를 아우르는 통칭으로 ‘용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용뇌와 이를 활용한 약제가 실제 임상에서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었을까. 관료층 전반에 걸쳐 용뇌의 사용을 가장 활성화시킨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납제(臘劑)였다. 납약(臘藥)에 포함된 용뇌의 배분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수령한 현직 관료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양반층 전반의 용뇌 사용을 활성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약방등록(藥房謄錄)』의 ‘납약봉질(臘藥封秩)’에는 납월의 분봉(分封)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용뇌소합원 등 용뇌가 포함된 약을 하사하였음이 밝혀져 있다.<sup>103)</sup> 15세기 중반 이후 약방과 연계가 가능한 양반 관료층과 그 지인들은 당약과 국내산 약재를 두루 공급 받을 수 있었고, 중앙관직자와 인맥이 있는 지방 양반들에게도 약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04)</sup>

103) 김대원, 「18세기 民間醫療의 成長」, 『韓國史論』 39, 1998 ; 이현숙, 『언해 벽옥신방』과 『언해 납약 증치방』의 역사적 의의 -이화여대 소장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4, 2008

예컨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는 연말 연초에 납약과 역(曆)을 선물하거나 청하는 관행이 확인되는데, 관료를 중심으로 하여 유희춘이 거쳐했던 지방에까지 납약의 사회적 유통망이 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앙관료를 지내면서 용이하게 각사(各司) 약방(藥房)이나 내의원을 통해서 약재나 처방을 구하였는데,<sup>105)</sup> 예조의 약방으로부터 용뇌소합원(龍腦蘇合元) 등 용뇌가 들어간 약물을 받았다.<sup>106)</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의원은 납약에 필요한 용뇌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값비싼 용뇌가 포함된 약재를 신료들도 널리 복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용뇌를 넣은 납약을 수령하였다는 기록은 신료들의 일기나 문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동악집(東岳集)』에는 납약으로 용뇌, 사향, 소합청심원(蘇合淸心元) 등을 받은 기록이 있고, 이덕무(李德懋)는 1783년(정조 7)에는 사근(沙斤)의 임소에서, 1786년에는 적성(積城)의 임소에서 청심원(淸心元), 안신원(安神元), 용뇌고(龍腦膏) 등으로 구성된 납약을 받았다고 하였다.<sup>107)</sup>

응급 상황에 언제든 사용하기 위해 예비해 두는 '상비약'이라는 납약의 주된 용도도 용뇌를 포함한 당약재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생각된다. 납약은 쓰러지거나 놀라서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심하게 열이 날 때, 갑자기 사지를 못 쓰게 되거나 심하게 어지러울 때, 갑자기 발작할 때 사용하는 구급약이 많았다. 납약의 3대 환약은 청심원(淸心元), 안신환(安神丸), 소합원(蘇合元)이었는데, 청심원은 근심이 많고 소화가 안 될 때 잘 듣고, 안신환은 신열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있으며, 소합원은 급성 위장병의 일종인 광란(癡亂)을 치료하는 데 주효하였다고 한다.<sup>108)</sup> 앞서 왕실에서 적용된 증상과 의서의 처방 내역에서도 드러나듯이, 용뇌는 염증, 발열, 통증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증상에 적용할 수 있는 약재였기에 상비약의 주된 재료가 되기에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범용성(汎用性)을 갖춘 상비약으로 널리 활용된 납약이었지만, 그 재료를 보면 용뇌를 비롯해 사향(麝香), 서각(犀角) 등 외국산 약재를 써야만 만들 수 있는 약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정부는 어용 뿐만 아니라 납제를 위한 당약재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부심했던 것이다.

납약은 이를 하사 받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일차적으로 양반 관료였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과 하층민도 널리 이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납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대부가의 아녀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언해납약증치방(諺解臘藥症治方)』과 같은 언해본이 나온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sup>109)</sup> 『미암일기』에 따르면 유희춘은 추위에 상하여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난 노비에게도 통상 용뇌가 들어가는 약재인 소합원(蘇合元)을 다려 먹이기도 하였다.<sup>110)</sup>

104) 구도영, 앞의 책

105) 홍세영, 「『眉巖日記』의 의학 기록 연구」, 『民族文化』 36, 2011

106) 김호, 앞 논문, 2001

107) 『靑莊館全書』 권70, 附錄 上, 「先考積城縣監府君年譜」(上)

108) 서금석, 「조선후기 臘日 풍속 양상과 소멸 과정에 대한 검토」, 『歷史學研究』 63, 2016

109) 김대원, 앞의 글 ; 이현숙, 앞의 글

납약 이외에도 신료에게 희귀 약재를 지원하는 것은 조선전기인 15~16세기에도 확 인되는 관행이며 용뇌도 이에 포함되었다. 1525년(중종 20) 창병을 앓고 있던 대사간 채침(蔡枕)에게 양의사(兩醫司)가 가지고 있던 용뇌를 지급하였다. 성종대 응행절목(應行節目)에 따르면 재상이나 조사(朝士)에게 병이 나면 사가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약을 병증에 따라 적절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sup>111)</sup> 1655년(효종 6)에도 아역(衙譯) 윤견(尹堅)이 창질(瘡疾)을 심하게 앓자 양의사에서 용뇌가 들어간 환약을 지어주 도록 한 예가 있다.<sup>112)</sup>

용뇌는 쉽게 구하기 어려운 수입 약재이기는 하였으나, 납약 등 국가의 지원이나 관청을 매개로 한 분급과는 별도로 민간에서도 용뇌의 유통과 처방이 꾸준히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에는 청심원을 응급약으로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데, 혜민국(惠民局)이나 전의감(典醫監)에서 사다 쓰기보다는 의정부(議政府), 육조(六曹), 승정원(承政院), 의금부(義禁府) 등 각사(各司)에서 해마다 제작(劑作)하여 병을 앓는 집에서 인연을 따라 구해서 쓴다고 하였다. 또한 소합원과 보명단(保命丹)도 경중과 외방의 각처에서 쉽게 제조하며, 시정(市井)의 무리도 제조하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언급이 있어서, 민간에서도 용뇌가 포함된 약제를 제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13)</sup>

이후로도 민간의 단편적인 용뇌 처방과 치료 사례가 확인된다. 중종대 인물 안찬(安瓚)은 전의서(典醫署) 훈도(訓導)로서 양치질을 하다가 허끝에서 피가 나와 그치지 않 은 어느 부인에게 용뇌소합향원(龍腦蘇合香元)을 지혈약으로 처방했다고 한다.<sup>114)</sup> 1671년(현종 12) 안동의 효자 변극태(邊克泰)가 도둑에게 큰 상처를 입었으나, 부친의 꿈에 나타난 신인(神人)의 말을 따라 용뇌로 약을 써서 완치되었다는 일화도 있다.<sup>115)</sup> 18세기 인물 황운석도 눈병 치료에 용뇌를 사용하였는데, 흐르는 물과 함께 떨어뜨리 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16)</sup> 영조대의 『승정원일기』에도 여염간(閭閻間)의 사람들이 지혈 목적으로 용뇌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보인다.<sup>117)</sup>

조선후기에는 약재 시장의 발달과 유통의 활성화로 민간에서 당약재를 구입하여 복 용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17세기 약령시(藥令市)가 개설 되어 약재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고, 사대부들이 약국계(藥局契)를 조직하여 국 내에서 구하기 힘든 당약재를 매매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sup>118)</sup> 18세기 후반에는 서울에 약재상이 다수 들어서며 공물(貢物)로 납품되는 약재 유통에 개입하였는데, 인 삼 등 고가의 약재를 서울 약국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고 한

110) 김호, 앞 논문, 2001

111) 『중종실록』 20년(1525) 6월 15일 癸卯

112) 『승정원일기』 효종 6년(1655) 8월 28일 己卯

113) 『세종실록』 22년(1440년) 11월 22일 辛酉

114) 『大東野乘』, 己卯錄補遺 卷上, 「醫師安瓚傳」; 『海東雜錄』 권1, 本朝, 「安瓚」; 『知退堂集』 권13, 黃兎記事下, 儒士, 「醫師安瓚」; 『瀟庭遺藁』 권9, 丹良稗史, 「安黃中傳」

115) 『巖棲集』 28권, 墓誌銘, 「贈童蒙教官邊公墓誌銘」; 『晚谷先生文集』 卷17, 傳, 「邊孝子傳」; 『頤齋先生文集』 권13, 墓碣銘, 「贈童蒙教官朝奉大夫孝子邊公墓碣銘」

116) 『頤齋亂藁』 甲申年(1764) 5월 初2日 癸丑; 初3日 甲寅

117) 『승정원일기』 영조 27년(1751) 10월 11일 甲辰

118) 김대원, 앞의 글

다.<sup>119)</sup> 19세기 말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전라도 康津에서 박기현(朴冀鉉, 1864~1913) 집안이 운영한 朴藥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공주 약령시에서 당약재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 약국에서 판매한 약재 중에는 龍腦도 포함되어 있었다.<sup>120)</sup> 지방 약재상에서도 용뇌 등 중국산 약재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용뇌의 처방과 활용이 민간에까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추후 작성 예정]

---

119) 김호,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 -『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 1998

120) 김덕진, 『전라도 康津 兵營의 朴藥局 연구』, 선인, 2022

[부표] 조선후기 內醫院의 年例 唐藥材 무역 및 臘劑와 龍腦 (전거: 『승정원일기』)

일시	용뇌 보유 현황	확보 대책	비고(특기사항)
1661년(현종 2) 1월 10일 庚申	내의원의 연례 무역 唐材가 부족하여 용뇌는 겨우 1냥 남음	다음 동지사 행차 전에 용뇌 2냥 값을 호조에 지급하여 무역하도록 함	
1662년(현종 3) 12월 29일 戊辰	내의원의 연례 節使 때 용뇌 1근을 무역하였으나 이미 乏盡함	다음 무역에서 來納하는 것이 3월초여서 결핍한 것을 예비해야 하며, 용뇌 2냥 값을 호조에 지급	
1666년(현종 7) 10월 22일 己巳	내의원의 唐材는 節使 행차에 관례적으로 호조로부터 값을 받아 무역하였으나 元數가 많지 않고, 京中에서 무역하면 값이 몇 배나 비쌘	호조에 용뇌 6냥 값을 지급하여 무역하도록 함	
1669년(현종 10) 11월 13일 壬寅	내의원에서 용뇌 7냥이 부족	전례에 따라 호조에 명령하여 즉시 무역하게 함	
1672년(현종 13) 11월 6일	납약 재료 중 용뇌 5냥 등이 부족		
1676년(숙종 2) 11월 14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0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賫送하도록 함	
1681년(숙종 7) 11월 5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2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1684년(숙종 10) 11월 11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3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1687년(숙종 13) 11월 2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1688년(숙종 14) 11월 6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3냥 등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무역하도록 함	
1703년(숙종 29) 10월 15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1냥이 부족	호조에 명령하여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08년(숙종 34) 10월 19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10년(숙종 36) 10월 20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17년(숙종 43) 10월 15일 乙未	연례 무역하는 약재 중 용뇌 好品은 10여 근 남아 있음	남아있는 수량으로 內局에 納上하고, 금번에는 잠시 무역해 오지 않도록 함	잔여량이 있어서 무역하지 않음
1717년(숙종 43) 10월 19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20년(경종 즉위) 7월 23일	용뇌 등이 귀중하고 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함	사행 시에 御醫를 보내어 餉銀子 200~300냥	사행에 어의를 보내어 당약재를

戊子		으로 정밀히 택하여 사 오도록 함	선별
1720년(경종 즉 위) 11월 3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5냥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 록 함	
1722년(경종 2) 8월 27일 庚辰	용뇌는 요긴한 약재인데 연 례무역에 元數가 많지 않음	사행 시에 御醫를 보내 어 管餉銀子 200~300 냥으로 정밀히 택하여 사오도록 함	
1722년(경종 2) 11월 13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 록 함	
1723년(경종 3) 10월 25일 辛 未	용뇌는 연례무역 원수가 많 지 않아 부족이 우려됨	사행 시에 의관에게 관 향은자 200~300냥을 전 례대로 출급하여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23년(경종 3) 11월 1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 록 함	
1724년(영조 즉 위) 10월 21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2냥 8전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 록 함	
1725년(영조 1) 4월 8일 乙亥	용뇌 등 중국산 약재가 부족 함	사행 시에 의관에게 관 향은자 200~300냥을 전 례대로 출급하여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25년(영조 1) 10월 2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 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 록 함	
1725년(영조 2) 11월 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 이 부족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 록 함	
1727년(영조 3) 10월 8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 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 록 함	
1728년(영조 4) 8월 10일 戊子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필요	의관에게 管餉使가 관 리하는 은자 200~300냥 을 가지고 선별하여 사 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 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28년(영조 4) 10월 16일	납약 재료 중 용뇌 1근 5냥 이 부족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 록 함	
1728년(영조 4) 11월 20일	연례 납약을 마련해야 함. 두 東朝(대비 및 대왕대비) 에 進上할 龍腦安神丸을 짓 는 데 용뇌 6돈 6푼이 필요	호조에서 제 때에 진배 하도록 분부함	대비들을 위한 약품 수요가 추 가됨
1729년(영조 5) 10월 14일	납약 마련을 위한 용뇌 1근 5냥 7전이 부족, 두 동조에 게 진상할 용뇌안신환을 짓 는데 우황 등이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1730년(영조 6) 11월 7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2 푼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 뇌안신환에 우황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1731년(영조 7) 10월 13일 癸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수량 이 많지 않음	어의에게 관향사가 관리 하는 은자 2~3백냥을	『비변사등록』 同 日條에도 같은

卯		내주어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기사 확인됨
1731년(영조 7) 11월 13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항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1732년(영조 8) 10월 24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항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1733년(영조 9) 11월 1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를 위한 용뇌안신환에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진배하도록 함	
1734년(영조 10) 11월 5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에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35년(영조 11) 10월 28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에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36년(영조 12) 11월 11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世子宮에 供上할 납약에 들어갈 우항 필요	호조에서 즉시 진배하도록 함	대비에 이어 세자를 위한 납약 수요 추가
1737년(영조 13) 7월 11일 丁酉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연례 무역 수량이 많지 않음	어의에게 관향사가 관리하는 은자 2~3백 냥을 전례대로 내주어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38년(영조 14) 7월 18일 戊辰	용뇌 등 중국산 약재의 필요	어의에게 은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해서 사오도록 함	
1738년(영조 14) 11월 4일	납약에 용뇌 1근 4냥 1돈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龍腦安神丸, 세자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규례대로 진배하도록 함	
1739년(영조 15) 10월 27일 庚子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어의가 은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40년(영조 16) 10월 19일 丙辰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해마다 사들였으나 수량이 언제나 부족함	어의가 은자 200~3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비변사등록』 同日條에도 같은 기사 확인됨
1740년(영조 16) 10월 22일 己未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42년(영조 18) 10월 15일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항 등 필요	호조에서 속히 진배하도록 함	
1743년(영조 19) 10월 15일	납약에 용뇌 1근 5냥 2전	호조와 선혜청에서 속히	호조에 이어 재

19) 10월 21일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등 필요	진배하도록 함	원 마련 기관으로 선혜청이 추가되었고, 세자빈을 위한 납약 수요가 추가됨
1744년 (영조 20) 1월 14일 壬辰	중국산 약재 중 용뇌 등의 구입 필요	어의가 은자 200~3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44년 (영조 20) 10월 26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1745년 (영조 21) 11월 5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1746년 (영조 22) 10월 24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속히 진배	
1747년 (영조 23) 11월 1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1748년 (영조 24) 10월 8일	납약에 용뇌 1근 6냥 2전 부족. 두 동조에 진상할 용뇌안신환, 세자궁과 빈궁에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우황 필요	호조와 선혜청에서 진배	
1749년 (영조 25) 10월 30일	各殿 進上, 賢嬪宮 供上 납약, 大王大妃殿 別進上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전례에 따라 진배	여러 왕실 가족을 위한 필요량 열거
1750년 (영조 26) 10월 27일 丙申	元孫宮 供上 등 각종 납약에 들어갈 당재를 사들이는 것과 관련해 용뇌 등 20여종의 재료를 마련	호조에 진배하도록 명함. 명년부터 우황, 사향 외 당재 18종은 의례적으로 燕賀할 것	원손을 위한 납약 수요 추가, 필요한 약재 물목을 종합 정리하고 정례적으로 북경 사행에서 수입할 것을 명함
1750년 (영조 26) 10월 28일	각전 진상, 현빈궁 공상 납약,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전례에 따라 진배함	

1750년(영조 26) 11월 19일 戊午	용뇌 등의 원수가 부족함	의관에게 管運餉 銀子 300냥을 가지고 전례에 따라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51년(영조 27) 10월 24일	각전 진상, 빈궁 공상 납약,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가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2년(영조 28) 11월 3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3년(영조 29) 10월 30일 辛亥	용뇌 등의 약재가 부족함	어의에게 管餉銀子 200냥을 가지고 약재를 선별하여 사오도록 함	
1753년(영조 29) 11월 15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4년(영조 30) 10월 27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5년(영조 31) 10월 4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6년(영조 32) 10월 12일	각전 진상, 대왕대비전 별진상 용뇌안신환과 각종 납약에 필요한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관례에 따라 진배함	
1757년(영조 33) 11월 12일	孝昭殿에 진상할 용뇌안신환과 徽寧殿에 진상할 납약에 필요한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1758년(영조 34) 10월 24일	孝昭殿에 진상할 용뇌안신환과 徽寧殿에 진상할 납약에 필요한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1760년(영조 36) 11월 1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진상 용뇌안신환 등 납약에 들어갈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1761년(영조 37) 10월 23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진상 용뇌안신환 등 납약에 들어갈 각종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1762년(영조 38) 10월 21일	연례 각전 진상, 중궁전, 혜빈궁, 동궁, 빈궁 등에게 공상할 납약에 들어갈 약재 필요	호조와 선혜청이 의례적으로 진배함	
1779년(정조 3) 12월 5일	납약 17종을 하교에 따라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용뇌 2냥 6전 6분 5리가 부족	부득이 별무하여 취용할 것	



【제5발표】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의 길':  
근세 왜관과 나가사키 무역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이해진(동국대)

- 
1. 머리말: '은의 길'의 간선을 역행하는 '인삼의 길'
  2. 조선 조정의 대일 인삼 수출 승인
  3. 17세기 전반 일본 국내의 인삼 유통과 나가사키 무역
  4. 열리지 못한 새로운 '길': 영국인 리처드 콕스와 인삼
  5. 맺음말: 17세기 전반에 존재한 '인삼의 길'의 프로토타입



# 17세기 전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의 길’ : 근세 왜관과 나가사키의 무역에 관한 시론적 고찰

이해진

## 1. 머리말: ‘은의 길’의 간선을 역행하는 ‘인삼의 길’

15~16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시대의 여파로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명조(明朝)의 국방·행정 정책하에 은의 수요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의 생산량만으로는 은 수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외 무역을 통해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은을 중국이 흡수하는 가운데, 세계지도 상에 이른바 ‘은의 길’이 형성되었다. 한편으로 같은 시기 동아시아에서는 은광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적인 은 생산지로 부상하였던 일본이 중요한 무역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을 잇는 무역로를 중심으로 성립한 동아시아의 ‘은의 길’은 일본의 은이 고갈에 이르는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졌다.<sup>1)</sup>

그런데 이처럼 중일 무역 양상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던 동아시아 세계의 ‘은의 길’ 고찰에 한반도(조선)를 경유하는 지선(支線)이 존재했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이는 대명 무역을 통해 조선으로 유입된 중국산 백사(白絲)와 견직물이 왜관(倭館) 무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그 대가로 일본산 은이 조선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사실에 주목한 결과이다. 이러한 양상 속에서 중국산 백사·견직물의 무역 루트는 대체로 ‘은의 길’을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sup>2)</sup> 더욱이 17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조선은 명과 후금(청), 그리고 일본 모두와 교류를 이어가던 유일한 나라였기에, 명·청 교체의 격변 속에서도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로를 연결하는 허브(Hub)로서 기능하였다는 지적도 있다.<sup>3)</sup>

한편 조선의 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활용된 것으로는 인삼이 있었다.<sup>4)</sup> 인삼은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에 걸쳐 주요 생산지가 분포되어 있었기에, 조선 전기에는 여진인들이 채취한 인삼이 조선과 명을 상대로 활발히 거래되기도 하였다.<sup>5)</sup>

1) 대항해시대 이후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은의 길’과 동아시아 무역 양상에 관해서는 기시모토 미오, 노영구 옮김, 『동아시아의 ‘근세’』, 와이즈플랜, 2018(1998 초출), 17~39쪽 참조. 한편으로 본 논문에서 주목할 17세기 전반기 동아시아 지역의 은 유통 양상에 관해서는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奎章閣』 15, 199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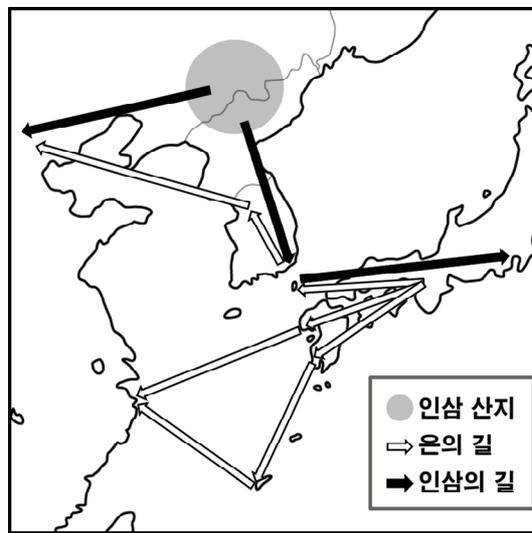
2)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3) 이재경, 「인조 전반기 조선의 대명무역 규모와 그 구조」, 『明清史研究』 59, 2023.

4) 조선 인삼에 관한 선행연구로, 동아시아의 인삼 지식과 역사를 망라한 이마무라 도모(今村鞆)의 연구를 빼놓을 수는 없다(이마무라 도모, 양정필 해제, 『人蔘史』 (전7권), 민속원, 2009[1935 초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서는 세계사적 범주 내에서 인삼의 상품화와 국제 교역, 그리고 학문·지식·담론의 영역 등을 망라한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서양이 은폐한 ‘세계상품’ 인삼을 찾아서』, Humanist, 2020이 주목된다.

그리고 압록강 이남 지역에서 생산된 인삼은 일찍부터 조선이 중국 방면으로 활발히 수출하였으며, 더욱이 17세기 후반에는 일본 국내 시장에서 인삼이 대유행하면서 중요한 대일 무역품<sup>6)</sup>으로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일 무역에서 인삼은 통신사 등의 사행 때 지참하거나 쓰시마번(對馬藩)의 진상(進上)에 답하는 회사(回賜) 혹은 필요한 물품을 구청(求請)했을 때 하사하던 예단삼(禮單蔘) 외에, 왜관의 개시무역(開市貿易, 사무역[私貿易])에서 거래된 피집삼(被執蔘)<sup>7)</sup>이 존재했다. 개시무역에서 피집삼은 중국산 백사·견직물과 함께 일본산 은을 수입하기 위한 거래 물품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백사와 견직물의 사례처럼 한반도를 경유하는 ‘은의 길’의 간선을 역행하는 모습으로 ‘인삼의 길’<sup>8)</sup> 또한 뻗어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은과 인삼의 교역 양상을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7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은의 길’과 ‘인삼의 길’

그런데 에도시대의 조일 무역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17세기 전반의 무역 양상에 관하여 “참가자 자체가 조직화된 것이 아니었기에, 후일 만들어진 거래 장부류의 기록도 없고 연간 거래 품목이나 가격·수량 등의 동향은 전혀

5) 金宣旻, 「人蔘과 疆域: 後金-淸의 강역인식과 대외관계의 변화」, 『明清史研究』 30, 2008 참조.  
 6) 조선 후기의 대일 인삼 무역을 고찰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金柄夏, 「17, 8世紀의 銀蔘問題: 對日人蔘貿易을 中心으로」, 『政經論集』 9, 1972; 田代和生, 주 2) 저서; 金東철, 「조선 후기 倭館 開市貿易과 東萊商人」, 『民族文化』 21, 1998; 同, 「朝鮮後期 倭館 開市貿易과 被執蔘」, 『韓國民族文化』 13, 1999;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 1999; 吳星,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한국연구원, 2000; 정성일,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 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耽羅文化』 55, 2017 등이 있다.  
 7) 일반적으로 사료 속에서 ‘피집(被執)’은 ①부산 왜관에서 행해지는 개시무역에서 일본 상인과 매매하는 행위 자체, 또는 ②일본 상인들이 교역하면서 물건값을 다음 해에 미루어 나누어 갚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신용 거래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 즉 ‘피집삼’의 경우는 ①의 뜻으로 사용된 표현이다. 이러한 ‘피집’의 개념은 양흥숙, 주 6) 논문; 金東철, 주 6) 1999년 논문 참조.  
 8) ‘인삼의 길’이라는 용어는 정성일, 「조일 무역을 이끈 조선 인삼과 일본 은」,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2, 자작나무, 1998로부터 착안하였다.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조선 측 상인 참가자나 왜관에 모이는 물자의 양이 적어서 좀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상태”였으며, “사무역이 융성하여 쌍방의 무역 시행자가 큰 이익을 차지하게 된 것은 조선·중국 간의 상로(商路)가 확대되고 또한 일본으로부터 은의 대량 수출이 가능해진 17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논하였다.<sup>9)</sup> 따라서 <그림 1>에 표시된 ‘인삼의 길’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17세기 전반의 인삼을 포함한 조일 무역 실태는 그동안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명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삼은 이 시기에도 조선의 주요 수출품이었으며, 전성기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대일 무역에서도 거래되었다. 또한 쓰시마번 측 사료 속에 해당 시기의 관계 기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후일 쓰시마번이 수합·정리한 조선 관계 사료집인 『分類紀事大綱』<sup>10)</sup>에는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17세기 전반의 인삼 무역 관련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시기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은의 길’의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세 동아시아 대외 무역은 당시의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즉 당시 조일 양국 사이의 무역을 다루더라도 중국, 나아가서는 대항해시대 이후 새롭게 동아시아의 무역 주체로 자리하였던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7세기 전반은 중국에서 명·청 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적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조일 인삼 무역에 끼친 영향도 고찰하고자 한다.

## 2. 조선 조정의 대일 인삼 수출 승인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일 무역은 1609년에 체결된 기유약조(己酉約條)를 통해 정식으로 재개되었다. 이때부터 쓰시마번은 조일 무역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확보하여, 조선의 왜관에서 수입해 온 물품을 일본 국내로 유통하여 이익을 얻었다. 이 중에서 인삼은 본래 예단삼으로 정식 지급하는 분량 외에는 사무역의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듬해의 규정에서는 금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sup>11)</sup>

9) 田代和生, 주 2) 저서, pp.69~71. 조일 무역 복구 후 쓰시마번은 영지 내의 상인들에게 왜관의 사무역에 참여할 권리를 분배하는 대신,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1683년에 기존 방식을 개정하여, 사무역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인 쇼바이가카리(商賣掛, 1696년에 모토가타야쿠[元方役]로 개칭)를 왜관에 파견하여 무역 이익을 번이 직접 거두어들이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쓰시마번의 무역 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元方役の設置と私貿易の藩營化」, 주 2) 저서(제9장) 참조.

10) 쓰시마번이 17세기 이후의 기록에서 조일 외교·무역과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여 편찬한 『分類紀事大綱』은 총 7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 1719년에 번의 가신 고시 쓰네에몬(越常右衛門)이 집필을 담당하는 제1집은 본편 42권 및 1720~21년에 추가된 부록 2권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후 같은 방식으로 편찬이 이어져 제2집 이하가 추가되었다. 해당 기록은 쓰시마번이 전례를 파악하기 위한 사료집으로, 막부에 대한 보고 사항과는 별개인 일종의 대외비로 취급되었다. 그 사료적 성격에 관해서는 田代和生, 「宗家文書『分類紀事大綱』について」, 『日朝交易と對馬藩』, 創文社, 2000 참조.

11) 田代和生, 주 2) 저서, pp.67~69.

그러나 1630년대 이전까지 인삼은 주로 명으로 수출되었기에, 일본 방면으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시기부터 조선으로 들어온 명 상인들이 인삼을 앞다투어 매입해 갔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조선에 파견되어 온 명의 사신들이 다량의 인삼 반출을 위하여 조정의 고민거리가 되었다.<sup>12)</sup>

한편 조선의 인삼 수출은 병자호란으로 큰 전환점을 맞았다. 1637년에 전쟁이 종결된 후 명과 조선의 교역이 중지되었으며, 더욱이 청조(淸朝)가 인삼을 금물(禁物)로 지정하여 중국 방면으로의 인삼 수출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가운데 이듬해 조선 조정에서는 아래의 사료와 같이 대일 방면으로의 인삼 수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호조(戶曹)에서 장계로 올린 이야기에 따르면, ‘당화(唐貨)가 오지 않게 된 뒤로 왜관에 물자를 매매하러 오는 자들이 끊어졌으니, 왜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여 몹시 낙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생산품이 없고 단지 인삼이 있을 뿐인데, 금물(禁物)로 규정되어 사사로운 매매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사꾼들이 비록 몰래 매매하나, 이 또한 제값을 받지 못하므로 인삼이 폐장된 형편입니다. 이리하여 관가(官家)에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니, 당초에 법을 세워 금단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매매를 허락하고 과조(科條)를 엄히 세워 그 세금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왜인은 시장을 개방하는 이익이 있고 우리나라는 생산품이 폐장될 근심이 없어질 것이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가난하여 단지 인삼을 가지고 중원(中原)과 통화(通貨)하였으므로, 장사꾼들의 사매(私賣)를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일의 성격이 종전과 달라졌으니 즉각 금령을 풀어 주어서 사매를 허락하고, 아울러 과조를 세워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호조의 장계 내용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자세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하였다.<sup>14)</sup>

이처럼 병자호란 이후 명과의 교역이 공식적으로 중지되어 중국산 물품이 조선으로 유입되지 않자, 이를 조달받아 재수출하는 왜관의 대일 무역 또한 정체에 빠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호조에서는 본래 중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청조가 금물로 지정한 뒤부터 거래가 끊긴 국내산 인삼의 일본 수출을 정식으로 허락하여 대일 무역을 이어갈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정의 윤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래 대일 무역에서 인삼은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는 명 측의 요구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중국 방면으로의 인삼 수출량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왜관의 상인들 사이에는 일본 상인들과 암암리에 인삼을 거래해 온 관행이 있었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인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세금의 수급 또한 원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인삼의 대일 수출 허가는 이러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즉 왜관 무역의 유지 및 세수 확보와 더불어 삼상(蔘商)과 채삼인(採蔘人)들의 곤란을 해결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다고 할 수

12) 조선 후기 대명 인삼 수출에 관해서는 朴平植, 「宣祖代 對明 人蔘貿易과 人蔘商人」, 『歷史教育』 108, 2008; 양정필, 주 6) 논문 참조.

13) 청조의 인삼 정책에 관해서는 金宣旻, 주 5) 논문 참조.

14) 『備邊司臚錄』, 仁祖 16년(1638) 1월 30일.

있다.<sup>15)</sup>

그러나 머리말에서 인용한 다시로의 설명처럼, 조일 인삼 무역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것은 일본산 은의 대량 수출이 이루어진 17세기 후반부터였다. 다만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638년에 조선 조정이 대일 인삼 수출을 승인하기 전부터 이미 왜관에서는 인삼이 거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17세기 전반의 인삼 무역 및 일본 국내 유통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가 다루지 않았던 쓰시마번 측의 관련 사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 3. 17세기 전반 일본 국내의 인삼 유통과 나가사키 무역

#### (1) 1630년대의 인삼 무역 양상

머리말에서 소개한 쓰시마번의 사료집인 『分類紀事大綱』에는 무역 관련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삼 무역 관련 사료는 아래에 인용한 1634년의 서찰이다.

- . 인삼 거래 건으로 오다 기노스케(小田儀之助)님이 건너왔습니다. 지금 나가사키(長崎)에도 물건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도 팔리지 않았으며, 또한 그쪽에 있는 인삼을 이전 가격으로 사들여도 좀처럼 내년 중에 다 팔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가을에 배당하지 않으면 곤란하므로, 가격을 낮춰 구매할 수 있도록 공리가 필요합니다. (후략)
- 위 내용을 간에이(寛永) 11년(1634) 7월 25일에 시마오 곤노스케(嶋雄權之助)에게 보내었다.<sup>16)</sup>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서장은 쓰시마번 당국에서 왜관의 무역 담당자에게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나가사키에서 쓰시마로 귀환한 오다 기노스케가 현지 인삼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존 가격으로 인삼을 사들여도 내년 중에 전량 판매가 불투명하지만, 당년도 배당을 취소할 수는 없으니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춰 구매할 방안을 찾도록 왜관의 무역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이 위 서장의 취지이다. 즉 쓰시마번은 조선에서 수입한 인삼의 판로에 지장이 생겼으니, 공급 가격 조절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다. 이 사료를 통해 조선 조정의 허가 전에도 왜관에서 정기적인 인삼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동안 쓰시마번이 왜관에서 사들인 조선 인삼을 나가사키에서 판매해 왔다는 사실이다. 시기적 여건상 일본 국내의 인삼 수요가 충분한 양에 다다르지 않았기에, 쓰시마번은 해외 시장과 연결된 나가사키에 중계 무역품으로 인삼을 공급하여 수익을 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쓰시마번이 조선에 수출한 수우각·후추·소목·명반 등의 동남아시아산 물품을 나가사키에서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7)</sup> 그런데 17세기 전반에는 나가사키를 통한 조선으로의 물품 유입 외에도, 조선산

15) 해당 사료에 관한 분석은 양정필, 주 6) 논문, p.121에 상세하기에 참조하였다.

16) 『分類紀事大綱』(第1輯) 卷27, 「御商賣集書」.

17) 대표적인 연구로는 윤유숙, 「조선후기 조선·일본의 동남아시아 산물 교역」, 『한일관계사연구』 70, 2020 참조.

물품의 유출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한편 해당 서찰이 작성된 1634년은 이른바 '제1차 쇄국령(鎖國令)'이 나가사키 부교(長崎奉行)에게 하달된 다음 해였다. 즉 기존에 막부로부터 주인장(朱印狀)을 발급받은 주인선(朱印船)이라 할 지라도, 도항을 특별히 허가하는 로주(老中)의 봉서(奉書)를 받지 못한 일본 선박은 해외 출항을 불허하는 방침(이른바 '봉서선 제도')이 강력하게 적용되던 시점이었다.<sup>18)</sup> 이처럼 1630년대에 접어들어 막부의 대외관계 방침이 변화하여 일본 선박의 해외 출항에 대한 제약이 강화됨에 따라, 나가사키의 인삼 거래 또한 지장이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어서 『分類紀事大綱』에서는 1641년에 이전 4년간의 인삼 거래가를 정리한 각서가 확인된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사료는 아니지만, 제2장에서 살펴본 1638년 조선 조정의 대일 인삼 수출 허가가 왜관의 인삼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약간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覺		
一. 上上人蔘	130~140메(目)	] 丑(1637)~寅(1638)년에 이와 같은 가격이었으므로, 이대로 올가을부터 조달하게끔 했다고 은 담당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一. 上人蔘	100메	
一. 中人蔘	70~80메	
一. 下人蔘	20~30메	
一. 上上人蔘	160~170메	] 卯年(1639)에 이와 같은 가격이었으므로, 지금 부산포에 있는 인삼을 이 가격으로 사들이겠다고 은 담당자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一. 上人蔘	120메	
一. 中人蔘	90~100메	
一. 下人蔘	20~30메	
] 위는 간에이 18년(1641) 7월 26일. <sup>19)</sup>		

1637~38년의 가격표인 전반부는 인삼 수출 허가 이전이며, 1639년의 내용을 담은 후반부는 그 후의 가격대를 보여준다. 조선 조정이 예측한 대로, 과거 '제값을 받지 못하'던 인삼이 수출 합법화 이후에 거래가가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쓰시마 번 또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작성 시점(1641년 7월)까지는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하되, 가을부터 예전 가격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조선 측 인삼 공급자들과 교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사료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기에, 교섭의 성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18) '봉서선(奉書船) 이외에는 일본 선박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다'라는 '봉서선 제도'의 요지가 포함된 이른바 '제1차 쇄국령'은 1633년 2월에 막부가 무역 관할 업무상의 비리 혐의로 나가사키 부교 다케나카 시게요시(竹中重義)를 해임(이듬해 할복)한 뒤, 신임 나가사키 부교를 임명하면서 하달한 지령이었다. '봉서선 제도' 및 총 5차례에 걸쳐 하달된 소위 '간에이 쇄국령'에 관한 통설은 朝尾直弘, 『朝尾直弘著作集5 鎖國』, 岩波書店, 2004(1975 初出), pp.195~214 참조. 단 해당 지시 사항을 전국에 통용되는 법령으로 간주해 왔던 기존 이해와는 달리, 야마모토 히로후미(山本博文)는 선행하는 4차까지의 지시는 로주(당시 정확한 직명은 도시요리[年寄])가 연서(連署)하여 신임 나가사키 부교를 대상으로 하달하였던 업무 지침의 성격이었음을 환기하였다. 또한 1633년의 '제1차 쇄국령'에 포함된 '봉서선 제도'는 막부 내에서 이미 1631년에 수립된 지침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야마모토는 1633년을 기점으로 막부의 대외관계 통제 방침이 서국(西國) 전역에 관철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그동안 무역업무의 청부만을 맡았던 나가사키 부교가 쇼군 직속의 광역 행정관으로 성격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山本博文, 『鎖國と海禁の時代』, 校倉書房, 1995, pp.19·28·63).

19) 『分類紀事大綱』(第1輯)卷27, 「御商賣集書」. 사료에는 일자만 적혀 있을 뿐이며, 원문의 출처 및 수신인·발신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 (2) 1640~50년대의 인삼 무역 양상

그다음으로 『分類紀事大綱』에 등장하는 인삼 관련 기사는 앞 사료로부터 대략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서찰이다. 수신인 및 문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당시 조선 무역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을 영지에서 에도 번저(藩邸)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 一. (중략)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교역은 이전에 요동(遼東) 길이 안전하고 대명(大明)이 평안할 때는 상품이 충분히 들어왔지만, 그 후 달단국(韃靼國)[후금·청]이 요동을 단절시켜 왕복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게다가 최근에는 대명이 국난에 빠져 (중략) 지금은 중국의 상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합니다. 조선과 唐[중국] 사이의 사신 왕복을 겸해 서가 아니라면 무역품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므로, 한 해에 5~600간메(貫目) 이상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생사와 견직물은 조선 내에서도 거래한다고 홍지사(洪知事)[역관 홍희남(洪喜男)] 등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들일 수 있는 상품은 미비한 양입니다. 또한 조선에서 나는 물품 중에 인삼 외에는 무역품이 없지만, 이 또한 최근에는 나가사키(長崎)에서 전혀 팔리지 않으므로 조선에서 상품을 바꿔와도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 조선과 나가사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 一. 은 담당자가 아뢰었습니다. 지난 가을 오우라 곤다유(大浦權大夫)와 다나카 사부로에몬(田中三郎右衛門)이 부산포로 건너와 향후에는 무역을 확대하고 싶다고 조선인들과 이야기하였지만, 당시의 동래부사가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곤다유들이 잘 설명하고 상인들도 잘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올봄에 백사와 ■ 등을 적절히 지참해 왔지만, 왜관에 은자나 상품이 없었기에 우리가 무역을 확대해 달라고 먼저 말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도리어 조선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이렇다고는 해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량의 거래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품이 없는 이유는 작년(1652년)에 가미가타(上方)에서 무역에 관해 상담한 사카이(堺)의 상인들이 조선 방면의 무역에 확신이 없었는지 은자나 상품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올봄에 사카이 상인들이 오사카(大坂)에서 주군께 간절한 분부를 받았으므로, 모두 안심하여 그 후에는 상품 등을 간간히 가져옵니다.

위 내용을 조오(承應) 2년(1653) 6월 23일에 에도의 도보 사자에몬(唐坊佐左衛門)과 구로키 소자에몬(黒木惣左衛門)에게 보내었다.<sup>20)</sup>

기존 조일 무역의 수입품 중에서 쓰시마번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보장하던 물품은 중국산 백사와 견직물이었다. 그러나 만주에서 후금이 성장하여 요동을 경유하는 조선과 명 사이의 무역로를 차단한 뒤부터 충분한 양의 중국산 물품이 조선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왜관 무역의 부진으로 이어진 상황을 위 사료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품귀 현상에 이른 중국산 백사의 대안으로서 고려된 조선산 물품 중에서는 그나마 인삼이 상품 가치가 있지만, 그나마 이(1653년) 무렵에는 나가사키에서 좀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익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해명이 서술되어 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왜관의 상인들이 무역 확대를 꾀하여 조선 상인들과 협

20) 『分類紀事大綱』(第1輯) 卷27, 「御商賣集書」. ■은 원 사료의 손상이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익한 결과, 조선 측 관리(동래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국의 상인들이 조선 무역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왜관으로 자본금(은) 및 거래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교역에 난항이 이어졌다고 한다. 다만 같은 해 봄에 번주가 직접 본국의 상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이야기한다.

즉 조선의 대중국 무역이 단절되어 왜관에서 중국산 상품 확보에 곤란을 겪자, 쓰시마번은 조선산 인삼을 나가사키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대안으로 삼아왔음을 알 수 있다. 즉 1630년대에 일본 선박의 해외 도항이 금지된 후에도 나가사키로 입항한 외국 상인들이 인삼을 구하였기에 수요가 창출되었지만, 사료의 작성 시점인 1650년대에 접어들면 이 또한 저조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사료를 참조하고자 한다. 아래 사료는 1652년에 제주도로 표류한 중국 상인의 진술 내용이다. 이 기록은 1704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한 송정규(宋廷奎)가 과거 제주도에서 발생한 표류 사실을 정리한 『海外聞見錄』에 수록되었다.

순치(順治) 9년 임진년(1652) 2월에 소주(蘇州) 사람 묘진실(苗珍實) 등 213명이 정의현(旌義縣) 천미포(川尾浦)로 표류하였는데, 물에 올라 목숨을 보전한 자는 겨우 28명이었다. 글로 써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대명(大明) 남경(南京)의 상인으로, 홍광(弘光) 원년(1645) 3월에 황제의 허가를 받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청조가 천하를 쟁탈하고 이 틈(李闌)[이자성(李自成)]을 죽였으며 또한 남경으로 쳐내려와 홍광제가 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지(交趾)[베트남 북부]를 오가며 장사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청조가 인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정월 22일에 일본을 떠나 2월 8일에 오도(五島)에서 풍랑을 만났으며, 9일에 이곳으로 난파했습니다. 만일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신다면, 한 달이 지나기 전에 남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또한 그들의 장사에 관하여 묻자 답하기를, “산서(山西)·섬서(陝西)·산둥(山東) 등지의 사람들은 각각 약재와 대추·밀랍·담요 등과 같은 토산물을 소주의 시장에 팔아 비단과 은자로 바꾸고, 교지로 가져가서 팔아 후추와 소목·단향·소가죽·설탕·등나무 등과 같은 물건을 얻어 일본의 장기(長崎)로 가서 인삼과 동철(銅鐵)·해삼·족제비·붉은 여우·호피(嚙皮)<sup>21)</sup>·향환(香蕈)·연초 등의 물건과 바꿔 소주로 돌아와서 팝니다. 소주에서 곧바로 일본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견사(繭絲)와 주단(紬段)을 밀천으로 삼습니다”라고 하였다. 소주와 장기는 동서의 도회지로, 천하의 물산이 두 곳에 모이는 것을 알만 하였다.<sup>22)</sup>

자신이 소주 출신의 남경 상인이라고 밝힌 묘진실의 진술 속에는 당시 중국의 정세 변화에 상인들의 무역 활동이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이 담겨있다. 즉 강북 지역의 대사건이었던 1644년의 명조 멸망과 청조의 입관(入關), 그리고 남경의 망명 정부였던 남명(南明) 또한 홍광제(弘光帝)가 1645년에 사로잡히면서 쇠퇴에 이른 상황이다. 이처럼

21) 이에 관해서는 저자 송정규도 인용문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른바 호피는 어떠한 물건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22) 송정규, 김용태·김세미오 옮김, 『해외문건록: 제주목사 송정규, 바다 건너 경이로운 이야기를 기록하다』, Humanist, 2015, pp.35~37(번역)·pp.196~197(원문) 참조.

럼 강남 지역이 전란에 휩싸임에 따라, 묘진실 일행은 귀국을 포기하고 교지와 일본을 오가며 장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652년 정월에 이르러 '청초가 인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일본으로부터 귀국을 시도하다가 제주도로 표류하였다는 내용이다.

묘진실의 표류는 1652년의 일이었지만, 일반적인 중국 상인들의 무역로와 거래 물품에 관한 진술은 그가 중국을 떠난 1645년 시점의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국 상인들은 강북의 물자를 가져다 강남에 팔아 자본을 마련하고, 이를 교지(베트남 북부)로 가져다 동남아시아산 물품을 구매해 나가사키에 판매한 뒤, 나가사키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을 확보해서 다시 중국 강남으로 돌아와 판매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건너와 구매하는 물품 중에 '인삼'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산 인삼의 상품화는 18세기 중엽에 들어서야 이루어진 일이었으므로, 당시 나가사키 시장에서 유통된 인삼은 조선에서 수입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명·청 교체 시기의 전란으로 인한 중국 남북의 물류 단절 속에서 강남 지역으로의 인삼 공급은 조선과 나가사키를 경유하는 해상 무역로로 우회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40년대 후반부터는 강남 지역 또한 전란에 영향을 받아 상인들의 무역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따라서 묘진실은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교지와 일본을 왕복하면서 무역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사료상으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640년대 후반에는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구매한 인삼 등의 물품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판매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현지의 수요는 차지하고서라도, 비교적 원거리 교역이었기 때문에 출항 빈도가 낮아져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사들이는 인삼의 거래량이 이전보다도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게다가 1650년대에 접어들어 청초가 강남 지역을 평정한 뒤에는 중국 남북의 물류가 복구되어 해당 지역과 인삼 산지 사이의 유통망이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즉 나가사키를 통한 우회로가 아니더라도 강남 지역으로 인삼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쓰시마번 측 사료가 이야기하는 나가사키의 인삼 판매 부진은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 4. 열리지 못한 새로운 '길': 영국인 리처드 콕스와 인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초 동아시아의 '인삼의 길'은 나가사키를 결절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나가사키 인근은 16세기 이래로 중국인 외에도 유럽인들이 건너와 무역 활동에 종사하던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인삼의 길'이 나가사키를 기점으로 세계를 향해 확대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에도막부의 본격적인 대외관계 통제 이전, 조선 인삼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고자 한다.

설혜심이 아래의 사료를 통해 소개한 바와 같이, 유럽인들 또한 17세기 초에 조선 인삼을 접하고 그 상업적 가치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사료는 나가사키 인근의 히라도(平戶)를 거점으로 대일 무역을 수행하던 영국 상관장 리처드 콕스(Richard Cocks, 1566~1624)가 1617년 1월에 일본에서 확보한 조선 인삼의 견본과 관련 정보를 본국에 보고한 편지이다.

증개인을 통해 희망봉에서 어떤 뿌리를 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말랐고 아무런 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좋은 뿌리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 뿌리는 은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는데, 너무 귀해서 보통 사람의 손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한국과 교류할 수 있는 쓰시마(對馬島) 번주(蕃主)에 의해 무조건 일본 천황[재인용자 주: 원 사료는 '쇼군'을 칭한 것으로 보임]에게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이 뿌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으로 간주되며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가 된다고 합니다. (후략)<sup>23)</sup>

이처럼 일본에 건너와 무역에 종사하던 영국인들도 인삼의 상품 가치에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직접 조선과 인삼을 거래할 수 있는 무역 루트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확보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일본 체류 중에 콕스가 작성한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아래 기사는 위에 인용한 보고 서찰과 같은 해에 작성된 것이었다.

(1617년 9월 20일) (전략) 나는 급사(急使)에게 부탁하여 위컴[영국 상관원 리처드 위컴(Richard Wickham)]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쓰시마 도노<소 쓰시마노카미 요시나리(宗對馬守義成)>의 숙소로 가서 조선인이 출발 준비를 마쳤는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1617년 9월 21일) (중략) 오늘 아침 나는 궁정에서의 청원을 계속하기 위해 캡틴 아담스[영국 상인 윌리엄 아담스(William Adams, 1564~1620), 일본명 미우라 안신(三浦安針)]를 남겨두고, 조선인을 방문하고자 교토로 향했다. 그러나 나는 쓰시마의 왕[요시나리]에게서 조선인들과의 대담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가 쓰시마인 외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조선과의 거래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후략)<sup>24)</sup>

위 사료가 작성된 시점인 1617년은 조선으로부터 오사카성 함락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통신사가 파견된 해였다. 이 정보를 파악한 콕스는 통신사와 접촉을 시도하고자 여러모로 물색하였으나,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가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였다는 사실을 위 사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그 이유로서 콕스는 본인들이 '조선과의 거래'를

23)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pp.26~27의 인용문을 정정 없이 재인용. 원 사료의 출처는 "Richard Cocks to the Company, Firando, January 1 & 14, 1616-1617," in William Foyster, ed., Letters Received by the East India Company, Vol. 5 [1617: January to June]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 1901), pp.17-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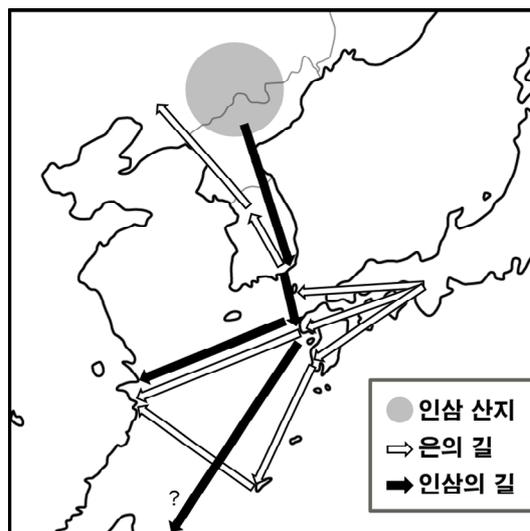
24)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日本關係海外史料: イギリス商館長日記』 譯文編之下, 東京大學出版會, 1980, pp.102~103. 인용문의 < >는 번역서에 삽입된 분주(分註)이다.

하게 되는 것을 쓰시마번주가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통신사와의 접촉을 시도한 콕스에게 ‘조선과의 거래’ 루트를 마련할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은 쓰시마번 측의 사전 공작으로 인하여 실현에 옮겨지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같은 해 6월 25일에 콕스는 막부의 로주인 도이 도시카쓰(土井利勝)에게도 통신사와의 접견 허가를 요청<sup>25)</sup>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기사에서 그가 통신사와 만났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결국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조선 무역의 독점적 권한을 수호하려는 쓰시마번 측의 움직임 속에서, 일본 국내의 인삼 공급은 왜관 무역이라는 단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다.

### 5. 맺음말: 17세기 전반에 존재한 ‘인삼의 길’의 프로토타입

이상으로 17세기 전반기에 이루어진 조선 인삼의 대외 무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1638년에 청초가 인삼을 금물로 지정하면서 조선과 중국 사이의 인삼 무역은 단절되었다. 그리하여 이 무렵부터 조선의 인삼 수출은 주로 일본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단 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쓰시마번이 수입한 인삼은 일본 국내 시장보다는 주로 나가사키로 보내져 중국 남부 방면으로의 중계 무역품으로 재수출되었다. 명·청 교체로 인하여 중국 남부와 북부 사이의 물류 유통이 차단된 상황 속에서, 중국 남부의 인삼 수급이 해외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17세기 전반에 한정적으로 존재하였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 무역 루트를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1630년대 말~1650년대 초 ‘은의 길’과 ‘인삼의 길’

25) 東京大學史料編纂所 編, 『日本關係海外史料: イギリス商館長日記』 譯文編之下, 東京大學出版會, 1980, p.103.

이후 1660년대에 접어들면 일본 국내의 인삼 수요가 급증하면서 쓰시마번이 주도한 인삼 무역은 활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7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의 '인삼의 길'은 한반도에서 일본의 경제적 중심지(오사카·교토와 에도)를 연결하는 루트로 재편되었다. 『邊例集要』의 기사를 근거로 제시한 오성의 견해에 따르면, 1640~50년대부터 쓰시마번이 『東醫寶鑑』 등의 의학서와 함께 다량의 인삼을 조선 측에 구청하기 시작하였기에 일본 국내의 인삼 수요 증가를 파악할 수 있다.<sup>26)</sup> 이처럼 인삼의 유행은 한의학 등 관련 지식의 보급이 선행되어야 했던 문제였다.

반면 양정필은 동아시아에서 인삼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존재하였으며, 일본의 인삼 수요 증가를 조선 삼상의 수출 다변화 노력에 의한 결과로 설명하였다.<sup>27)</sup> 다만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세기 전반에 왜관 무역으로 수출된 조선산 인삼은 주로 나가사키를 거쳐 중국 방면으로 판매되는 중계 무역품으로 활용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애초에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 아직 일본 국내의 수요가 미성숙한 단계였기 때문이었다. 즉 인삼의 유통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문제라는 복잡한 경제적 논리의 충족이 전제되어야만 했다.

또한 쓰시마번 측 사료로 파악하자면, 17세기 전반 나가사키의 조선 인삼 수출은 1630년대와 1650년대에 두 차례 위기가 찾아왔다. 첫째는 에도막부의 대외관계 통제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결과였으며, 둘째는 명·청 교체의 진전에 따라 기존에 단절되었던 중국 남북의 경제망이 연결되면서 인삼 유통이 재개될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조선에서 출발해 나가사키를 경유하여 중국 남부에 이르는 17세기 전반의 '인삼의 길'은 명·청 교체라는 특수한 시대상 속에서 성립한 결과였다.<sup>28)</sup>

26) 吳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 『朝鮮後期 商業史研究』, 한국연구원, 2000(1992 초출), pp.28~30.

27) 양정필, 「17~18세기 전반 인삼무역의 변동과 개성상인의 활동」, p.122의 주 50).

28) 18세기 초에는 조선 인삼의 생산량과 일본 은의 산출량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더욱이 막부가 실시한 은화 개주 정책으로 인하여 쓰시마번의 무역 운영이 어려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막부에 대한 쓰시마번의 무역 보조 관련 청원이 거듭되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조선 무역을 축소하는 대신 국내에서 필요한 인삼을 나가사키의 중국 상인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고려하여 쓰시마번에게 위기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해진, 「17세기 말~18세기 초 쓰시마번의 대막부교섭 논리 변화: '通交'의 개념적 확장과 '藩屏의 武備'론의 등장」, 『일본역사연구』 55, 2021 참조. 이러한 사실을 통해 대만 등 해상의 명조 부흥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청조가 1684년에 천계령(遷界令)을 해지(이른바 전해령[展海令])한 뒤부터, 일본은 나가사키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도 인삼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6발표】

## 근세 동아시아의 정향 유통

남민구(동국대)

---



## 별쇄 참조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제11회 국내학술대회  
『동유라시아 물품학과 국제성』

- ◎ 일시: 2023년 12월 9일(토) 13:00~17:30
- ◎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1층 모의법정(B161호)
- ◎ 주최: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 ◎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 ◎ 이 행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  
됨(NRF-2020S1A6A3A01054082)



